

MAXIM

KOREA

HOTTEST TROUBLEMAKER

곽현화 PART.3

MAXIM과 그녀는 결국 세 번째 만남에서 불이 붙었으니...

WHO'S THAT GIRL

슬로대첩에 이예빈 안 왔다고? 여기 있어

14

TOP SECRETS: BODY LANGUAGE

신체 각도의 비밀만 알아도 번호를 판다
그녀가 자신의 입술을 만진 이유를 정말 모르나
클럽에서 승률을 30% 올리는 7가지 철칙
연기 뽐는 방향으로 파악하는 흥연녀의 심리
여자들이 숨기지 못하는 신체언어 14가지

MUSIC

소녀시대 컴백, 문제가 뭐게?
실력파 재즈 밴드 쿠마파크에 이런 미모의 보컬이!
소니, 코원, 아이팟, 갤럭시, 아이리버 음질 비교

래퍼 주석의 유언장 공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여자는 누구?
축구스타 이천수 근황 최초 입수: 주석이란 맨날 농구(?)함

COSMETIC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7가지 향수

7 CASE X 7 PERFUME

2013년 2월호
정가 5,900원



SCHOOL ZONE

여신 발굴 프로젝트 NO.7

드라마 <학교 2013>

오가은

라면 & 예쁜 여대생
NAUGHTY MATH TEACHER

BOOK

20대 여성 99.99%가 봤다는 19금 소설
읽어보면 알게 된다. 여자들의 M판타지

EURO SOCCER

유럽 명문 구단 엠블럼에 담긴 비밀
박지성, 구자철, 지동원, 기성용의 올해 사주는?

MOTOR

2월의 최대 문제작 CADILLAC ATS
HONDA의 신종 히드라 크로스오버
포드자동차의 여심 킬러 FUSION

HOW TO DRIFT

당신도 간단하게 드리프트를 할 수 있다

ELISABETH HARNOIS

CSI 12&13

CSI 모든 시즌을 통틀어 최강의 안구 정화 유닛
모간 브로디 수사관역의 엘리자베스 하노이스가
경찰 유니폼을 벗고 파격 비키니를 입었다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SUPER
ACTION LIFE



★ *the*

MAXIM



MEN'S BIBLE MAXIM Korea & JK Corp PARTY!

Party ★★
With J.K Corporation

DJ KOO
BEEJAY
MINDBENDER
G-TECH
SODEF
AK
MOAI

VJ GRAYMAN
GAGATRACK

SHAI
ARIKAMA
KINDERGARTEN
PASCAL DIOR
ROXY
AK



www.djmag.com

02/15
FRIDAY
2013

ID Checked. No Minors Allowed.
20세 이상 신분증을 소지한 분들만 입장가능합니다.

Reservation +82 2 516 8847
+82 10 2098 8798

Before PM 11:00 10,000 WON
After PM 11:00 30,000 WON
After AM 04:00 10,000 WON

octagonseoul.com/cluboctagon.co.kr
www.facebook.com/cluboctagon
@club_OCTAGON

OCTAGON

Contents

FEBRUARY / 2013

“

음침한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동물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다.
지나치게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는
별로 섹시하지 않다.

”

102

곽현화

우리의 로망을 실현시켜 주는 수학의
여신... 아니 MAXIM의 여신이자 이 땅 모든
수컷들의 여신. 아아, 당신은 우리에게
뜨거운 밸런타인데이 선물이었어요.



Contents

Circus Maximus

- 18 밸린타인데이, 구운 백조 케이크 한 판 어때?
- 20 2013년에 사라지는 것들과 생기는 것
- 22 하이브리드형 성모마리아 납시오.
- 24 이 시대 여대생이 가장 사랑한 리면은?
- 26 절대 안전한 포르노 엄선작

How To

- 30 성가신 상사 길들이는 법
- 32 택견으로 귀찮은 초딩 혼내는 법
- 34 프로처럼 드리프트 하는 법

Comment

- 36 소녀시대 4집 전격 해부
- 38 이 예능 프로 왜 접었지?
- 40 본격 성인 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 41 요즘 저러는 만화 속 과수들의 3가지 유형

Game

- 45 <아키에이지> 미녀 4인방 중 이상형 찾기! 주선은 안 해줘.
- 46 <오리사냥>에 열광했던 이라면 환장할 업기 체험형 컨트롤러 열린
- 48 도떼기시장 같은 LOL 챔스 4강전 현장 르포르

Music

- 52 MAXIM Attack: 크로스오버의 입신 경지에 오른 쿠마파크와의 다소 격한 인터뷰.

Sex

- 56 제주도보다 아름다운 섬, 스리섬 이야기
- 57 몸으로 말해요, 그녀의 신체 언어 해독하기

Hot Sauce

- 60 비키니 벗으면서 인생 상담 해주는 미녀?

Stuff

- 62 애플이 망했다고? 아이패드 미니의 역습
- 64 스마트폰에 만족 못했던 이들을 위한 포터블 뮤직 플레이어 슈퍼 테스트!
- 68 이달에 MAXIM이 지른 물건#5: 푸그니 운수매트
- 69 초대형 렌즈와 미녀의 만남

Motor

- 71 MAXIM이 선정한 이달의 차: 캐딜락 ATS
- 72 SUV? 세단? 혼다 크로스투어로 둘 다 가져
- 74 퓨전,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풀체인제! 포드의 역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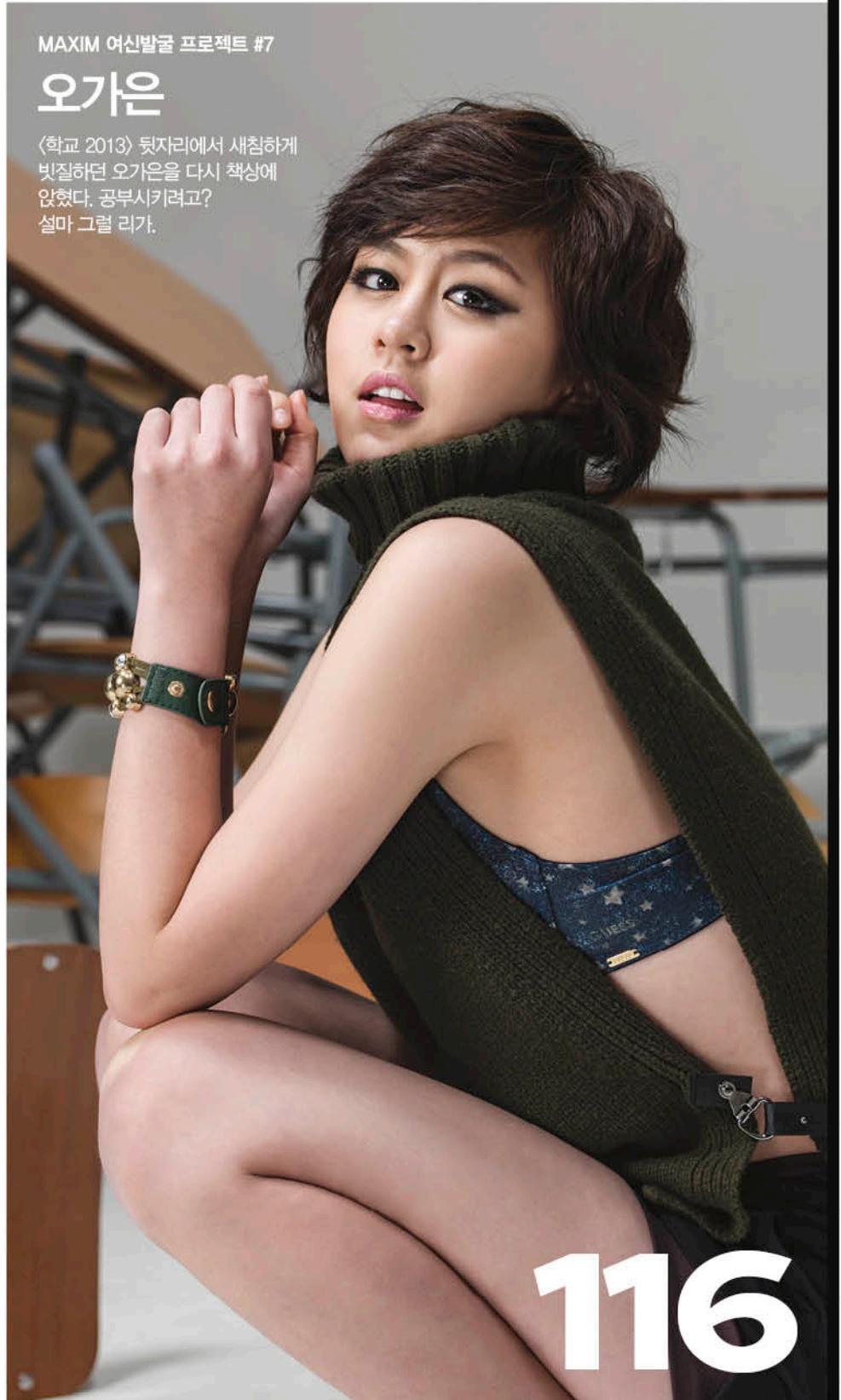
Style

- 80 시간 지키기를 흑백 논리처럼 칼 같이!
- 82 지나가던 여자들을 뒤돌아보게 하는 남자 향수 10종

MAXIM 여신발굴 프로젝트 #7

오가은

<학교 2013> 뒷자리에서 새침하게 빛질하던 오가은을 다시 책상에 앉혔다. 공부시키려고? 설마 그럴 리가.



116



오빠야,
머신 건어어?
H

오빠는
죽지않아

AVA

ALLIANCE OF VALIANT ARMS

FPS의 변화를 말하다!



QR 코드 찍고,
A.V.A만의 여캐릭터를
받으세요!

facebook

Contents



Icon

86 연예계 대표 주당 이원종과 함께 술판 한마당. 그리고 쏟아지는 술자리 비화!

CSI Hot Click

90 미드 <CSI>의 감쪽이 엘리자베스 하노이스! 취미는 고전 포르노 감상?

Smoke&Drink

94 빨강, 초록 빛깔 맥주가 있다? 없다?

96 풍초 터는 모습으로 분류하는 5가지 인간형

Fight

97 외팔이 파이터 닉 뉴웰이 챔피언이 되기까지

98 13개월 만의 통렬한 복수, UFC 헤비급 챔피언벨트를 재탈환한 케인 벨라스케즈

Sports

112 2013년 유럽파 축구 선수들 전망

114 유럽 축구 엠블럼에 대한 모든 것!

Top 10 Strongest XX

122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여성 역사(力士)들

Miss MAXIM

128 올해 첫 Miss MAXIM과 육조 안에서..

Day By Day

136 윈 데이가 이렇게 많아? 아, 내 돈..

Who's That Girl?

140 애니팡걸, 솔로대첩의 그녀, 이예빈

Party

146 갈수록 수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MAXIM Party. 잡지는 MAXIM, 파티도 MAXIM!

152 이태원에 새로 생긴 럭셔리 라운지 클럽으로 활동 반경을 넓힌 에디터

Rosie Roff

154 이런 가슴, 이런 엉덩이가 있다니! 로지 로프의 핫 섹시 보디어택

Military

162 이름만 들어도 우는 아이가 그친다는 전설의 특수부대 Best 5

MAXIM From AUS

166 호주 편집부가 미녀 모델의 선상 섹시 화보를 보내왔다. 맨날 켄거루랑 복싱하는 줄 알았는데 너네 부지런하다야.





ALBA

POSITIVE & SMART

ALBA 직영매장 세이코부티크 스타시타점 02454-8400 / 모멘토 현대킨텍스점 031822-2929 / 모멘토 현대충청점 043909-4148 / 모멘토 롯데아울렛서울역점 026965-2637 / 모멘토 롯데대전점오른매점 / 현대아이파크 백화점 022012-4144 • **면세점** 롯데 / 신라 / 워커히 / 동화 / 신세계 / J.C. / J.T. / K.T. • **수입원 삼성시계(주)** 02511-3182 • **전문점 서울(02)** 중구 이위치(71-7033) 종로 타임존(737-3627) / 노블워치(745-8789) / 정신사(741-9678) / 정우상사(272-2688) **동대문** 패션존(3398-7527) / 사포(218-8075) 서초 시계독립(6282-2777) / 신비파(532-2121) **송파** 타임존(411-0829) **강동** 현대골드(484-2029) **용산** 해피타임(2012-0625) **서대문** 타임월드(313-4108) **은평** 타임랜드(360-8471) **관악** 타임(6299-7166) **구로** 시계백화점(2111-1120) / 타임타임(2111-1141) **양천** 티파니(2648-8333) **강서** 타임피스(2668-0871) **광진** TM타임21(3424-7073) **성북** 해시계(2117-1755) **노원** 도라시(971-5334) **인천(032)** 남동 정타임(432-2430) **남구** 타임랜드(862-5534) **부천** 시계나라(329-0894) / 특목(662-2026) **경기(031)** 고양 타임24(931-5555) **성남** AK프라자(781-8194) / 동성당(753-0766) / 타임24시(728-5370) / 엔타임(707-1289) **수원** AK프라자(240-2199) / 텐어클럽(201-7100) / 지지칼렉션(221-4997) **안양** 타임월드(383-8342) / 보석상자(441-0158) **동탄** 타임플러스(371-6850) **부산(051)** 중구 명상시계(253-5315) / 국제사(245-1230) / 블랑(245-7965) / 타이머블(919-4704) **부산진구** 플라이(922-2068) / 프로보즈(818-6573) / 동하사(644-5551) **울산(052)** 금보당(960-4848) **경남(054)** 마산 신세계스위스(224-2711) **창원** 롯데창원(279-3119) **진주** 갤러리아(791-1177) **대구(053)** 중구 주얼리아(428-2668) / 바젤(425-8707) / 동아스위스(252-8111) / 해피타임(428-3086) / 엘가(255-6940) / 켈마(428-0338) / 레츠(425-0157) / 삼성시(422-3002) **경북(054)** 구미 타임프라자(455-2410) **포항** 조이필(613-1170) / 주얼리(244-8172) / 타임피아(253-8855) / 스위스(246-8944) **충북(043)** 청주 명공사(256-4574) / 드림플러스(235-1510) **대전(042)** 보옥당(253-9241) / 세이백화점(257-7745) / 엔비(255-6292) / 세이브존(482-2328) **충남(041)** 천안 티파니(561-9438) / 알파오메가(564-5465) / 신세계예진(640-5081) / 루치타임(522-6505) **강원(033)** 춘천 시계마을(253-7689) **광주(062)** 굿타임(233-3050) / 이프로우(225-0175) / 현대제일새(515-7172) / 시계명가(226-2251) / 골드룩(410-0137) / 티티(222-3114) **전주(063)** 세광당(289-2590) / 컴투(285-7596) **제주(064)** 손금사(758-1717)

M^c

MAXIM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대리 김희성 alicem@maximkorea.net
 주임 송종민 jim@maximkorea.net
 주임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이사 유승민 sm@maximkorea.net
 주임 손안나 anna@maximkorea.net
 주임 이영환 lyh@maximkorea.net
 주임 조용재 wj@maximkorea.net
 인턴 에디터 박수현 mari@maximkorea.net
 박종원 tt3314@maximkorea.net
 최동희 t578@maximkorea.net
 최성준 csjet89@maximkorea.net

직원 에디터 이용수 (각주 칼럼니스트) 김덕중 (엑스포츠) 기자
 김대영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김광희, 박종현 (라면 리뷰어 누들라)
 이훈복 (맥주 스타일리스트) 굿시니스트 (카툰 작가)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주임 서윤정 yoon@maximkorea.net
 주임 전은경 eun@maximkorea.net
 객원 한성미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팀장 김진욱 14k@maximkorea.net
 매니저 원정운 jw@maximkorea.net
 매니저 정진선 js@maximkorea.net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인영 joy@maximkorea.net
 주임 장선영 sun0676@maximkorea.net
 비서 김화현 sm@maximkorea.net
 인턴 이현구 leehg@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토크엔 팀장 서정민 oreiss@town.com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실장 정기수
 실장 김영석
 실장 박 울
 오준섭

교열

신선경 kshin0111@daum.net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대표 이용관

Printing / 인쇄 원색분쇄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원순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지용 / 이사 원혜진

www.maximkorea.net

광고/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9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주)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3년 2월호 통권 제34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RGENTINA Germán Pittelli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ITALY Paolo Gelmi	RUSSIA Sasha Malenkov	THAILAND Surawong Kruaefan
AUSTRALIA Santi Pintado	GERMANY Mike Bleibtreu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iaz Rojo	SERBIA Dragan Otašević	UKRAINE Sasha Malenkov
BULGARIA Hristo Zapryanov	INDIA Vivek Pareek	POLAND Krzysztof Papliński	SOUTH KOREA Young-Bee Lee	UNITED KINGDOM Alpha Media Group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SWITZERLAND Boris Etter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2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남자는
 자존심이 생명.
 자존심을 세워
 드립니다.



PRIDE CARE & WASH
 프라이드 케어 앤 워시

남성전용
 청결제

남성전문 피부타입별 화장품 - 엠도씨



HOME PAGE
 www.mdock.co.kr

ONLINE SHOPPING MALL / 온라인 쇼핑몰
 www.mdoc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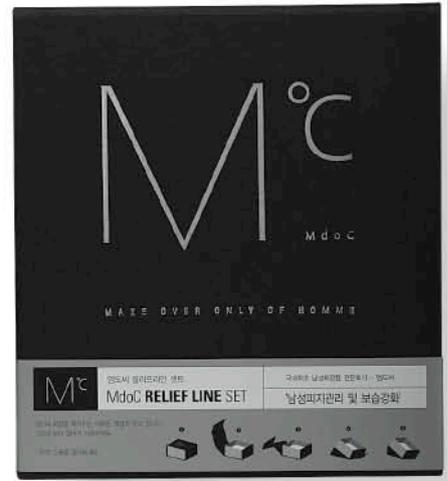
ANTI-WRINKLE TREATMENT ESSENCE
Take care of men's wrinkled skin with this one drop!

M-CARE MASSAGER
Wrinkle Care Total Solution



www.mdoc.co.kr

RELIEF FIRST PEELING GEL
Start with relief first peeling gel to remove dead skin cells of men's face.



RELIEF GIFT SET
Moisture/Special edition



RELIEF TONIC
Feel the freshness with zero-stress relief tonic.



Beyond Perfect Man's Skin!

Only Man's Cosmetic Brand

RELIEF ESSENCE EMULSION
Rich moisturization of essence – no more oily skin with silky finish!



RELIEF ESSENTIAL MASK
Amazing effect from botanical ingredients only for men

RELIEF FOAM CLEANSING
Foam cleanser best suited for men's skin type – feel the freshness.



MEN'S B.B CREAM
Present yourself with confidence by naturally covering widened pores and blemishes. (Triple function product)



국내최초 남성전문
피부타입별 화장품
엠도씨

HOME PAGE
www.mdoc.co.kr

ONLINE SHOPPING MALL / 온라인 쇼핑몰
www.mdockorea.com

M°C
M d o c

Letter From MAXIM

젊은이에게 바치는 편지

“교수님 강의 너무 재미 없씨여!”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한 지인이 최근 강의 중 학생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상당한 달변가 타입인 그에게 이 말은 엄청난 충격이고 상처였다. “요즘 친구들은 강의를 개곤인줄 알아, 교재를 MAXIM처럼 만들어야 할까?” 허탈한 표정으로 그가 말을 이었다. “다른 애들도 ‘네! 네!’ 하면서 깔깔대느라 수업이 잠시 중단됐지.” 어떻게 했느냐고, 뉘지게 패서 강생이를 탈탈 털었느냐고 물었다. “뭘 어떻게 해, 교수 평가 중요하잖아. 집에 가서 개곤 봐야지.” 그래, 강의할 때 개곤 유행어도 쓰고, 유행어 쓰면 교수 평가 잘 받고, 평가 잘 받으면 소고기 사먹겠지(친구야, 같이 목자), 요즘 대학생과 세대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자만하던 나도 놀라긴 마찬가지. “교수님, 제가 모자라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도 아니고, 하다못해 “죄송하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 없어요”도 아니고 “엄씨요!”라니? 뭐 이런 똥고발당한 학생새끼가 있다. 나같은 소인배는 아마 못 참았을 거다. 무개념 중자들이 무한 자기분열하는 시즌이 도래한 건가. 요즘 이와 비슷한 경우를 자주 보고 듣는다. ① 말이 안 통하고, ② 말로는 ‘난 악의는 없다’면서 폐를 끼치고, ③ 무책임하고 배은망덕한 젊은 후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 주변 친구들은 ‘마치 자기는 예전에 안 그랬다는 듯’ 후배를 욕하며 혀를 찬다.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찬상이라는 직장 상사 욕도 물론 빠질 수 없다(친구들의 상사 욕을 들을 때마다 우리 에디터를 얼굴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를 마주할 때 ‘인내심’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 피곤하니까. 이런 인지상정이다.

요즘 문의 메일을 많이 받는다. 올 MAXIM 상반기 공채를 앞둔 지원자, 또는 미래 직장으로 진지하게 MAXIM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나 군인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뽑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다. 나도 같은 질문을 인생 선배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한 언론사의 S부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같이 일하고 싶은 후배+교양 수준이 높은 사람.” 교양 수준은 대중 원지 일것고, 그럼 같이 일하고 싶은 후배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물었다. “말 그대로 같이 일하면 좋은 친구”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야,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미안한데 당시 내가 0.1mg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을 되돌이켜야겠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다.” 그게 무슨 개뽕따구 같은 말이며, 하나마나한 소리 집어치우라고 하고 싶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다!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를 갖추지 못한 사람과는 누구나 같이 있고 싶지 않듯 채용도 인지상정이다. 입사를 원하는 회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갖추지 않은 사람과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나는 스펙보다는, 진심으로 이 일에 열정을 갖고 있는지, 우리 매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애정과 존경심이 있는지, 함께 잘 지낼 수 있을지 등을 결정적인 요소로 본다. 흥대 쪽을 향해 하루 세 번씩 절을 하고, 흥대역 1번 출구에서부터 MAXIM 빌딩까지 삼보일배를 하라는 거 아니다. 진지하게 직장으로 MAXIM을 고려하여 미래를 그리고, 이 일을 잘 모르더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뭐든 돕고 배우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짧은 면접과 자소서, 필기 시험만으로 그 사람을 잘 알기란 불가능하다. 원래 1년, 3년, 10년을 알고 지내도 모르는 게 사람속이다. 면접관, 인사담당자도 그런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공채 기간, 길게는 수습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 지원자의 모든 리액션과 태도, 말투 등에 집중하여 됴됨이를 살피고 ‘함께 일하고 싶다, 아니다’를 판단한다. 공채에서는 ‘상식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통의 인성 또는 생각’ 즉, 인지상정 수준의 매너와 예의를 지키는 정도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 ‘젊음은 특권’이라는 말 지겹게 들었지? 취직도 맘대로 안 되고,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집 한 채 못 마련할 것 같고, 20대 후반 넘어서 부모님 등골에 빨대 꽂고 죄스름게 살고 있는데 뉘 개소리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에게 엄청난 특권이 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 실패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정말이다. MAXIM 편집장이 말해 봐야 안 믿을 거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믿을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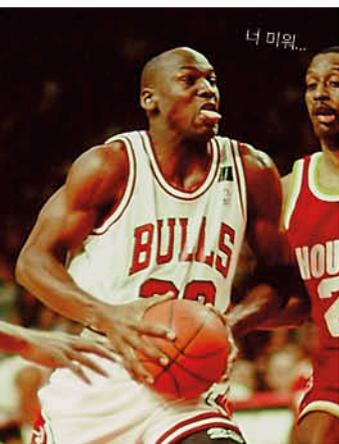
“나는 농구를 시작한 뒤로 9천 번 넘게 슛을 놓쳤고, 3백 번 정도의 패배를 기록했다.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슛을 놓친 경우도 26번이나 된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말이다. 젊음의 특권은 9천 번 넘게 슛을 놓쳐도 다시 9천 번을 쓸 수 있는 ‘시간’에서 나온다.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갔다고 부디 너무 깊은 좌절에 빠져 세상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 그 특권을 이용하여 몇 번이고 다시 점프하다 보면 언젠가는 멋지게 날아올라서 명크를 꽃을 날이 반드시 온다.

2013년 2월 편집장

이영비

“나는 여러 번 실패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이다.”
 -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



RAZER
ELECTRA
ESSENTIAL MUSIC & GAMING HEADPHONES



GAMING ON THE GO

- 강화된 베이스 반응
- 탁월한 사운드 차단
-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함 제공

레이저 코리아의 팬이 되세요! [f /RAZERKOREA](#)

FOR GAMERS. BY GAMERS.™

kr.razerzone.com

© 2012 All Rights Reserved. Razer USA Ltd and affiliated companies.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ctual products may differ from pictures. Information correct at time of printing.



Hot Request
독자들이 통일 다음으로
염원했다는 이달의 MAXIM
모델은 누구?

섭외 요청
MISSION COMPLETE

2012. 12 배소은

2013. 01 한그림

당신이 추천한 그녀가 MAXIM 화보에 등장한다! 오라! 섭외 요청 게시판으로!

MAXIM에서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모델이 있나? 그렇다면 MAXIM 홈페이지 메인에서 '섭외 요청 게시판' 배너를 클릭하라! 당신이 그토록 MAXIM에서 보고 싶던 모델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그동안 독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강예빈, 배소은, 한그림 등이 MAXIM의 새로운 여신이 되었다. 이번 달 섭외 요청 게시판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모델은 이예빈이다. 지난해 말, 여의도에서 열린 '솔로대첩'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못 남성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바로 그녀다. 훌륭한 생체공학적인 밸런스 와 애교를 겸비한 그녀의 화보를 준비했으니 정독은 나중에 하고 어서 빨리 'Who's That Girl' 페이지로 넘겨라!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섭외 요청 게시판** 배너를 클릭하고
MAXIM에서 만나고 싶은 모델을 직접 추천하자! www.maximkorea.net 



THIS MONTH'S HOT CLICK
MAXIM 홈페이지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 중 독자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 기사는 아이돌 뺀다는 외모를 지닌 15세의 베트남 여성 복서 기사다. 순백의 드레스와 청순한 꽃무늬 원피스를 즐겨 입고, 셀카 실력 또한 한국 여고생 못지않게 능숙한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당장 MAXIM 홈페이지로 접속하라!



THIS MONTH'S HOT SCAN
1월호 잡지 속 QR 코드 중, 독자들이 스마트폰이 날도록 스캔해댄 코드는 한그림 양의 화보 속에 있었다. 120 페이지에 달린 QR 코드 안에는 자칭 '한그림 빠돌이'로 유명한 조유영 에디터가 동 살 때 빼고 하루 온종일 구굴링해 온 'BEST 한그림 짤방 모음집'이 들어 있다. 소유와 집착 본능을 자극하는 한그림의 짤방이 궁금하다면 2013년 1월호 한그림 화보를 뒤져보도록!



영화 <헨젤과 그레텔: 마녀 사냥군> 예매권 살포 이벤트
오는 2월 MAXIM 홈페이지에서 영화 <헨젤과 그레텔: 마녀 사냥군> 티켓을 독자들에게 살포할 예정이다. 단지 영화 내용과 관련한 댓글 몇 줄만 달면 예매권 응모가 되는 이토록 화끈한 이벤트가 또 있을까? 이밖에도 매달 다양한 상품으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호주머니가 가벼운 총각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자주 들락거려야 할 것 이야!

MAXIM SURVEY
소맥의 황금 비율은 몇 대~ 몇?

(맥주:소주)

1위 7:3 (506표 63.8%)
2위 2:1 (153표 19.3%)
3위 1:1 (57표 7.2%)
4위 4:3 (45표 5.7%)
5위 1:2 (32표 4%)

-총 투표자: 793명, 출처: MAXIM 홈페이지

와우 소맥은 7:3이지!

연말연시 술자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자칭 소맥 제조 전문가를 많이 만나 보셨을 거다. 그 때문에 미각 장애와 위산 역류 등으로 익일 출근길 졸비가 되어 했던 독자들에게 소맥의 황금 비율에 대해 물었다. MAXIM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맥주 7, 소주 3"이란 응답이 63.8%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최대한 알코올을 적게 섭취하겠다는 독자들의 웰빙 정신이 드러난 결과라고 하겠다(그럴 바에 차라리 키테일 소주를 마셔).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관한 재미있는 설문조사들이 MAXIM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니 한 번 와서 짚어주시라!



Swiss made
Sapphire glass
See-through case back
ZASPERO Cal. 3540D.Z1

PERFETTO

Moderno Collezione 2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직 엽 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042
- 롯데백화점(부평점) 032)452-2168
- 롯데백화점(포항점) 054)230-1137
- 신세계백화점(영등포) 02)2639-1337
- 현대백화점(중동점) 032)623-2163
- AK백화점(원주점) 033)811-5535
-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가드피아브(송파점) 02)2157-5000
- 두산타워 2(동대문) 02)3398-5528
- 미 금 사(중랑점) 02)434-4880
- 탑 타 임(안산점) 031)413-7656
- 제일백화점(천안점) 041)564-5465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티 파 니(광주점) 062)671-7458
- 중문면세점(제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39
- 롯데백화점(인천점) 032)450-2153
- 롯데백화점(창원점) 055)279-3119
-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 현대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오헤피타임(용산점) 02)2012-0625
- 헬로우APM(동대문) 02)6388-2927
- 테크노마트(강변점) 02)3424-7073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복 와 치(창주점) 043)223-1333
- 엘 가(구미점) 054)451-6940
- 조 이 필(포항점) 054)613-1170
- 롯데백화점(본점) 02)772-3124
- 롯데백화점(건대점) 02)2218-3143
- 롯데백화점(창주점) 043)219-9108
- 롯데백화점(광복점) 051)678-3155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6082-0344
- AK백화점(구로점) 02)839-5128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이 와 치(명동점) 02)771-7033
- W MALL(구로점) 02)2081-0921
- 굿모닝시티(동대문) 02)2118-8075
- 워 치 록(노원점) 070)4136-5090
- WatchF1(부평점) 032)501-7015
- 예진시계(대전점) 042)280-9117
- G-ZONE(구미점) 054)455-2410
- 타임피아(포항점) 054)253-8855
-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7282
- 롯데백화점(안산점) 031)909-3293
- 롯데백화점(대천점) 042)601-2149
- 롯데백화점(서면점) 051)810-4138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86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NC백화점(부산점) 051)509-7221
- 세운스퀘어(종로점) 02)2272-2688
- 디류브피타(신도림) 02)2211-0149
-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 타임 24 (일산점) 031)931-5555
- 타 임 린(부평점) 070)7616-4545
- 삼 성 사(대구점) 053)422-3002
- 타임뱅크(광주점) 062)410-0110
- 인터넷고돌(양산점) 055)911-7111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630-6734
- 롯데백화점(병천점) 031)8086-9248
- 롯데백화점(전주점) 063)289-3191
- 롯데백화점(센텀점) 051)730-3235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AK백화점(분당점) 031)781-8194
- 갤러리아백화점(수원점) 031)548-8996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9
- 테크노마트(신도림점) 02)2111-1120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시계상사(안양점) 031)441-0158
- 뽕 끼 뽕(부천점) 032)662-0686
- 엘 가(대구점) 053)255-6940
- 골 드 록(광주점) 062)410-0137
- 타 임 린(부산점) 051)919-4704
- 롯데백화점(청량리) 02)3707-1190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64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32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960-4783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AK백화점(평택점) 031)646-6139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와 와 치(강남점) 02)537-8977
- 두산타워(동대문) 02)3398-7527
- 원 타 임(왕십리) 02)200-1355
- 시계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 뉴코어아울렛(부천점) 032)624-8337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8
- 골드캐니언(광주점) 062)714-1121
- 블 랑(부산점) 051)245-7965

Letters

신나는 밸런타인데이가 우리를 기다린다.
김미 어 사연! 김미 어 쪼꼬렛!



내가 신혼인 것 같아

본인은 올해 계란 한 판 나이에 접어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요. 밤샘 작업을 마다 않던 어느 날, 옆집에 신혼부부로 보이는 커플이 이사 와서는 본인의 밤샘 작업을 몹시 야릇하게 방해하고 있시 시끄러운 소리가 한밤중, 심지어 주말엔 낮에도 울려 퍼지고 있소.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지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찌하면 좋소? (김일려, 이메일 사연)



에디터 조웅재 → 인간 애니팡 사운드를 서라운드로 감상할 수 있구나. 신혼부부보다 훨씬 부럽군요. 매일 밤 새신랑처럼 피곤하시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야릇한 소리가 좋아도 매일 듣다 보면 하이마트 CM 송만남 지겹다 못해 벽을 부수고 싶을 겁니다. 이제 소리로 만족할 시기는 지났네요. 눈치 좀 보다가 그 집 현관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옆집에서 초대남 지원(신입)'.

불쌍한 슬로 친구가 너무 웃겨

주변의 커플 세 쌍이 새해 전날 여친에게 차였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외치는 친구의 급박한 전화를 받고 급히 친구를 병원으로 이송했소. 이유인즉, 여자친구와 헤어진 게 너무 억울했던 친구는 찌르레기 폴더의 영상을 보며 12연속 딸을 시전해 전립선이 파열되었던 것이요. 친구를 팔아 사연 당침의 희망을 걸어보오.

(고이즈미, 모바일 사연)



에디터 박한빛누리 → 솔직히 12연속 딸은 지옥나무 타는 밤새가 너무 나오. 대강 8 번이라 칩시다. 그래도 전립선이 파열되었다고 하니, 삼가 고정자의 명복을 비오. 근대 대체 어떤 작살나는 아들이길래 11전 12기로 쓰러진 공휴를 세울 수 있었는지 품분이 무척이나 궁궁하오. 전설의 복서 홍수환도 고작 4전 5기였는데, 고군분투한 친구분 공휴에 황금 벨트를 감아주고 싶소.

매너손이 대체 뭐길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과 사진을 찍는데 자연스레 몸이 기울어 저도 모르게 허리춤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그 사진 아래 'XXX 씨 매너손 필요!'라고 댓글이 있던군요. 실수했구나 싶었는데,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만취한 후배가 여직원을 양손으로 번쩍 들고 웃고 있는 사진 아래 'XXX 씨 남자네 ㅋㅋㅋㅋ'라고 써 있었습니다. 대체 매너손의 기준이 뭐죠? (lisbon, 이메일 사연)



에디터 손이나 → lisbon님의 동료 직원 분들은 무척 개방적인 분들이로군요. 허리춤에 손을 올린 것 정도로는 매너가 아니라고 하니, 아마 그 자리에서 가슴이라도 움켜쥐었어야 상 매너로 쳐주시나 봅니다. 그 후배분 아가길 들어보니 더 확신이 가네요. 다음 회식 때는 양손으로 등뽕, 제대로된 매너를 보내주세요. 매너손 운운하는 댓글은 안 달릴 게 확실합니다(영원히 안 달리지죠).

이달의 스페셜 투고: MISS MAXIM을 추천해드립니다

회사 휴연장에서 찍은 사진이요. 혹시 이 아주머니를 MISS... 아니, 어쨌든 MAXIM GIRL로 한번 뽑아보는 건 어떨겠소? 아니면 본인이 가서 추천이라도... 아무튼 담배 피우러 왔다가 너무 웃겨서 찍어 보내드려요. (이거창, 이메일 사연)



2013 MISS MAXIM
강력한 우승 후보!

→ 아마도 아주머니 등판에 쓰여 있는 MAXIM은 '이스트웨스트 푸드 컴퍼니'의 베스트셀러 브랜드 같군요. 자판기 두깡을 따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아하니, 아마도 저희 회사와 같은 계열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니폼 사이즈에 비해 노란 지수가 너무 소심하게 박한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 달 MISS MAXIM에게 입학보고 싶은데, 혹시 협찬되나요?



이것 소속이신 것 같네요.

THE NEW ERA® ACCESSORIES

RUCK SACK BACKPACK



NEWERA STORE

- 서울매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B1F
- 인천매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SQUARE 2F

ONLINE STORE

- WWW.NEWERACAPKOREA.COM

FLY YOUR OWN FLAG™





다 된 밥을 뺏어가네

연수원에서 만난 아리따운 처자에게 작업을 걸고 있었소. 그런데 한창 잘 되어 가던 찰나, 어디서 나타난 강아지 밥사발같이 생긴 새끼가 그녀를 가로채려는 것이 아니겠소? 심지어 본인의 농담에 실실 쪼개기만 하던 그녀가 그 새끼랑 있으면 박장대소를 하는 것이요! 다 잡은 몹을 스틸당할 느낌ियो. 어찌 하면 좋소?

(tjksk, 이메일 사연)



에디터 김희성 → “내 친구 진짜 예쁘다”는 여자 사람 친구의 말만 믿었다가 만나보고 짜증 폭발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잘생겼다든 남자 중에도 진짜 괜찮은 남자 못 봤습니다. 여자들 기준에 훈남이더라도 당신 눈에는 강아지 밥사발이나 거지발싸개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당신의 숙적인 강아지 밥사발을 데리고 흥대입구역으로 오십시오. 제가 그 강아지 밥사발을 유혹할 테니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그녀를 차지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tjksk님마저 저한테 반하면 어쩌죠?

연초부터 신나게 김치국 원샷!

술집에서 함석이 붙어 여자 둘과 2:2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소. 다들 적당히 취하고 알뜰알뜰한 상태에서 은밀한 눈빛을 서로 교환하다가 결국 딤



키스가 수차례 오갔소. 술술 때가 됐다 싶어 찢어지려 하는데 친구 놈이 좀 취한 것 같아 잠깐 행진 사이에 여자들이 싹 사라졌소! 이건 만취한 동생 놈 잘못이요, 이놈을 행진 내 잘못이요? 아니면 여자들 잘못이요??

(010****8832, 모바일 사연)



에디터 송종민 → 키스가 별로였던 남의 잘못입니다. 남녀의 만남에서 하는 간보는 일을 담당합니다. “후루룩, 아 고향의 맛” 말고 서로의 성적 능력을 파악하는 척도란 말입니다. “어떤지 보게 세 번만 넣어보지” 할 순 없지 않습니까? 키스 무드가 되면 허에 바짝 기합을 넣고 막 이렇게 뺨처럼 얼지? 스테이크, 저렇게 휘감고 막, 이리갔다 저리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막 비벼.. 어떡하지 너?

애 탓 아니면 니 탓

MAXIM 1월호를 보며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낯선 아이디의 오랑캐 같은 놈에게 습격을 당했소. 갈고 닦은 키보드 실력으로 폭풍 랩 같은 육설을 퍼부으려는



찰나, 본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놈의 ‘우리 엄마’라는 ID에 무릎을 꿇고 말았소. 결국 본인은 이 억울함을 MAXIM 1월호의 탓으로 돌리려 하오, 어서 보상해주시오!

(그럴수없었어, 모바일 사연)



에디터 이영환 → 안녕하세요, 독자님. 게임에 제대로 신경을 못 쓸 정도로 MAXIM이 재미있으나 보군요. 독자님께서 이번 변을 당하셨는데 저희가 기만히 있을 수 있나오! 보상으로 MAXIM을 정기 구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유의지와 최고급 Thankful 감사의 마음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세요(저 이라는 거 일면 편집장님한테 진짜 혼나오).

독자 사연 응모

겨울을 극복한 당신을 조금 더 멋지고 성숙하게 만들어 줄 독자 사연 투척 가이드!

응모 방법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방문 접수

남보다 더 열정적인 당신 새벽같이 일어나 MAXIM 사무실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당신만의 여유를



한없이 즐기는 것처럼 보일 거다. MAXIM 사무실로 신문 배달이 오면 잘 보이는 페이지에 자신의 사연을 끼워 넣는다. 그리고 돌아서서 “뉴욕 헤럴드 트리뷴”을 외치고 한물간 서플댄스를 추며 유유히 사라지면 된다.



이번 달 독자 선물은

비포장도로처럼 딱딱한 당신의 피부를 위한 스크럽 제품이다.

‘에브리맨잭 페이스 스크럽 시그니처

민트’는 각질 제거는 물론, 코코넛에서 추출된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안티에이징 효과가 탁월하다. 서울시가 보도블록 같아엎듯 주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 간 아스팔트 도로처럼 정돈된 피부결을 느낄 수 있을 거다.

GIORGIO FEDON
1919



HAWK EYE



Dear. Readers

곽현화의 화끈한 독자 상담

에디터의 답변이 너무 말랑말랑하다고?
돌직구 제대로 던지는 누님이 대신 답해주매

Q. 26세 남자입니다. 여자친구의 가르침 덕분에 처음으로 성에 눈을 뗐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알려주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알려주지 않네요. 어떻게 하나요?

A. 바보야? 한 번 가르쳐줬으면 일어서 해야지, 뭘 더 가르쳐줘. 어우 진짜, 질게 씹어서 한 번 먹여줬으면 다음부터는 자가 일어서 씹어 먹어야지!

Q. 회사 이벤트로 클럽 파티를 준비하합니다. 콘셉트나 테마를 정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농촌 섹시 콘셉트 이런 건 어때요?

A. 원래 그런 파티에서는 드레스 코드를 너무 엄격하게 정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안 오거든요. 차라리 밸런타인데이가 가까워 오니까 드레스 코드보다는 신체 어딘가에 초콜릿을 묻혀 오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할아주기?(웃음)

Q. 밸런타인데이에 여자친구가 뭘 갖고 싶냐고 물어요. 딱히 없는데 그냥 넘어가면 너무 심심할까요?

A. 일부터 갖고 싶은 걸 생각해볼 필요 없이 이럴 때일수록 점수를 딸 기회를 만드는 거죠. "난 너만 있으면 돼"라든가. 닭살돋는 멘트와 함께 반대로 그녀에게 선물을 하는 반전을 주는 건 어떨까요?

Q. 사내에 괜찮은 처자가 있는데 조금만 더하면 넘어올 것 같아요. 그녀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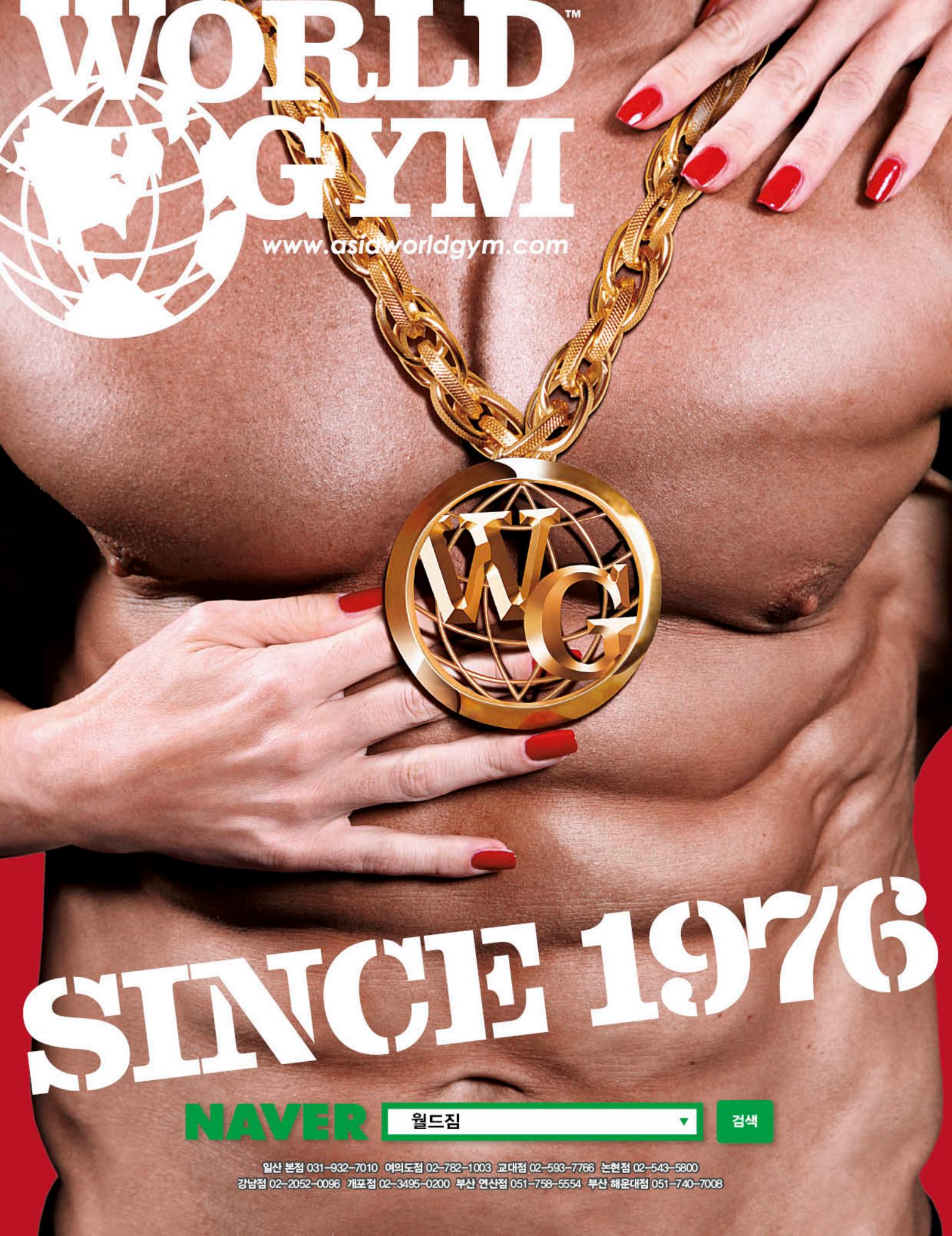
A. 그럴 땐 술을 마셔야지. 여자분의 마인드가 살짝 오픈된 것 같다면 진지하게 "데이트 한번 할까요?" 하고 데이트를 신청한 뒤 술 한잔 하는 거죠. 원래 분위기는 술로 푸는 거예요. 물론 너무 딱이 돼서 다음 날 같이 무단결근하고 이러면 안 돼요!

①
티프한 소방관 같은 그녀의 옷차림이 너무 압권해 보인다?
아직 잘 모르는구만, 점점 섹시해지는 그녀를 102페이지에서 만나보자.
지금 당장!



WORLD GYM™

www.asia-worldgym.com



SINCE 1976

NAVER

월드짐

검색

입산 본점 031-932-7010 여의도점 02-782-1003 교대점 02-593-7766 논현점 02-543-5800
강남점 02-2052-0096 개포점 02-3495-0200 부산 연산점 051-758-5554 부산 해운대점 051-740-7008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Bloody Valentine's Day

당신의 밸런타인데이를 뜨겁게 만들어 줄 다섯 녀석들



절단 손 케이크

영국의 한 홍보대행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엠마 토마스 씨는 실험적인 케이크를 만드는 단체를 설립하고 예술가와 케이크 장식가들에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케이크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씨는 만든 절단 손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생년이 되는 그녀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케이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버리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된다. 아주 맛있을 거다" 네. 잘 구워졌네요.



←
자매품:
잘린 다리 케이크



신생아 화이트 초콜릿

예술가이자 파티쉐인 아나벨이 초코 시럽을 한뼘 한뼘 응고시켜 만든 정교함이 돋보이는 초콜릿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리카락, 찡뚱 등을 정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 크기가 실제 신생아와 똑같습니다. 다이어트 중인 여친이 받으면 아주 좋아할 것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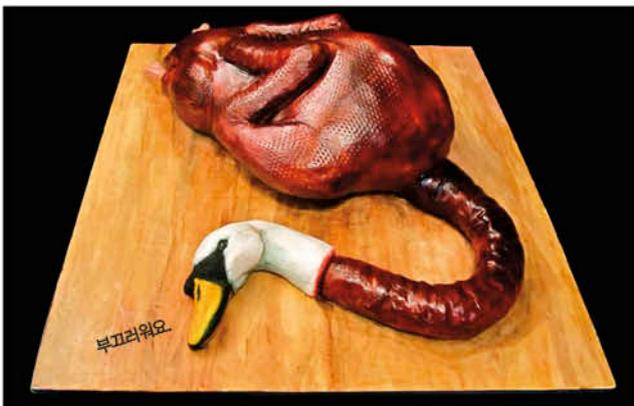
→
자매품:
어른 머리 케이크, 가격 미정

aximus



정맥 컵케이크

맨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며 당신의 등골을 빼먹는 구미호 같은 여친에게 선물하세요. 컵케이크를 먹은 다음 덤으로 꽂힌 주사기를 그녀에게 내밀며 '오늘은 내가 한 방 놔주겠다'고 하면 뜨거운 밤이 되겠죠?



구운 백조 케이크

목덜미 아래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려 흑조가 된 백조 초콜릿입니다. 죽을 때 억울했는지 눈을 뜨고 죽은 듯한 디테일을 잘 살렸네요. 이 케이크의 크기는 24인치 정도, 목과 날개에는 살이 씹힙니다. 백조 머리 부분은 질감이 진흙처럼 끈적거리며 먹을 때 옆사람을 보고 웃으면 안되는 초콜릿 머드 케이크가 들어있습니다. 남남 찹찹 츄르를.



초코 바나나

일본에서 인기인 초코 바나나입니다. 만들기도 쉽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까서 초코시럽에 푹 담그면 끝입니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여친과 함께 초코 바나나를 만들어 사랑을 속삭여 보는 건 어떨까요.

수염이 자주
지라요.



2013 IN&OUT

2012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것들과 2013년부터 생기는 것!



야후, 파란, 버디버디 서비스 종료

한때 인터넷 포털의 대명사였던 야후가 15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 마지막까지 야후 꾸러기를 이용하던 초딩들이 혼란에 빠졌다. 하이텔의 계승자였던 파란닷컴 역시 7월 31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혼인방자간음죄 폐지

속여서라도 하고 싶은 남자들이 속았다고 생각해야만 자존심이 서는 여자들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성범죄 친고죄 폐지

6월 19일부터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형사처분된다.



MBC 게임 방송 철수

MBC 게임이 MBC 유직으로 바뀜. 문화 사업 중 게임이 수출 1위지만 대접은 찬밥인 현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야!

지상파 TV 아날로그 방송 폐지

56년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줬던 아날로그 방송 안녕!



소니 플레이스테이션2 생산 종료

2000년 출시 이후 1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억 5,000만 대가 팔린 워닝 머신 PS2가 2012년 12월 28일 생산을 종료했다.

이제 만 19세부터 어른이다!

PC방 흡연 전면금지

6월부터 PC방에서 재떨이에 담배꽂초로 국화꽃을 피우던 장인들을 볼 수 없게 된다.



군인 월급 15% 인상

아등병 기준 81,500원이던 월급이 2013년부터 93,7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니까



MAXIM 더 열심히 사라고!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개시키'도 주민등록증을 갖게 된다. 올해부터 시, 구, 군청 등의 기관에 마이크로칩 피부 삽입(2만 원), 마이크로칩 목걸이(1만 5천 원), 인식표 목걸이 착용(1만 원)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애완견을 등록해야만 한다.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와 장애인 보조견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고 고자견의 경우는 50% D.C가 들어간다.



야사 난 언제

아등병 복무기간 축소

아등병의 복무기간을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일등병은 6→7개월, 병장은 3→4개월(해군 5→6개월, 공군은 6→7개월)로 늘어난다. 조삼모사 같은 건 기분 탓이겠지?



23년 만에 다시 한글날이 공휴일로!

허허,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렬들은...



최종지불가가격제,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부가세, 봉사료 등을 따로 표기해 데이트에 나선 남자들의 등골을 빼먹었던 식당들이 철퇴를 맞는다. 이제 메뉴판에는 반드시 실제 지불 금액이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비싼 집인가 아닌가 입구를 기웃거리는 비참함을 덜어주기 위해 음식점이나 마용실 영업장 바깥에 가격표기가 의무화된다.



여기 얼마예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애매한 법 적용 기준으로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아청법)'이 결국 6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시 형량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 확대 (일반 PC방, 경비업 등)
- 강간죄 형량 현행 5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어, 어...



어서와





HELL DIVER

1942 SB2C



HELLDIVER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서울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 원 타임(왕십리) 02-2200-1355 | 헬로APM 6F(동대문) 02-6388-2927 |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 와와치(남포) 02-537-8977 | 이츠와치(홍대) 02-323-0980 |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이타임월드(신촌) 02-313-4108 | 이와치(명동) 02-771-7033 | TIME21(강변 테크노마트) 02-3424-7073 | TIME21(강변 엔터시스) 02-3424-1210
 타임랜드(은평) 02-350-8471

경기
 시계상자(안양) 031-441-0158 | 티파니(일산) 031-931-5300 | 뽕기통(부천) 032-662-0686 | 샤론주얼리(안양) 031-463-9788
 보석상자(안양) 031-466-1014 | 탑타임(안산) 031-413-7656

인천/청주/부산
 워치보이(인천) 070-8632-5300 | 타임런(부평) 070-7516-4545 | 복와치(청주) 043-223-1333 | 타임봄(부산) 070-7530-1219

Circus Maximus / Art

주어...
저 새끼를
용서하소서.

세계의
수상한
조형물!



너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



(지구의)
평화를 빕니다.



액션 피규어계의 성모마리아

누가 빨리 바티칸 교황청에
연락해라! 끝내주는 성모마리아상을
발견했다고 말이다.

→ 신앙심과 오덕심의 하이브리드 작품으로 당신의 선반을 채워 천국행 티켓을 위한 포인트를 쌓는 게 어떨까. 프랑스 아티스트 소아시그 샤페아르는 낱아 빠진 성모마리아상을 모아가다 슈퍼 마리오, 마이 리틀 포니 그리고 바이오맨 등의 팝아트 아이콘들을 접목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비싸게는 800만 원에 이르는 이 조각상들은 '사랑, 광고, 소비 그리고 모성애'를 대변한다. 하여튼 우리 눈엔, 피규어 수집광 덕후와 성모마리아의 공통점이 보인다. '순결'의 대명사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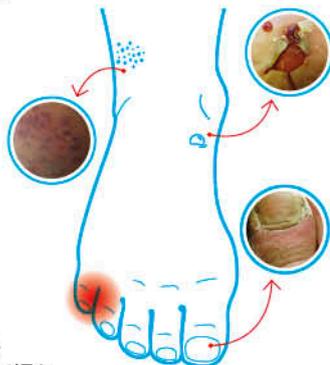
SOMEBODY HELP ME!!!!!!!

당해봐야 알간?

새끼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봐야
동상이 무서운 줄 알겠지.



사육사 양반
보일러 좀 놓아주소.



동상이란?

피부 세포가 얼어붙어서
죽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증상

1. 아프고 까끌까끌한 느낌
2. 감각이 둔해지거나 전혀 없는 느낌
3. 피부 표면의 변색 혹은 퇴색
4. 타는 듯한 느낌

새끼발가락은 어차피 쓸모없으니

상관없다?

당신 몸에서 가장 애교 넘치는 부위다.
포기하지 말자.

처치법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동상에 걸린 곳을 미온수에 담근다.
뜨거운 물 말고 가렵다고 환부를
비비거나 긁어댔다면 증상이 악화된다.

아이스크림이나 금속에 혀 또는 살이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역지로 떼어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런 빌어먹을 경우엔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며 살살 떼어내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겨울에
양철 소변기를 이용하다가 고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UFC 데뷔 강경호

UFC 데뷔 임현규

UFC 8승 도전 김동현

코리안파이터 3인 동시출전

UFC *in JAPAN*

3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

SUPER ACTION 독점 생중계



박스프

김면발

여대생이 사랑한 라면

비가 김태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군인 정신 때문이 아니다. 그녀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여대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을 위해, 그녀들이 사랑하는 라면을 알아봤다(여대생 50명 대상).



임승혜/22세/비서학과

1위 농심 신라면(22%)

김면발: 비서학과라고 들었다. 볼테안경 검은 정장 하악!
임승혜: ?
김면발: 미안하다. 간호사와 더불어 양대 판타지인지라 잠시 흥분했다. 신라면의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
임승혜: 코끝을 자극하는 신라면 특유의 매콤한 향을 좋아한다. 술 마신 다음 날, 콩나물이랑 고춧가루를 짹 짹 넣어 끓이면 이만한 해장도 없더라.
김면발: 나도 맵고 칼칼한 남자다. 혹시 아르바이트로 내 비서 해볼 생각 없는가? 최하하.



배수진/22세/사회학과

2위 농심 오징어 짬뽕(14%)

박스프: 오징어 짬뽕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배수진: 진짜 짬뽕은 아니지만, 짬뽕을 급하게 먹고 싶을 때 즐겨 먹는다. 건더기 스프에 콩알만큼 들어 있는 오징어 조각도 씹다 보면 맛있다.
박스프: 짬뽕을 먹고 싶으면 짬뽕을 먹어야지 왜 오징어 짬뽕을 먹는가? 그렇게 쉽게 사는 거 아니다. 본인만의 매력 포인트는 뭔가?
배수진: 몰래? 남자친구가 나보고 보면 볼수록 매력 있다고 하더라.
박스프: 확실히 단번에 호감을 살 만한 상은 아니다. 남자친구가 인내심이 좋은 것 같다.



박세희/21세/미용학과

3위 농심 육개장 사발면(10%)

김면발: 육개장 사발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박세희: 우선 국물이 얼큰하다. 오랫동안 먹어서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면발이 가늘어서 부담스럽지 않다.
김면발: 난 두꺼운 면발을 좋아하지만 세상에서 육개장이 제일 좋다. 우린 참 닮은 점이 많은 것 같다. 남자친구 있는가?
박세희: 있다.
김면발: 사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다. 얇은 면발이라니? 빌어먹을.
박세희: 어휴 이 병신.



노현아/22세/사회학과

4위 팔도 비빔면(6%)

박스프: 팔도 비빔면의 어디가 좋은 것인가?
노현아: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양념장이 입맛을 돋운다.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다. 여름에 오이랑 얼음 넣어 먹으면 정말 좋다.
박스프: 지금 영하 7도다. 혹시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나?
노현아: ?
박스프: 뭔가 비빔면 같은 여자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나?
노현아: 어휴 이 병신.

P.S. 추운 날씨 속 이곳은 인터뷰에도 시간을 허락해준 이 시대의 여대생들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공식 수입원 : 성원 02-3445-4603

직영매장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77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4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82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7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69

지정 판매처

친절사(종로) 02-745-0333 글로벌타워(남대문) 02-778-1590
엘가(대구) 053-255-6940 카시오피아(부평) 032-502-7138

MOSCHINO
CHEAPANDCHIC



이 포르노는 절대 안 들켜! BEST 7

이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친 앞에서 자신있게 꺼내 보라!



↓
SEW PORN
(Safe for Work Porn)
직장에서 봐도 안전한 포르노라는 뜻으로, 실제 포르노 이미지를 웃기게 덧칠하거나 합성한 사진들을 모아놓은 유머 사이트 이름이다.
pornsw.com

Best!
우리 우정처럼 진하게! 뿌앙!
아무리 친해도 친구들 앞에서 방귀는 절대 안 쐬는 게 여자다. 하지만 진짜 친하다면 방귀에 불붙이기도, 함께 화장실에 가는 것도 심지어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도 할 거야.



뱀장수의 세일즈 기술
"어머, 뱀소주 만든다더니 이렇게나 굵고 좋은 놈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보물찾기는 어려워
"아! 이걸 보물 위치가 아니라 누가 짤 흘린 자국이네! 할랄!"



알고나캐뮤브미! 휘기휘기!
"음악만이 나의 길, 나의 삶. 디스 이스 마 리입, 마 뮤직"



유단자 그녀의 발차기
"통나무 차기만 10년째. 사부님, 하산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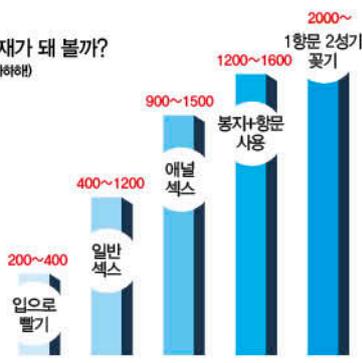
게임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이게 요즘 잘나가는 조이스틱인데, 이렇게 만지면 진동도 된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급해요!
"두 분이 나와주셔서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 했어요. 이 물난리 좀 보세요!"

포르노 배우의 월급봉투

창조적인 체위로 세계를 주름잡는 인재가 돼 볼까?
(MAXIMI도 이렇게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는구먼, 하하하)



Sexy Bonus!

+ 특이한 페티시를 해야 하는 경우 여성 배우는 15%의 급여를 추가로 받는다.
+ 남자 배우의 장면당 몸값은 \$100~400다. 단, 게이 포르노에서는 더 비싼 몸값을 받을 수 있다. 하여튼 후정은 더 비싼 거야, 알겠냐?

포르노에 관한 각국의 웃긴 법

웃프다.



- 스웨덴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나이 구분 없이 모든 포르노가 불법이다.
- 북한에서는 포르노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사형당할 수 있다.
- 중국에서는 포르노 시청이 적발될 경우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다.
- 브라질에서 모든 포르노 배우는 콘돔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프랑스에서는 포르노에 33%의 특별세를 부과한다.
- 호주에서는 A컵 사이즈의 작은 가슴을 가진 여자는 포르노에 나올 수 없다. 여성의 사정 역시 검열 대상이다.

푸하하! 포르노 황당 사건

청년들이여 세상은 넓고 포르노는 많다.

포르노를, 아니 풍악을 울려라
포함의 H아트홀에서 오페라 공연을 앞두고 1~2분간 포르노를 상영한 사건이 있었다. 공연을 기다리던 자른 동반 관객은 이에 대해 항의했고 담당자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중국인의 흥의인간 정신

지난해 6월, 중국 도심 거리 전광판에서 아이오이 소리의 포르노 영화가 20분간 상영됐다. 야근하던 전광판 담당자가 포르노를 보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흥의인간 정신을 발휘한 사건.

만능 고양이 인커밍

미국 플로리다에서 2009년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된 남자가 이렇게 변명했다. "애완 고양이가 키보드 앞에서 앉아 있기에 자세히 보니 야동을 받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고양이의 인커밍 폴더엔 포르노 사진 1천 장이 넘게 있었다. 그 고양이가 얼마요?

궁금해?



성공률
100%
연애비법

스캔하고
예매권 받자!



실전연애코미디

남자사용설명서



이시영 ♥ 오정세

2013년 2월, 전격 공개!

24 Hours to Live



Joosuc

힙합 고급반 주석의 요단강을 향한 독주



어떻게 죽을지 결정했나?

공연 중에 스테이지에서 다이빙하다가 죽겠다. 관객 중 한 명이랑 머리를 박고 죽든 그대로 바닥에 처박히든.

죽기 전, 24시간이 주어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FC바르셀로나 팬이다. 누 캠프 (FC바르셀로나 홈구장)에 난입해서 메시에게 헤드록을 걸 거다. 전 세계적으로 미친놈이라고 낙인찍히겠지만 축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장면이 될 거다. 사진이라도 찍히면 내 무덤 앞에 놓아달라.

고맙다. 나는 레알 팬이다. 당신의 래핑 스타일을 축구 선수에 비유하자면 누구에 가까운가?

호날두처럼 동작이 화려하거나 기교를 부리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 수 두 수 내다보면서 플레이하는 선수가 멋있다. 내 가사도 마찬가지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려하진 않더라도 두 번, 세 번 음미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하게 만드는 게 좋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여자는?

영영이가 크고 튼튼해 보이는 브라질 여자를 만나서 씨를 뿌리겠다. 그렇게 태어난 주석 주니어 중 누군가는 국가 대표 축구 선수가 되어 한국 축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서양 여자는 정서에 안 맞는다. 몸에 있는 털이 금색이더라고... 하지만 2세를 위해서라면!

섹스에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인다.

뭐 그쪽으로는 워낙 칭찬을 많이 들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랩을 만든다면?

이 바닥에도 걸과 속이 다른데 가식적인 언론플레이로 잘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걸 가사로 쓰겠다. 가사에 실명도 다 까발리고, 싫어서

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세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걸 랩으로 만들어서 무대에서 부르다가 다이빙하고 죽으면 되겠다.

'정상을 향한 독주'가 나오고 12년이 지났다. 돌아봤을 때 당신의 정상은 어디였나?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정점을 찍었지. 기획사에서 활동하던 동료 뮤지션들이 전국구로 커지는 모습을 보고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앨범을 못 내면서 시기와 흐름을 많이 놓쳤다. 올해는 레이블을 새로 만들었고 멋진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다. 2013년은 다시 정상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그동안 꼬박꼬박 돈이 꽤나 있었군. 어마어마한 벤츠를 몰고 다닌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그때 내 나이 스물다섯이었는데 그 정도면 많이 벌었지. 근데 벤츠는 아니다. 내 차는 10년 전 처음 산 쏘렌토다. 튜닝을 했는데 벤츠 ML 시리즈랑 닮았다고 보배드림에서 유명했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싶은 차가 있다면?

빠른 스포츠카는 안 좋아한다. 무섭다. 차라리 운전기사 딸린 롤스로이스를 타겠다.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의외의 인맥이 있을까?

축구 선수 이천수. 요즘 둘이 만나서 농구를 한다. 상대편 팀에서도 매번 놀라더라. 이천수 선수가 왜 여기서 농구를 하고 있느냐고...

요비명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나?

지금까지 나온 앨범명과 앨범 연도를 새기겠다. 아,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쓰겠다. "아들아, 꼭 축구 선수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나시오." 🙏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octor.co.kr

HOWTO

Office Life Tip

#2. 상사 길들이는 법

밀당이 필요한 건
연애만이 아니다.



사진: 김희상/ARTISTPHOTOGRAPHY, ARC STUDIO MODEL 2012, MISS MAXIM 우승자 단영 LN011 서은정 (00)FERRARI&S 프페(02-6907-8888), 슈즈원(02-3443-1709)

자연스레 화식 빠지는 법

1. 저녁에 데이트가 있는데 일 끝나고 화식을 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즉시 업무와 관련한 고민을 털어놔라. 상사가 "퇴근 후 술 한잔 하자"라고 말을 꺼낸 후에는 어떤 핑계를 대도 찍힌다. 상사의 기분은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니까.
2. 상사가 해결책을 알려주면 "역시 우리 팀장님", "우리 회사는 팀장님 없이 안 돌아간다"라며 칭찬하라. 칭찬은 상사도 참추게 한다.

3. 다음 멘트가 진짜 중요하다. "팀장님 아니었으면 오늘 밤을 야근으로 하얏게 불태울 뻔했는데 덕분에 9시에는 퇴근할 수 있겠네요"류의 '나 오늘 야근함을 알리는 멘트를 스리슬쩍 날린다. 일 때문에 야근해야 한다는 부하 직원을 데리고 억지로 술을 마시러 갈 상사는 거의 없다(간혹 있을 수도 있다는 말).

BAD CHOICE "갑자기 아프다", "병원 예약을 깜빡 잊고 있었다", "친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

할머니가 사경을 헤매신다", "우리 집 고양이 아프다" 등의 모든 핑계

보고 잘하는 법

1. 도저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업무는 붙잡고 있지 말고 상사에게 물어보는 게 백만 번 낫다. 상의하기 전에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향을 세 가지 정도 생각해놓을 것.
2. "OO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라는



상사 골탕 먹이는 법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기관에서 '상사에게 하는 소심한 복수'에 대해 직장인 2만 5,728명에게 물어본 결과 '연락 무시하기'(23%)가 1위, '인사 안 하기'(18%)가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은근슬쩍 반말하기'(8%), '회식 때 바가지 씹우기'(7%), '중요한 말 전달 안 하기'(6%), '음식에 더러운 짓 하기'(6%), '술 마시고 짜장 피우기'(5%)가 있었다. 어쩐지 커피가 조금 끈적거리더라...

업무적이고 딱딱한 표현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께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라는 식의 상사에게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자세로 접근하라. 부하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우러러보고 있다는 생각이 우쭐해할 거다.

3. 상사를 찾아가 당신이 생각한 문제 해결 방향 중 어떤 걸 택하는 게 가장 나을지 물어본다. 상사에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바쁜 상사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빠른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아주 깊이 고민했다는 걸 티내기 위함이다.

4. 가장 중요한 건 상사의 조언이 끝난 후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거다. 상사도 사람이다. 이제 당신의 상사는 완벽히 조리당했다!

BAD CHOICE 무작정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줘야 하느냐며 당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다.

언더웨어 세트 르페 구두 슈즈원

내네 회사에 이런 여직원 있어?



How To Taekkyon

택견으로 성가신 초딩 혼내주기

어릴 때 배웠으면 태권도 품씨 있는 새끼한테 안 좋았을 텐데.

택견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전통 무술. 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무예로, 현대에 와서는 택견의 아버지로 불리는 현암 송덕기 선생에게서 전수했다. 흔히 "이크 에크"라는 기합 소리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지만, 물 흐르듯 넘실대는 유연함(柔)에서 무(武)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술이다.

● 태권도와 같은 9단 등급 체계. 복장으로 단수를 가늠할 수 있다.



1 활갯짓

양손을 겹치지 않게 번갈아 가며 안에서 바깥쪽 45° 대각선 방향으로 돌린다. 공방 양면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손동작이며, 충주 지역에서는 품밧기와 함께 필수 동작으로 취급되지만, 대한택견협회에서는 정형화한 동작보다는 자연스러운 활갯짓을 추구한다.

2 향정치기

경기용 공식 기술이 아닌 옛법, 향정이라고 하는 목덜미 뒷부분을 손으로 가격해 상대를 기절시키는 기술이다. 송덕기 옹은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해 목 뒷덜미를 가격한다고 했으며 딱히 정해진 동작이 있는 기술은 아니다.



3 엉덩걸이

상대의 머리를 팔로 감춘 후 상대의 복부를 엉덩이에 걸쳐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 넘기는 기술. 결련택견협회에서 인정하는 걸이 기술로, 씨름과 유도, 씨름과 유도의 업어치기와 맥을 같이한다. 매년 인사동에서 열리는 '택견 배틀'에서 빈번히 사용한다.

4 품밧기

택견의 스탠스 가장 기초가 되는 스태프이다. 선발을 내딛고 골반을 내민 뒤 다시 골반을 끌어당기며 발을 들어 올리고 제자리에 둔다. 이것을 좌우 발로 반복하는 동작이다. 택견의 힘은 이 기본 스태프인 품밧기로부터 파생되는 공격에서 비롯된다.

*결련택견협회: 마을단 단체인 택견 거꾸기를 하던 '결련'을 중시하는 택견 협회 갈래 중 하나. 90년대 중반부터 '송덕기 옹 추모대회'라는 택견 대회를 열어 왔으며, 인사동의 명물 '택견배틀'을 매년 개최하는 단체로 알려졌다.



동작구
택견본부 전수관
문영철 관장

관장에게 직접 묻는다! 택견Q&A

Q. 택견에 승덕기 옹이 김추어 농은 살상 기술이 있다고 들었다. 흔히 말하는 '옛법'을 얘기하는 것 같다. 원리는 단순하다. '안경샘이(눈 찌르는 기술)나 '향정치기(목 치는 기술)' 등 손쉽게 상대를 제압하는 실전 기술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상 기술'이라는 교언으로 환심을 사지 않는다.



현암 송덕기 (1893~1987) 조선의 마지막 택견꾼으로 중요무형문화재 76호 택견의 초대 예능보유자이다. 혼한 무술가들과는 달리 다른 무술을 접하지 않은 채 택견만을 고수해 온 외길 명인. 90세에 이르러서 두발(상)흔히 말하는 날아차기를 구사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났다.

Q. 택견 시합만큼 재미있는 무술 시합도 없던데, 짜고 한다는 얘기가 있다. 짜고 치는 대련도 있으나, '택견 배틀' 같은 시합은 실전이다. 테크닉이 화려해 그런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각각의 기술을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스포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Q. 태권도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다. 두 무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태권도는 대부분 타격계 기술로, 상대와 본인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지만 택견은 절대적으로 '비살상'을 염두에 둔 무술이기에 상대가 다치지 않도록 '밀어내는' 기술이 대부분이다.

Q. 관장 희식 모임이라도 있나? 택견이 워낙에 늦게 열광이 분 무예라, 아직 서울 내에 도장이 열 개밖에 없다. 따라서 관장들끼리는 꽤 자주 만나서 실제로 희식도 하고 모임도 갖는다.

간수 문영철
택견 5단(20기 택견 지도자)
1회 KBS SKY 택견명인 특집(2005)
9회 KBS N 택견명인 특집(2006)
현 선임 국가대표 택견 시범단 행수(코치)
현 동작구 본부 전수관장
현 서울시 택견연맹 전무이사

Chungmu Art Hall, OD Musical Company
present



뮤지컬

브루클린

BKLYN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노래를 들어봐!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2012년 12월 4일 ~ 2013년 2월 24일

스캔하고
티켓받자



주최  충무아트홀 | 기획·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 주관 오픈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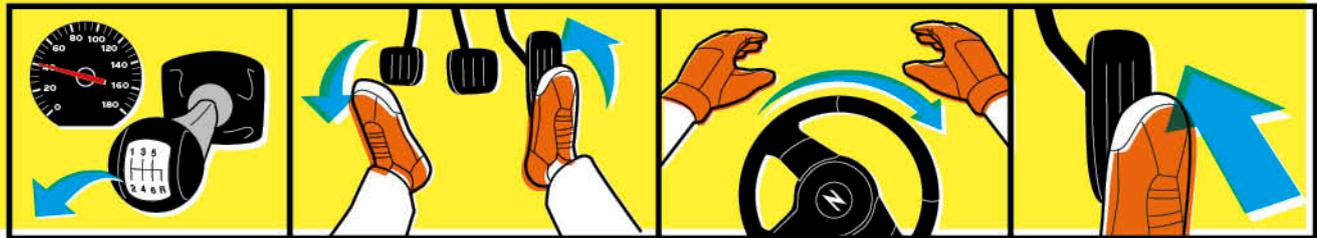
문의 명당찾기 2230-6601 오픈리뷰 1588-5212 | 이메일 명당찾기 | 오픈리뷰 | 인터파크 | 옥션 | 11번가 | yes24 | 클립서비스

How To



프로처럼 드리프트 하는 법

혹시 당신 '커브길'을 '코너'라고 부르나? (이니셜 D)에나 나올 법한 고갯길 드리프트를 꿈꾸는 드라이브광이로군. 오늘은 2009년 포뮬러 드리프트 우승자 크리스 포스버그에게서 드리프트하는 법을 배워보자.



*주의: 니 목숨은 니 거야. 우리가 책임 안 진다.
알아서 주의하도록.

" 일단 당신 차가 후륜구동인지 확인해라. 진정한 드리프트는 후륜구동에서만 가능하다. 전륜구동으로도 비슷한 모양을 내는 녀석이 있지만 그걸 드리프트라고 부르긴 좀 뭣하다. 스틱 기어와 좋은 타이어도 필요하다. 그래야 차의 반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절대 공용 도로에서 하면 안 된다. 당연히 애기지만 연습이 가능한 레이스트랙에서만 해볼 것을 당부한다. 아, 그리고 당신과 달리 프로 드리프트 드라이버는 두 바퀴를 돌 때마다 타이어를 건다. 거친 아스팔트면 위에서 바퀴가 160km/h로 헛돌아버리니까 한 바퀴 돌고 나면 타이어가 대머리처럼 닳는다. 아, 녹아버린다고 해야 하나?"

1 "예를 들어 왼쪽으로 7자로 꺾인 코너라고 치자. 2단으로 달릴 거면 대략 64km/h가 적당하다(참고로 프로 드리프트 드라이버는 거의 160km/h를 찍는다). 동시에 당신의 오른발을 가속페달에, 왼발을 클러치에 가져가도록." 그리고 코너가 가까워지면 도로의 오른쪽에 붙어서 달려야 왼쪽으로 꺾었을 때 차체가 돌 공간이 나온다. 코너에 진입한다고 풀어서 속도를 줄이면 안 되겠지?"

3 "뒷바퀴에 전달되던 구동력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급격하게 돌기하면서 접지력을 잃고 헛돌기 시작한다. 아까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서 접지력을 잃었으니까 차체는 왼쪽으로 45도쯤 돌아간 상태에서 곡선으로 미끄러지면서 좌회전하는 거지. 드리프트가 시작되면 즉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꺾는다. 그러곤 앞바퀴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딱 잡은 채로 코너를 다 통과할 때까지 가속페달을 힘껏 밟고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차체는 드리프트로 좌회전하는데, 미끄러지는 동안 앞바퀴는 오른쪽으로 꺾어 있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되면 드리프트 영상을 한번 보라. 드리프트하는 동안 앞바퀴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보란 말이지.

2 "코너에 진입하면 운전대를 왼쪽으로 급격히 꺾으면서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는데, 그 순간 클러치를 한 번 딱 차면 된다(거의 발로 차듯이 빨리 밟았다 떼라고). 이 세 가지가 거의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자동차 구동계에 충격이 전해진다." 한참 돌고 있는 바퀴에 전달되던 엔진 구동력이 순간적으로 차단되었다가 강제로 다시 연결되기 때문이다.

4 "드리프트란 엔진의 고회전을 유지한 채 핸들링 과 클러치만으로 차체를 원하는 코스로 돌게 만드는 거다." 즉 드리프트의 핵심은 '감속하지 않는 코너링'으로, 코너를 탈출했을 때에도 여전히 높은 가속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물리학적으로 차체를 감속하지 않으면 코너링이 어려운데 드리프트는 '감속하지 않으면서 감속하는' 방법이다. 모순 아니냐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게 아니라 바퀴를 헛돌게 만들어 감속하는 거다. 방금 드리프트 하는 동안 거의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 적이 없지? "코너의 출구에 다다르면 스로틀을 열고 운전대를 풀면 차가 도로와 일직선이 된다. 자, 어서 달려가 새 타이어로 갈아 신자!" 한국타이어의 스폰을 받고 있는 포스버그가 말했다.





그가 그녀를
잡을 수 없는 이유는...



Comment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우주선 타고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4집 앨범



→ 소녀시대는 정규 4집 컴백에 앞서 '댄싱퀸'을 성공했다. '댄싱퀸' 뮤직비디오에서 2013년의 소녀시대는 MP3 플레이어로 5년 전 곡을 재생하면서 2008년으로 타임리프한다. 명품가방보다 컬러 스킨이 잘 어울리던 그녀들이 옛된 모습과, 단체로 추는 '고양이 춤'은 색시하기 보다는 사랑스럽다. '댄싱퀸'에 얽힌 사연은 컴백 쇼 <소녀시대의 로맨틱 판타지>에서 공개됐는데, 2008년 미니 앨범 1집 앨범의 타이틀곡은 사실 'Gee'가 아니라 이 곡이었다는 것. 그러나

뮤직비디오까지 찍어놓은 상태에서 모든 게 무산됐고, 소녀시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차선책인 'Gee'를 선택해야 했다. 그 후 'Gee'로 9주 연속 1위, 연말결산 1위로 대박을 치며 걸그룹 최종보스 자리에 오르게 된 소녀시대. 만약 그때 예정대로 'Gee'가 아닌 '댄싱퀸'을 불렀대도 지금의 끝판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이어 공개된 타이틀곡은 'I Got A Boy'다. '더 보이즈' 이후 15개월만의 컴백이었다. 그 사이 소녀시대는 '전 세계가 우릴 주목하는', '위풍도 당당한' 케이팝스타가 되었으니 좀 더

진일보한 음악적 시도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했던 일. 투경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더 난해하다. 다비치의 '8282'처럼 한두 번 템포만 바뀌고 끝나는 게 아니다. 곡은 후렴구 A(오 오오에 오)와 후렴구 B(I got a boy 멋진)이 교차되다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진 후렴구 A+B로 마무리되고, 중간 중간에는 곡 전환을 알리는 어색한 랩이 양념처럼 뿌려져있다. 심지어 가사 콘셉트는 '여자들의 수다'다. 화자가 한 두 명이 아니라 이야기, 공동여서 만든 곡임에는 분명하지만 몇 번 듣고 나면 진이 빠진다.

해외의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다. LA Times는 "팝 음악의 나아갈 길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기분 좋게 혼돈스러운 곡"이라고 평했고, 빌보드는 "가장 진보적이고 세련된 팝"이라며 극찬했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반응은 '산만하다' vs.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로 뚜렷하게 엇갈린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분명한 건 소녀시대는 더 이상 '어리다고 놀리지 말라'며 양탈부리던 어린 여자애들이 아니라 자의든 타의든 필연적으로 성숙해져야만 하는 케이팝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다. ☞

BY 송인나 LAOUT 서울경



곡별로 가장 주목받은 멤버는? 그레 멤버가 9명인데 나눠 먹고 살아야지.

1. '다시 만난 세계'의 윤아&티파니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청순한 외모로 뼈가 부서져라 춤을 추는 윤아와 살살치는

눈웃음이 매력적인 단발머리 티파니가 투블이었다. 이 둘은 당시 방송3사의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순회하며 소녀시대의 인지도를 알린 개국공신.

2. 'Gee'의 제시카



'소녀시대=각선미'의 공식이 시작된 지점. 폭풍 다이어트에 성공한 제시카가 최대 수혜자였다. 그 후

〈무한도전〉에서 박명수와 함께 부른 '냉면'으로 마냥 도도하게만 보이던 이미지에 허당 느낌을 추가하며 덕들을 양산했다.

3. '소원을 말해봐'의 서현&유리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유혹하는 제복입은 여자들라니 확실히 수컷의 리비도를 건드리는

콘셉트였다. 짧은 핫팬츠 의상으로 팀내 최장신 서현의 각선미가 빛을 발했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탄탄한 허벅지로 제기차기 춤을 선보인 유리는 많은 연상남에게 환호를 받았다.

4. 'I Got A Boy'의 써니



걸스 힙합과 뮤지컬이 혼재된 아스트랄한 이번 앨범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써니.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해 보이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혼자만 '정말 힙합하는 미국의 10대 소녀' 같은 싱크로율을 보여준다. 지금껏 감춰져있던 볼륨감있는 몸매가 드러나면서 '습규의 재발견'이라는 말도 생겼다.

컴백소
개인 무대
감상하기



끝장난 예능 프로그램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예능 레전드
복습하기



MBC <놀러와>

고정 멤버들이 장기 프로젝트를 펼치는 <무한도전>이나 시청자 사연 위주의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와 달리 공감 토크쇼를 표방한 <놀러와>는 게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놀러와>는 '세시봉 특집 (송창식·윤형주·김세한·조영남 출연)', '신의 목소리 특집(성우들 출연)', '울엄마 특집(김수미·나문희·김영옥 출연)' 등 탁월한 기획력으로 김태희급 톱스타를 섭외하지 않아도 시청률 대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허겁지겁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대로 잠들기에는 어쩔지 억울한 월요일 밤, 우리는 TV를 틀었고 그러면 어김없이 <놀러와>가 있었다. 그렇게 8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어느 날 갑자기 쇼는 끝나버렸고 시청자는 당황했다. 조감지쳐 버리고 새파랗게 젊은 년에게 환승한 막장 드라마 남자 주인공을 보듯 MBC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KBS <승승장구>

어리바리한 '나뎀이형' 김승우와 이빨 프로 9단 탁재훈&이수근의 조합이 신선했다. <승승장구>는 최근까지 <강심장>과 벌인 시청률 1위 경쟁에서 승리한 적이 더 많으니 패자 소식이 갑작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 <승승장구>의 바통을 이어받을 프로그램은 강호동의 KBS 복귀작 <달빛 프린스>(가제)란다. 유재석에게 예능이 '놀이'라면 강호동에게 예능은 '전쟁터'다. '악자 vs. 강자', '파워', '카리스마'로 대변되는 강호동식 '빡센' 예능 프로그램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은 그런 이유로 <강심장>을 피해 <승승장구>로 환승했건만 이마저 없애버린다니... 아파트 재개발로 갈 곳을 잃어버린 쪽방 주인이 된 심정이다. 이제 화요일 밤 11시에는 MBC <백분토론> 보며서 교양이나 쌓는 사람 많겠다.



SBS <강심장>

연예인들이 떴거지로 등장해 눈물짐 쥐어짜기 퍼포먼스를 시전하는 통에 '눈물심장'으로 불린 <강심장>은 최근 계속해서 시청률이 곤두박질쳤다. 10년 전 (야심만만)으로 시작한 SBS표 '영혼 없는 토크쇼'에 시청자도 슬슬 지겨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 전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던 제작진의 마음은 알겠으나, 결국 남은 건 시청력 부족, 유머 강박증, 억지 감동의 소리 콧물뿐이다. 이쯤이면 <강심장> 폐지설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러나 SBS 측에서는 "〈강심장〉의 브랜드를 지키겠다"며 "〈강심장 2〉라는 이름으로 기존 포맷을 유지한 채 일부 MC만 교체하기로 했다"고 폐지설을 일축했다. <강심장에 사랑걸렸네>, <강심장 오락판>으로 이름 바꾸고 장수 프로그램 대열에 끼는 건 어때?

I will Survive!



<무한도전>

24주간의 결방으로 장기 프로젝트는 없었지만 '못.친.소. 페스티벌', '빅명수의 어떤가요' 등의 소소한 에피소드가 좋았다. 멤버끼리 공방대는 걸로 재미를 주던 과거의 '이산 특집', '정신 감정 특집' 등을 떠올리게 해 원조 무도패들을 다시 한 번 결집하는 원동력이 됐다.

추천 회차: 311회 빅명수의 '어떤가요 2'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예능 프로그램의 대세가 힐링이 되어버린 시점에서 아직까지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더부살이 시절의 흥그리 정신을 잃지 않은 그들. 죽은 김구라 고추 만지듯 여전한 '독살'이 포인트다. 최근에는 밴의 헤라리 마련한 '밴머리 특집'에서 민머리 4인방의 탈모 고민을 웃음으로 승화해 전국의 백만 탈모인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추천 회차: 309회 '민머리 4인방 특집'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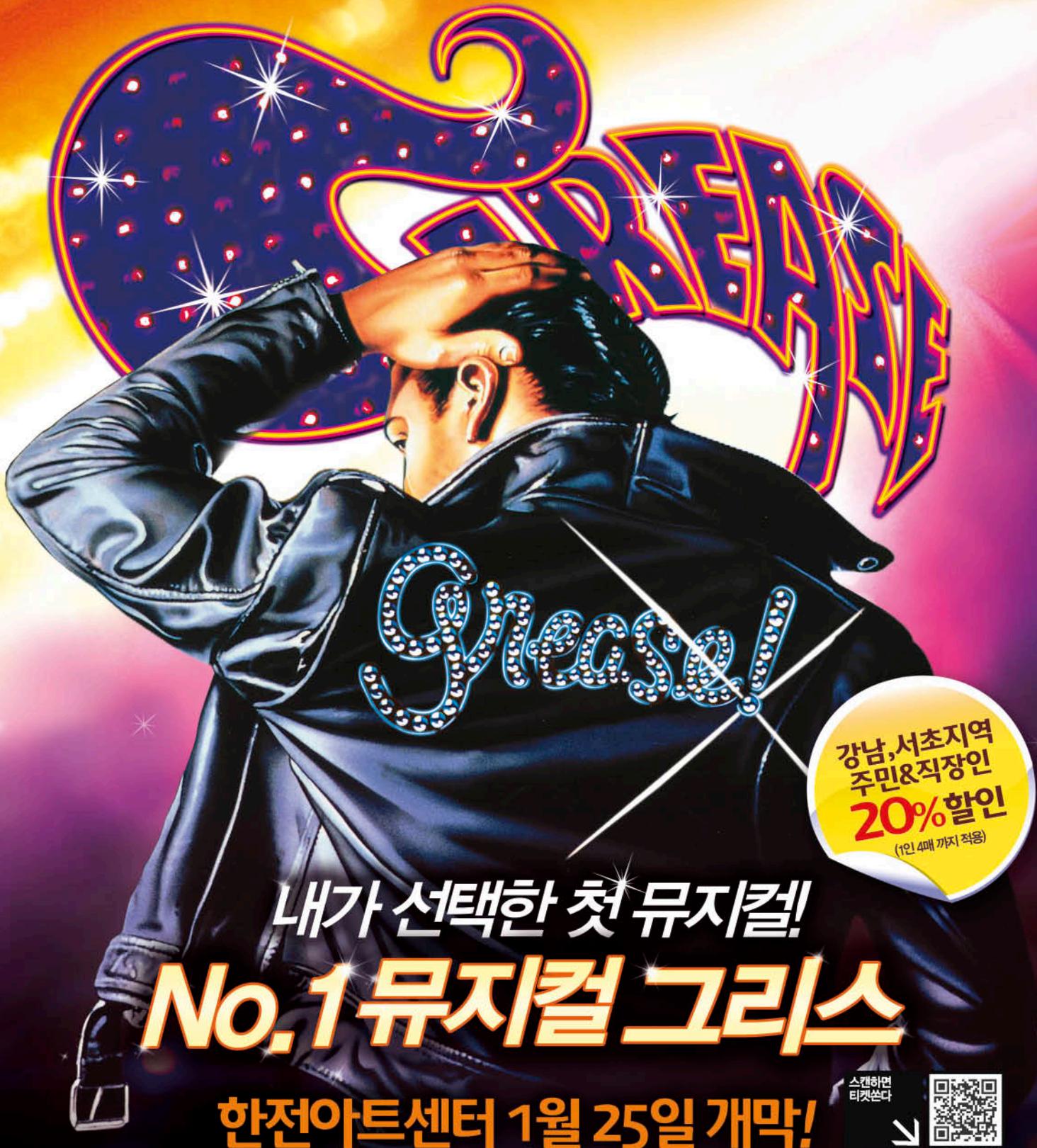
'처제에게 뽀뽀해달라'는 남편, '삼시 세끼 훑어 먹는 아내' 같은 버라이어티한 사연을 듣고 싶노라면 사랑 여기가 코리안티 화성인지 헷갈릴 지경. 순위는 <화성인 바이러스>인데 그걸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의 톤으로 따뜻하게 전달하려는 제작진의 노고 덕에 '슈퍼파워 게스트텔' SBS <힐링캠프>를 제치고 월요 예능 1위를 차지했다.

추천 회차: 105회 '이국적인 외모의 경주 최씨 사생공파 30대손 편'

OD MUSICAL COMPANY, CJ E&M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한국 뮤지컬 10년의 신화



강남, 서초지역
주민&직장인
20% 할인
(1인 4매 까지 적용)

내가 선택한 첫 뮤지컬!
No.1 뮤지컬 그리스

한전아트센터 1월 25일 개막!

스캔하면
티켓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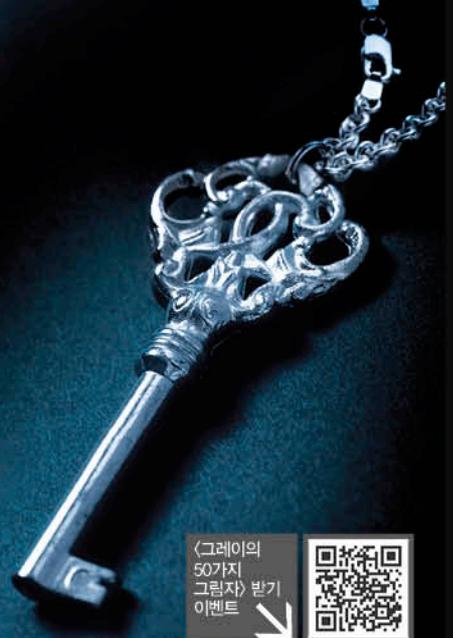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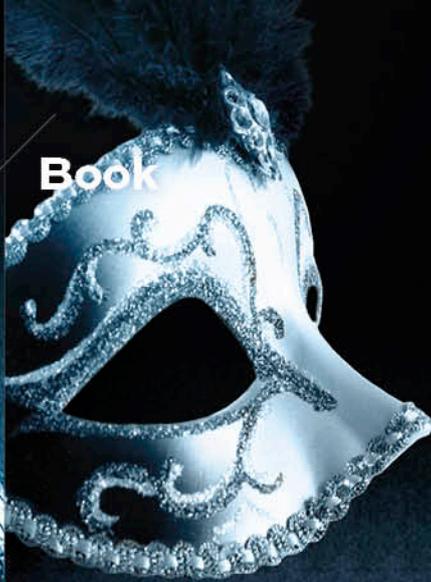


|예매| 오픈리뷰 1588-5212 인터파크 1544-1555 옥션 1566-1369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인터파크 1544-1555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Loun.G |후원| KIBO 기술보증기금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19세 미만 구독 불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받기 이벤트



〈그레이〉 잡학 상식

—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소설 〈트와일라잇〉에 김명빈은 평범한 주부가 인터넷에 연재하던 〈트와일라잇〉의 성인 버전 소설이다.



— 라스베이거스의 한 도서관에서는 이 소설을 무려 235권이나 비치했지만 대출 대기자가 800명에 이른다.

—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쓴 작가 E.L. 제임스는 이 책의 성공 덕에 우리 돈으로 매주 12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 수입은 소설 속 청년 부호 그레이보다 많다.

— 이 소설을 읽고 자극받은 한 영국 여성이 야한 속옷도 새로 사고 남편에게 소설 속 주인공처럼 섹스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야한 소설을 따라한다"며 거절당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급서로 지정해야 하나...

→ 아동에도 법칙이 있다.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평범하거나 평균보다 못생긴 남자가 등장한다. 대머리거나 배가 나온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 멋진 남자가 몸매, 얼굴 모두 여신 급인 여자와 폭풍 섹스를 한다. 여자는 매우 카와이하거나, 가슴이 상당히 크거나, 엉덩이가 탱글탱글하다. 게다가 예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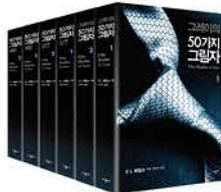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요즘 세상 여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이다. 책 표지에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라는 빨간 딱지가 정면에 붙어 있고 '엄마들의 포르노', '여성용 아동'으로 불리기도 하니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겠지. 초딩들에게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고 당신에게 아이다 유아나 아이 소리 있다면, 여자들에게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있다...고 하면 좀 감이 오려나?

이 소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1세 여대생 아나스타샤 스틸이 27세 청년 부호 크리스천 그레이와 뜨거운 사랑을 한다' 정도가 될 것 같다. 그 뜨거운 사랑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SM 플레이', 당연히 소설에는 넥타이, 안대, 밧줄 등이 등장한다. 그 덕분에 섹스용품 체인점 베이브랜드는 매출이 30%나 증가했다. 뉴욕의 한 공구점 주인은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간 밧줄을 찾는 여자 손님이 10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 책이 여자들에게 성경처럼 읽히는 이유는 소설

속 성관계 묘사가 정밀(!)하고 SM 플레이에 대한 여자들의 숨은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는 데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인기 요인은 이 책에 남자들의 완손을 바쁘게 하는 인기 아동 법칙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자신의 외모가 평범하거나 별로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주인공이 젊고 잘생긴 데다 돈도 많고 섹스도 잘하는 남자를 만나 폭풍 섹스를 한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여자들을 홀리고도 남는 설정이라는 거다. 여자들이 이 책을 보며 소설 속 여주인공에 빙의해 "YES! YES!"를 외치는 건 당신이 아동을 보는 이유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실 세계에선 그레이 같은 남자가 없다는 사실, 여자들도 안다. 여자들이 원하는 건 그레이의 외모나 돈이 아니라 그레이 같이 섹스하는 남자다. 그레이 같은 남자가 될 수 없다면 그레이처럼 섹스를 해봐라. 그러려면 이 책을 읽어야겠지? 아, 참고로 부드러운 면 소재의 빨랫줄이나 12mm 정도의 나일론 밧줄을 추천한다. 더 얇거나 두꺼우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E.L. 제임스 지음/ 박은서 옮김 시공사, 각 12,000원

예습해 봅시다!

여자들이 야하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바로 이런 거다. (실전 응용 적극 권장)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요?" 나는 속삭였다.

"아니, 지금 당장은 그저 너를 묶고 아무 생각 없이 너를 갖고 싶어. 준비됐어?"

"네."

그 말을 할 때 내 몸의 모든 부분이 동시에 조였다.와,

"좋아, 가자."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더러운 접시를 식탁 위에 그대로 놔둔 채로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이거구나. 이제 하게 되는거야. (p.78)

"착하군. 입을 벌려." 입을?

"더 크게."

아주 부드럽게 그는 구슬을 내 입안에 넣었다.

"윤활유가 좀 필요하거든. 빨아."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p.141)

"치마 마음에 드는데, 아주 짧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다리가 예뻐"

(p.304)

"널 저 침대에 묶을 거야, 아나스타샤. 하지만 먼저 네게 눈가리개를 할 거야."

그는 손에 든 아이팟을 보였다.

"넌 내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 네가 들을 건 내가 너를 위해 연주할 음악이야."

(p.315)

-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2〉 중에서 -



괴수x괴수x괴수

병신 같지만 무서운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괴수물의 혼한 유형 세 가지

공포문학의 대가 러브크래프트는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공포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공포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다"라는 말을 남겼다. 눈물콧물 흘리고 과성을 지르며 대뇌에서 엔도르핀을 쏟아내는 인류의 변태적 유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입증된 사실이었으니, 하물며 표현의 무한 자유가 보장된 만화에서는 어찌하랴. 이번 달엔 수많은 종류의 괴수물 중 가장 뻘한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한다.

사랑 만들기
선생입니다.



1 은폐형
언제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을 자극한다.



● 괴물 만화계의 명작 <기생 생물>은 이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심지어 외계인도 아닌 지구 생물이자, 숙주의 뇌를 장악하면 전신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은폐 능력이 뛰어나다. 알고보니 학교 선생님도 엄마도 전부 괴물이야. 평소엔 양키 육봉같이 물렁하게 생긴 것들이 화가 나면 칼처럼 날카롭게 변해 쇠덩이도 쭈갠다. 게다가 '괴물x숙주=baby 숙주'라는 생물학적 시스템 때문에 실은 괴물인 여친이 임신 공격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2 거대형
압도적인 크기의 차이로 감당할 수조차 없는 적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을 자극한다.



● <진격의 거인>은 2011년 일본에서 '이 만화가 대단하다!' 부문 1위를 차지한 24세의 신인 만화가 이사야마 하지메의 작품이다. 100년 전 갑자기 나타난 거인족에게 당해 멸종 위기에 처한 인간은 커다란 방벽을 쌓는다. 그리고 어느 날 방벽이 무너져 구멍이 나고, 구멍을 보고 정신없이 파고든 거인들은 인간을 가차없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다. 거인의 크기는 15m의 소형(?) 거인부터 50m에 이르는 초대형 거인까지 다양하다. 주인공이 창문을 열고 거대한 얼굴과 마주치는 장면은 가히 압권. "인간이 요기인데?"



3 떼거지형
하나하나 상대하기도 벅찬 상대가 다수 존재한다.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수많은 적군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을 자극한다.



● 도시에 기계 다리를 가진 물고기 '보행어'가 하나둘씩 나타난다는 내용의 만화 <공포의 물고기>. 역시 이토 준지의 작품답게 강력한 뜬금포를 자랑한다. 이 역겨운 개체들은 점차 수백, 수천, 수만 마리로 늘어난 도로를 가득 채우고 거리를 황폐화한다(기계 다리는 훌륭한 공격 수단입니다). 생선이 가득한 장면을 보고 있으면 비린내가 나는 착후(錯嗅) 현상을 느낄 수 있으며, 주방에서 풍기는 해물탕 냄새와 함께한다면 훌륭한 4D 효과를 즐길 수 있다. 이어 밥상에서 구토까지 한다면 그야말로 이토 준지 페스티벌!

니가 왜 죽어?!

예상을 빚나간 만화 속
동심 파괴 사망 사건



진격의 거인 / 앨런 예거

충격 지수 ★★

주인공인 줄만 알았던 예거가 거인의 입속에서 동료를 구출하고 죽는다! 작가는 "애 진짜 죽었어?"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거인의 이빨에 씹혀 그의 팔이 잘리는 묘사를 넣었다.



요술공주 밍키 / 밍키

충격 지수 ★★★★★

마법 도구가 악당의 총에 부서지고 밍키는 차에 치어 죽는다는 결말은 그야말로 센세이션. 이어 스폰서 완구사에서 새 제품 홍보차 방영 재개를 요청했고, 밍키는 꿈에서 깨어났다.

<안셉션> 짝나?



마법소년 마도카 마기카 / 토모에 마미

충격 지수 ★★★★★

귀여운 미소녀들이 등장해 반쯤이 좋았던 <마미마>. 미소녀 마미는 등장부터 나이스 보디로 많은 덕후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고작 3회 출연 후 괴물에게 머리를 돌려 사망. 정말 안 살아나오.



History

급시니스트의
교양 만화



예로부터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화살이나
칼에 맞아죽기 싫어서
몸에 철판떼기를
들었습니다.

플레이트아머의 비극 The Tragedy of plate armour



로마시대의
로리카 갑옷, 체인메일,

동양의 철갑
등등-

그중에서도
갑옷의 궁극체라
학만한 것이
플레이트 아머!

강철
전신갑주!

허리를
뭇 굽히겠어;;



이게 꽤 인체공학적 설계라 의외로 움직임도 괜찮고

무게도 몸 전체에 분산되어
그럭저럭 활동성
있었는데-



여름에는
죽음이야

철판은
고기불파처럼
달궈지고

와, 계란
후라이 된다



더구나
철판을 걸치기
위해 안에
받쳐입는 내피가
오리털 파카
수준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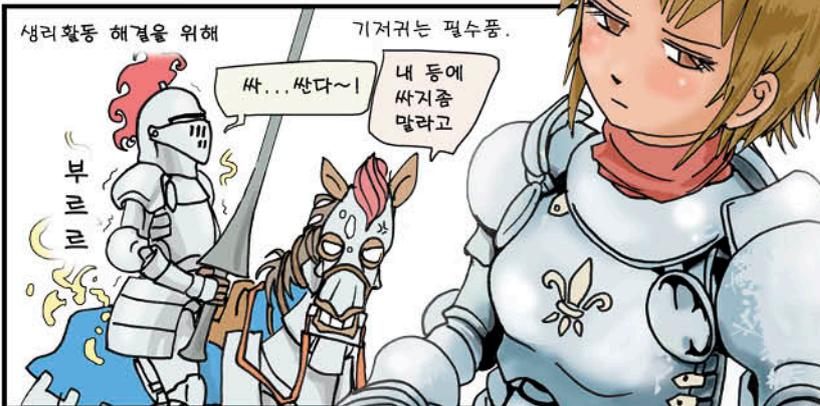
여름에는 도저히
착용불가.

다이어트에
좋아요



그리고 혼자 탈착할 수가 없으니, 일단
아침에 입으면 저녁까지 입고 있어야 하는데-

어우
냄새



생리활동 해결을 위해

기저귀는 필수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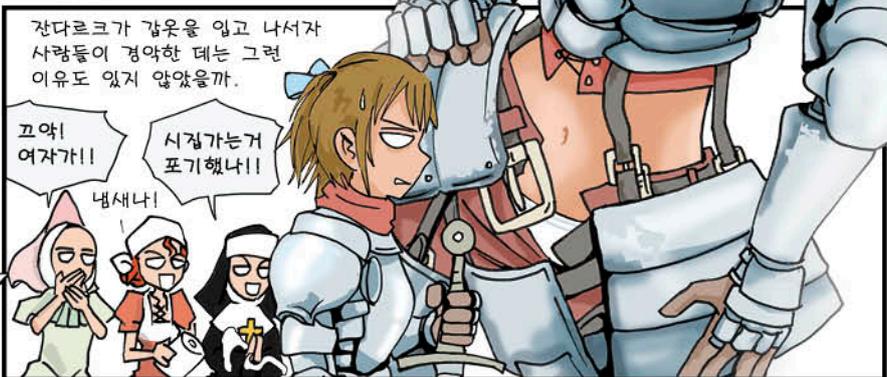
싸...싸다~! 내 등에
싸지중
말라고



큰것도 알팔았다.

으악!
저러 꺼져!!

부지
지직



잔다르크가 갑옷을 입고 나서자
사람들이 경악한 데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으악!
여자가!!

시계가는거
포기했나!!

냄새나!

그러나 스캇 매니아라면 어떨까

안경 벗은 훈남은 초콜릿보다 달콤하다!

세상 남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
밸런타인데이에 대처하는 안경남들의 자세

→ 또다시 남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다. 나를 더욱 작아지게 만드는 날, 바로 밸런타인데이! 솔로로 보낸 크리스마스의 아픈 기억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게 또 무슨 재앙이란 말인가. 2월 14일, 젊음의 거리는 한 손은 애인 손, 또 한 손은 초콜릿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커플로 득실거리며 방방곡곡 핑크빛 로맨스로 가득 차겠지? 하지만 내 눈엔 초콜릿에 중독된 좀비 떼로밖에 보이지 않는단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내 불쌍한 처지를 이해해줘)

말당 스킬로 어장 관리 하던 남자는 썸녀의 초콜릿 고백에 웃을 짓고, 나 같은 남재술로 경력 3년 차는 카카오 99%인 초콜릿보다 쓰디쓴 눈물을 지을 것이야. 하지만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여자 사람이 주는 500원짜리 초콜릿 하나라도 받아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보자고!

우선 여자를 꼬시기 전에 거울을 한 번 쳐다보자. 혹시 뺱뺱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눈을 콩알 크기로 만들어주는 요술 안경을 쓴 남자라는 사실, 알고 있지?

특히 두꺼운 뺱뺱이 안경을 낀 남자를 영화나 드라마에선 꼭 순정 찌질남으로 표현 한다고,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고백 한번 못 해보고 눈 앞에서 인기남한테 그날 뺱기는 상황. 여기서 안경남의 우울쭈물한 표정이 입권안걸?(인기남들은 꼭~ 갈치빛 슈트에 외제차...) 이런 장면은 괜히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라!

그렇다고 초콜릿을 받지 못할 거라고 체념하긴 아직 일러. 두꺼운 뺱뺱이 안경에, 춥다고 트레이닝복과 두꺼운 패딩 점퍼만 고집하지 말고 이제



변신하자. 거울을 보고 잘 생겨지는 법을 찾자니 견적이 집 한 채 값이라고?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것을 빼고 나면 방법은 바로 하나! 바로 드라마 속 순정 찌질남의 조건 1순위인 뺱뺱이 안경을 벗는 거야. 가장 빠른 시간에 화~악 이미지를 변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만한 건 없을걸? 당신이 변신한 후에는 재앙 같은 밸런타인데이가 나도 모르게 손꼽아 기다려지게 될지도 몰라. 그날만큼은 훈남으로 변신한 당신에게 여자들이 하트를 뽕뽕 날리면서 초콜릿을 마구 투척할 테니까 말아야. 하하!

MAXIM 공식 훈남 의사 서울밝은안과 김성일 원장이 전한 말 말 말

도움말: 서울밝은안과 김성일 대표원장

봄이 오기 전에 안경을 벗고 훈남으로 거듭나길 원하는 남성들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진짜 훈남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않단다지?

→ 수술하면 정말 잘생겨지나요?
취업 준비를 위해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수술이자 이미지 변신을 위한 가장 빠른 수술이 바로 시력교정술입니다. 안경만 벗어도 한층 더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안경으로 작아졌던 콩알 눈에서 벗어나면 성형수술에 맞먹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MAXIM 에디터가 말하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은 안경 없는 얼굴이 밑바탕이 되어야 성립하는 조건이 아닐까 싶네요.

→ 라식 수술보다 라섹 수술이 더 좋은 수술인가요?
환자의 눈 상태에 따라 수술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우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식 수술은 각막의 상태나 눈의 조건이 건강할 때 진행할 수 있으며, 라섹 수술은 각막이 얇거나 근시가 심할 경우 진행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검사를 거쳐 자신에게 맞는 수술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검사! 후치료! OK?)

→ 수술할 때 입원해야 하나요?
시력교정술은 수술 후 바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뒤 바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또 라식, 라섹 수술 모두 수술 중 통증이 없으며 라섹 수술은 수술 후 2~3일 정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라식 수술은 수술 후 바로 시력 회복이 가능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미남도 되고 또렷한 시야를 찾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흑백처리된 커버의 월호는 품절을 의미합니다.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 서점에서도 MAXIM 과월호를 구할 수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래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챙취하시길!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Game



ArcheAge
아키에이지

ARCHEAGE: 미녀 4인방 중 최고의 미녀는?

게임성과 그래픽은 안중에도 없는 우리는,
여전히 여캐 탐닉에만 열을 올릴 뿐이다.
당신이 선호하는 타입은 과연 누구?

아키에이지

XLGAMES의 송재경 대표가 <리니지> 이후 12년 만에 선보이는 MMORPG. <테라>, <블소>와 함께 2013년을 이끌 차세대 온라인게임 트로이카라 불린다. 수많은 유저가 <테라>와 <블소>의 침 넘어가는 섹시한 캐릭터들에 정신을 놓은 반면, <아키에이지>는 간에 보톡스라도 맞았는지 게임성만으로 승부한다는 돌직구를 날렸다. 물론 얼마 전 시행한 캐릭터 생성 이벤트에 참가한 유저들은 캐릭터의 출중한 미모에 크게 뒤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고. 그뿐 아니라 게임의 높은 자유도 덕에 능동적인 플레이를 즐길 수 있어 서양 RPG에 로망을 갖고 있던 유저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발보단
영상별!



CHARACTER OF THE MONTH

제작사	(주)엑스엘게임즈
형태	MMORPG
등급	청소년 이용 불가
오픈 베타 서비스 중	

MAXIM's
Choice!

← 하리하란

양갈래 뚱머리를 물고 치파오를 벗은 보이시한 춘리 같다. 역시 목록 튀는 상큼 발랄 캐릭터는 늘 춘리류의 중국 무술형 캐릭터가 도맡는다. 본래 인간은 같은 인종끼리 끌리는 법. 부담스럽게 앙키탁한 누이만이나 엘프와 달리 동양인답게 오밀조밀 귀엽고 상큼한 그녀야말로 MAXIMI 선정한 최고 동양 미녀.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아청법을 피할 순 있겠지. 오빠 집에서 짜장면 먹고 갈래?

→ 누이안

힘과 노출 정도는 비례한다는 기준 RPG의 훌륭한 클리셰를 그대로 답습했다. 하지만 누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시는 게 어떨겠습니까.



→ 엘프

엘프는 역시 색기 담당인데 청순함으로 승부하는 엘프라니? 이따니 노스 입히고 플레이해보이 짝는 소리 하네.



→ 페레

고양이 상 여자가 아니라 그냥 고양이. 타 종족에 대해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페레족의 일컷이라고 해도 되나은 묘한 섹시함을 풍긴다.



이건 뭐하는 컨트롤러?

현대 컴보이 <오리 사냥>에 열광했던 이들이여 오라!
엽기적인 체감형 게임 컨트롤러 모음!



스워드 컨트롤러!

바이오 하자드 4

전기톱 컨트롤러 (닌텐도 게임큐브)

날이 시퍼렇게 선 전기톱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뺱 봉투는 게임 내내 공포의 대상이다. 자, 이제 전기톱이 내 손안에 있으니 복수를 해볼까? 잠깐, 주인공은 전기톱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귀무자 3 검 컨트롤러

일본도 손잡이 모양의 컨트롤러를 들고 적들을 요리조리 썰는 상상을 했나? 일성(단 한 번의 칼질로 적을 해치우는 것) 왕자가 되고 싶었지만 플레이스테이션2의 동작 센서로는 뽀뽀 흘린 땀과 아린 팔이 허무할 정도로 인식이 떨어진다. 이걸로 박살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네 텔레비전 스크린뿐.



사냥 수렵 컨트롤러!

헌터스 트로피 샤프 슈터

나치나 좀비 죽이는 것도 진절머리가 난다면 대자연 속에서 숨 죽여 기다릴 줄 아는 사냥꾼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옛날처럼 컨트롤러 연결하려고 온갖 영킨 선에 시달릴 필요 없이 PS MOVE 컨트롤러만 있으면 그럴듯한 더블 배럴 샷건을 가진 사냥꾼이 될 수 있다.

그랑메르 낚시대 컨트롤러

"아따 손맛하든 낚시제잉~" 흔히 게임 하면서 손맛, 손맛 하는데 역시 손맛의 원조는 낚시대! 물고기와 처절한 사투를 벌인 끝에 당신 손에 들린 거대한 월척!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초사이언이면 그레도 되냐?



검신 드래곤 퀘스트 검 컨트롤러

드디어 가로, 세로, 대각선의 다양한 방향으로 검을 휘둘러 수 있는 게임이 등장! 그것도 스퀘어 에닉스! 무려 <드래곤 퀘스트>! 게다가 전설의 로트의 검! 근데 이 '게임보이'스러운 그래픽은 뭐냐.



할리데이비슨~

← 할리데이비슨:
킹 오브 더 로드 모터사이클
컨트롤러

자동차 레이싱 게임은 핸들만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지만 바이크에 몸을 밀착하고 좌우로 기울이며 조작하는 모터사이클 게임은 어떡할 건데? 이 질문에 대한 세가의 답변, "뭐 어렵나? 모터사이클을 그대로 가져다 붙이면 되지?"

직접 보면
해보고
싶어질 걸?



잉치기
잉치기

④ 철기 메카닉
꼭짓 컨트롤러

꼬맹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남성들의 영원한 로망, 로봇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비싼 전용 컨트롤러를 사서 이 많은 버튼을 전부 외워야 한다. 전장, <슈퍼 그랑조>처럼 안 돼?



③ 전차로 Go! 마스터 컨트롤러

본격 출근길 시뮬레이션 <전차로 Go!> 시리즈. 레이싱 게임에 힘을 쓰듯, 전동차 조작 게임에는 마스터 컨트롤러가 당연. 일본의 주요 전철 구간을 비롯해 나고야, 신칸센 등 유명 철도를 운행하는 차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뭐하겠노, 연착되면 욕먹고, 스크린도어에 딱 못 맞추면 또 욕먹겠지.

비하클
컨트롤러!

뮤직
컨트롤러!



② 삼바 데 아이고! 마라카 컨트롤러

오락실에서 몸을 베베 꼬며 마라카를 흔들고 있는 남남 커플을 보면 조금 눈물이 나긴 하지만, 다 같이 칙 치기 붐! 칙 치기 붐!

암 킹 오브
더 롬바 비트~



더 세계, 더 낮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① DJ 히어로 턴테이블 컨트롤러

모든 여자들을 푸쳐해잡시킬 수 있는 클럽의 절대자 DJ가 되보고 싶다고? 다크트 핑크, 데드 마우스의 리믹스로 그녀들을 천국으로 보내자. 휘기휘기.



이건 뭐여... 컨트롤러!

드래곤 퀘스트8 슬라임 컨트롤러
슬라임 거꾸로 들고 뭐 하는 거?



3D 커스텀 소녀 오나니 컨트롤러

구, 굳이 말하자면 여성 시뮬레이터인가?
(2012년 12월호 '침단 자위 기구 판'을 참고하라!)



Game

Nerd of Legend

OLYMPUS

Your Vision, Our Future

LEAGUE of LEGENDS?

미국의 라이엇게임즈(Riot Games)가 개발 및 출시한 온라인 게임. 스타크레프트의 유즈맵 'Aeon of Strife'의 약자를 딴 AOS게임의 일종으로, 영웅 하나를 선택해 육성하며 팀원과의 전략을 통해 상대의 본진을 부수는 'RPG+전략시뮬레이션' 형식의 게임이다. 따라서 스타크레프트와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이상으로 개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팀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임이다. 국내에서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를 아작내버린 장본인으로, 블리자드 관계자들은 이름만 들어도 눈을 부릅뜨고 피를 토하며 분노에 떨고 있다고...

물고 물리고 뜯고 뜯기고! LOL 윈터 챔스 4강 명승부: Frost vs. Blaze

2012년 8월 4일, 마지막 스타리그 결승전이 끝난 후 수많은 언론이 'e스포츠에 더 이상의 신화는 없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겨우 반 년 후, 그 뜨겁던 현장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엄청난 거물급 타이틀이 e스포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Waiting



집에 TV가 안 나와서...

이것도 절반 정도를 돌려 보낸 후의 모습이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여.



따뜻한 집 뉘두고 뭐 하는 짓이나!

← 에디터는 이날 경기에 앞서 사전 답사를 온 적이 있다. 그때 이미 관계자에게 이날 경기의 인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나 사실 실감하지 못했다. 실제로 현장에는 사전 답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인파가 넘쳐 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쌍주부의 힘인가!

← 엠카 공개방송에 늦은 여고생들처럼 정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결국 보다 못한 행사 진행 요원이 아무렇지 않게 참고에서 대형 TV를 끌고 나왔다. 설마?

그랬다. 끝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쭈그러 앉아서 공색하게 경기를 지켜봤다. 사실 2002년 월드컵 때랑 다를 게 뭐 있다. 그래도 시청광장 전광판보다는 잘 보일걸?



가끔은 무료한 나머지 뜨개질을 하는 처자도 있었다.

Spectators



LOL이 분명 단순한 게임은 아니지만, 어디에나 있다는 '초딩 유저'들이 빠질 수 없다. 카메라를 들이대자 브이를 날리는 여우까지 보여준 그들은 무척 귀여웠다. 재능수확은 다 끌고 온 거냐?



마치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캐내듯 레이더를 발동한 에디터는 꽤나 훌륭한 원석 커플을 몇몇 찾아낼 수 있었다. 그중에 반은 여자 사람이 아니던가! 하하하! 관중은 대부분 남자다. 하지만 그들이 "재미있는 거 보자"며 손 꼭 붙잡고 데려온 여친들의 비주얼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라이엇게임즈의 스태프거나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 아님 브리짓 존스와 스티브 잡스 유명일지도.



On the Stage



장내 무대 위에서는 해설진이 침을 튀기며 중계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전용준 캐스터는 여전히 아웃사이드 뽀치는 속사 램을 구사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강민과 김동준 해설위원의 냉철한 분석은 전용준 캐스터의 래핑에 다소 묻히는 기색이었다.



MC 용준의 사자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지, 양키 캐스터들은 나지막하게 "오 마이 갓", "와우" 등을 들릴 듯 말듯 읊조리며 자신의 해설에 집중했다. 그 존재감이 너무나 미약해 마치 마네킹 두 개가 마주 앉아 웅얼이를 하는 것 같았다.



Versus



아주부 프로스트(AZUBU Frost)

박상면(Shy), 정민성(RapidStar), 흥민기(Madlife), 장건웅(Woong), 이현우(C.Templar) 매라(Madlife) 흥민기와 속칭 '빠른별'(RapidStar)이라 불리는 정민성을 주축으로 팬 사이에서는 '아주부 1군'이라 불리는 주력 팀이다. 각 멤버의 기량이 뛰어나 한타 싸움에서는 절대적인 위력을 보여준다.



아주부 블레이즈(AZUBU Blaze)

신동진(Helios), 강찬용(Ambition), 이호중(Flame), 강형우(Cpt Jack), 함장식(Lustboy) '아주부 2군'이라 불리며 팬들로부터 조금은 찬밥 신세를 받고 있었으나, 역시 타 팀과 비교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전력을 자랑한다. 자체 리그에서는 프로스트를 상대로 압승을 거둔 전적이 있다.

Game

Nerd of Legend

OLYMPUS
Your Vision, Our Future

AZUBU Frost vs. AZUBU Blaze 경기 하이라이트!



뒤처지는
이렇게.

1세트(AZUBU Blaze 승)

Frost 니달리/올라프/오리아나/케이틀린/누누

Blaze 엘리스/자르반/아리/이즈리얼/소나

프로스트의 블리츠크랭크가 밴을 당했으나, 블레이즈가 한타 싸움에 약한 니달리를 픽하면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의외로 활약하던 니달리는 한타 싸움을 하던 틈을 타 빈집털이에 성공하면서 게임 오버.



카사스 진혼곡
트리플 킬!

2세트(AZUBU Frost 승)

Frost 럼블/초가스/카사스/코그모/엘리스

Blaze 이렐리아/아무무/오리아나/미스포츰/롤루

앞 경기에서 니달리에게 오지게 시달리던 프로스트는 결국 니달리를 밴한다. 라인 압박에 시달리던 블레이즈는 한타 싸움을 걸지만, 강력한 카사스의 진혼곡으로 트리플 킬을 당하고 GG, 2세트는 프로스트가 가져갔다.



진리의 엘로 카드!

3세트(AZUBU Blaze 승)

Frost 올라프/초가스/트위스티드페이튼/코그모/누누

Blaze 제드/아무무/라이즈/미스포츰/소나

초반 3킬을 거둬 시작부터 3:0 스코어를 찍은 블레이즈는 잘나가나 싶더니 중반 한타 싸움에서 3킬을 빼앗겨 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반 한타 싸움에서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던지는 엘로카드의 활약으로 역전승을 거둔다.



가히 이번 경기의 하이라이트, 함성이 떠나가듯 울렸다.

4세트(AZUBU Frost 승)

Frost 이렐리아/녹턴/애니비아/미스포츰/블리츠크랭크

Blaze 다리우스/초가스/라이즈/케이틀린/타릭

이미 매드라이프가 블리츠크랭크를 픽했을 때부터 관중들이 경기장이 떠나갈 듯 함성을 울렸다. 아니나 다를까, 매라는 블리츠크랭크를 이용한 CC기로 가히 명불허전의 실력을 자랑했다. 결국 버릴 수 없던 블레이즈의 패배.



모르겠다 그냥
존나 부쉬야겠다.

5세트(AZUBU Frost 승)

Frost 올라프/헨/라이즈/미스포츰/블리츠크랭크

Blaze 헨/초가스/이블린/코그모/누누

마지막 경기는 밴도 없으며, 상대에게 픽도 노출하지 않는 블라인드 픽. 이 룰의 절대 강자라는 명성답게 프로스트는 각자 최강의 캐릭터를 픽해 경기를 압도했다. 경기는 중반 9 대 2까지 벌어졌으며, 16 대 6으로 경기를 압도. 결국 프로스트는 역대 전 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경기를 끝냈다.

잠깐! LOL 리그 감상을 위한 기초 상식!

개나 소나 챔피언?

그냥 캐릭터를 써잡아 챔피언 혹은 챔피언이라고 부른다(잘한다고 챔피언이 아니다).

킬(Kill)?

더블 킬(2명), 트리플 킬(3명), 쿼드라 킬(4명), 펜타 킬(5명)로 나뉜다. 솔로로 펜타 킬을 한다는 건 고령육 방송 복귀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라인(LINE)이란?

각 미니언이 공격을 진행하는 방향. 정사각형 맵을 기준으로 뒷편을 톱, 대각선을 미드, 이렛편을 봇이라 부른다. 라인을 타지 않고 곳곳에 숨은 몬스터를 잡아 랩업을 하는 챔피언을 '정글러'라고 한다.

밴(BAN)이란?

말 그대로 금지(Ban)라는 의미. 매 게임 상대방의 챔피언 픽(Pick: 선택)에 제한을 두는 룰이다.



여성 발굴 프로젝트!

시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듯, 가슴에 콩 나듯 있는 여성 유저를 밀착 취재! 남친이 있어도 우리는 굴하지 않아!

뜨거운
현장 분위기!



우태욱 25세

Fan of AZUBU Frost 'Madlife' & AZUBU Blaze 'Flame'
레이팅 1,750점! 여친 교육할 겸 보러 왔다!

꽃미남 포스 활활 넘치는 그는 살아 있는 이즈리얼.



여친 보고 놀란 가슴 남친 비주업에 더 놀란
권은영 24세

그냥 남친에게 세뇌당하는 중

청순미 넘치는 소나를 닮은 그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쫓싸게 붙잡힌 **이현준 17세**

Fan of AZUBU Frost 'Madlife'
아직 레벨이 낮지만 서퍽을 주로 해서 매라의 플레이어를 좋아한다.

아직 어린 그녀는 귀요미 애너를 닮았다고 하자.



혼자 놀러 왔다가 당황해하며 끌려 나온 **손유정 23세**

Fan of AZUBU Frost 'RapidStar'
손이 잭스(손가락이 두 개인 챔피언)라 게임은 잘 못 하지만 구경 왔다.

동글동글 귀여운 블루를 닮은 그녀. 손만 잭스 시켜 주자.



친구 따라 왔다가 갑자기 끌려나온 **박은지 22세**

Fan of AZUBU Frost 'Shy'
게임 꽤 오래했다. 하지만 레이팅과 아이디는 비밀!

럭스를 닮아 상큼 발랄한 그녀.



남친의 결단력으로 어렵게 취재에 응한 커플 **유성환 25세**
Fan of AZUBU Frost 'Woong'
두 번째 보러 왔다. 게임 할 땐 주로 탑 라인을 보고 있지.

시원시원한 페이스의 제이스를 닮은 그.



이한나 24세

Fan of AZUBU Frost 'Madlife'
커플은 원딜+서포 조합으로 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시크한 케이틀린을 닮은 그녀.



사전 답사 때 이미 눈에 들어온 잔나 뺨치는 몸매를 지닌 그녀 **손동현 21세**
Fan of AZUBU Frost 'Madlife'
지난 경기는 지루해서 1차만 보고 갔는데 이번 경기는 정말 최고다!

노세적인 그녀의 포스는 잔나를 방불케 한다.





MAXIM ATTACK!

쿠마파크



한국 재즈 신에 떠오르는 초특급 슈퍼
루키 쿠마파크. 곰 여섯 마리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미녀 곰이 있었으니...



웹캠 투 더
쿠마파르크!



차가운 바람에도 시들지 않는 금강초롱꽃을 담은 그녀를 위해 2만 원 짜리 이름 모를 꽃을 준비했다.



“MAXIM ATTACK에 어울릴 만한 음악이 정녕 록과 힙합뿐이란 말인가.” 시베리아 기단의 매서운 북서풍을 맞으며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퇴근 무렵 에디터의 발걸이 향한 곳은 MAXIM 사무실 주변의 허름한 재즈 클럽. 청각적 허기를 달랠 심산으로 들어선 클럽 안에는 당최 힙합인지 재즈인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주 방식은 분명 재즈인데 DJ박스와 턴테이블은 무엇이며, 비트는 힙합인데 블루 노트의 색소폰 연주와 끈직한 보컬은 무엇이란 말인가. 경직된 우뇌와 공공 언 두 손이 당장이라도 터질 듯하던 차, 에디터 눈에 시꺼먼 곰 사이에서 빛을 발하는 아프로디테가 눈에 들어왔다. 오 주여, 정녕 저것이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그 순간, 에디터 머릿속에 얽혀 있던 MAXIM ATTACK 기사에 대한 갈등이 한순간에 해소됐다. 저 여신과 함께라면 그간 아쉬움으로 남아 있던 비주얼 문제를 해결할과 동시에 새로운 음악을 보여주는 기획이 모두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에디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쳤고 삼고초려와 같은 설외 요청 끝에 인터뷰 승낙을 받아냈다. 지금부터 재즈 신의 슈퍼루키, Experiment Jazz Hiphop 팀 쿠마파르크를 만나보자.



재즈 색소포니스트
한승민(Kuma)
을 주축으로 한
쿠마파르크는 기계적
사운드와 재즈 특유의
자유로운 연주 기법을

성공적으로 앨범에 녹여냈다. 2011년에는 싱글 음원도 없는 밴드로 유일하게 네이버 온스테이지에 소개됐으며, 음악 평론가들에게서 재즈의 연주 방식과 힙합 비트가 가미된 새로운 사운드를 완벽하게 융합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 최지호(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
올해 가장 자유롭고 색다른 연주.
- 김고금평(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
분석과 감성을 동시에 이끄는 능력에 박수를.
- 권해원(네티즌 선정위원) ★★★★★
맛에 반하면 원산지 따위는 따지지 않는
자들이여, 귀를 열라.

-〈네이버 음반 소개〉중에서

BY 이영환 PHOTOGRAPH ARC STUDIO FILM 최성준, 이영환 LAYOUT 진은경 COOPERATION 프리버드(www.freebud.co.kr)



곰 동산을 만나다니. 웬지 막 신이 날 것 같다. 먼저 헤미 씨가 재즈 힙합에 대해 설명해달라.

쿠마: 재즈 음악에서 네 마디의 구다리를 따와서 피아노 루프를 샘플링해...

쿠마 말고 헤미 씨!

김혜미: 재즈의 화성과 힙합 특유의 리듬을 합친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네요.(방긋)

예쁘지면서 언변도 훌륭하시다. 음악의 색깔은 주로 누가 정하는 편인가?

쿠마: DJ노아와 나, 황기가 주로 하고 있다.

멤버 모두 지금 음악 스타일에 만족하나?

쿠마: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다!

DJ노아: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해야지.

팀에서 '여신' 역을 맡고 있는 헤미 씨는 대체 어떻게 영입했나?

김혜미: 사실 보컬이 없던 쿠마파르크 시절부터 이들의 팬이었다. 하지만 앨범이 이렇게 우울하고 꿀꿀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난 밝은 게 좋은데!

DJ노아: 이게 최대한 밝게 표현한 거야.

쿠마: 앞으로 더 우울해질 예정이지.

졸전에 UFC, 로드FC를 언급하는데 격투기 팬인가?

김혜미: 남성 커뮤니티에서 눈팅하면서 알게 됐는데 자세하는 모른다. 아리아니 셀레스티앙 강에빈 씨가 UFC 길로 나와서 알고 있다. 난 예쁜 여자를 좋아하거든!

일단 MAXIM 독자들에게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김영진: 드러머 김영진이다.(부끄부끄)

김혜미: 재즈파플이 선정한 2012년 라이징 스타 →

Music



아쿠자 출신?



꺼져
하하하!



고마워!
하하하!

→ 김혜미다. 김혜미 파르팻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쿠마: 재즈계의 장윤정, '행사의 여왕'이라고 왜 자신을 소개하질 못하니.

김혜미: 잡지에 정말 이렇게 나가면 각스 이현송 씨가 MAXIM 사무실에서 난동 피운 것처럼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거다.

오, 참고로 난 대환영이다.

김혜미: ...

음원도 출시하기 전에 네이버 온스테이지에 출연하며 슈퍼키로 떠올랐다. 소감은?

쿠마: 앨범도 안 냈는데 연락이 와서 놀랐다. 사실 영상이 늦게 공개돼서 그렇지 우린 온스테이지 무대 세 번째 주자였다.

김혜미: 온스테이지가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일 줄은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러키!

베이스스트 얼굴이 낯선데 교체 멤버인가?

쿠마: 오늘 특별히 도와주러 왔다. 우리 베이스스트가 워낙 바쁜 몸이라...

국내 재즈 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해외 진출 계획은?

쿠마: 안 그래도 일본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 일본 유명 레이블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오사카에서 열릴 재즈 페스티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재즈 뮤지션은 음악만으로 먹고살기 힘들 것 같은데.

김혜미: 사실 무대 말고 돈 버는 루트는 따로 있다. 레슨이나 세션 활동 같은...

그럼 당신도 레슨을 하나? 당장 저를 가르쳐주세요! 3년 약정으로다가.

김혜미: 레슨은 적성에 안 맞아서 안 한다.

쿠마: 차라리 행사 섭외를 하는 편이...

김혜미: 아오. 이 쿠마가.

외모가 서구적인데, 혹시 미국 출생인가?

김혜미: 무슨 소리! 서대문구 토박이다.

반면에 쿠마는 아쿠자 래퍼 스타일이다.

쿠마: 닥쳐.

황키: 형 과거사 한번 물어드려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쿠마: (떡떡)

쿠마가 외모와 달리 온순한 성격이라고 들었는데,

화내는 걸 본 적이 있나?

김혜미: 술 취한 아저씨가 나한테 주정을 부린 적이 있다. 그러려니 하고 무시했는데, 갑자기 쿠마가 나타났다.

DJ노아: 만취한 아저씨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길래 멤버가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 "아저씨, 죽기 싫으면 빨리 도망가요!"라고.

황키: 아마 아저씨가 '멧돼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화근이었던 것 같다.

김혜미: 뭐야 멧돼지 때문이었어? 괜히 감동받았네.

쿠마가 다루는 악기 소리가 특이하던데, 색소폰의 일종인가?

쿠마: 그렇다. 이위(EWI)라는 악기다.

목소리도 오토튠처럼 변하던데, 이것도 이위를 이용한 건가?

쿠마: 그렇다. 발음만 내가 하고 멜로디는 이위로 조절하는 방식이다.

김혜미: 노래할 때 쿠마 표정이 일견이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는데.



(응, 보고 있어...)

웬만한 록 밴드보다 장비가 많은데,

이래서 출장 마진이나 남나?

황키: 전문 용달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보다 전기료가 문제다.

쿠마: 에반스에서 연주할 때마다 항상 노이즈가 발생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클럽 간판 네온 때문이더라. 이놈의 전기!

김혜미: 그래서 우리가 에반스에서 공연할 때는 간판 불을 꺼놓는다.

간판 불이 꺼져 있는 날은 에반스에서 쿠마파크가

쿠마파크가 이날 연주한 음악은 1집 앨범 수록곡 Ego.



에고, 에고...



미모와 미모를 겸비한 재즈 보컬리스트 김혜미

공연하는 날이겠군.

일동: 오, 그러네? 왠지 낭만적이다!

DJ노아는 활동 경력이 꽤 많은데, 솔로 앨범을 낼 계획은 없나?

황키: 게을러서 안 내는 거지 뭐. 유부남이니 주말엔 이불 빨래도 해야지.

DJ노아: 쿠마파크 앨범이 나왔으니까 일단 보류 중이지만, 솔로 앨범도 준비 중이다.

황키는 소란이란 뮤지션의 키보드 세션 활동도 하는데, 가요, 재즈, 힙합 못하는 게 없나?

황키: 천재데 못 할 게 뭐가 있나?

그런데 왜 '황키'인가? 본명은 황득경인데.

황키: '황득경 키보드'를 줄여 황키라고 부른다. 별로 궁금하지 않겠지만.

공연 때 보니까, 드럼 실벌에 구멍이 많은데, 이유가 있나?

김영진: 구멍을 뚫으면 볼륨이 커지고 각각의 구멍에서 특이한 울림이 생긴다. 우리 연주에 적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황키: "금속 원자켓 값이 올라서 중국산을 구입했다니 이 모양이다"라고 해야 MAXIM이 좋아하지. 이 친구야.

김영진: 예헐.

마지막으로 재즈에 입문하는 팁 좀 알려달라.

DJ노아: 고전 야동을 많이 봐라. 좋은 재즈는 고전 야동에 산재해 있다. 재즈는 여러분의 사타구니 가까운 곳에 있다.

황키: 재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녀 보컬 헤미 씨도 있잖아?

김혜미: 그러니까요. 나를 보러 와요. 여러분.

쿠마: 뭐야 이게 끝인가? MAXIM 인터뷰라서 미녀 삼총사는 아니더라도 이총사는 울 줄 알았더니!

김영진, 최인성: 아잉 몰라용. 인터뷰는 너무 부끄러워...

쿠마파크의 6인 6답

1. 재즈 문화인에게 추천하는 음반 그리고 곡 2. 가장 예뻐하고 끈적한 음악 3. 데이트 최적의 재즈 클럽 4. 비주류 음악을 한다는 것 5. 악기로 이성에게 환심 사는 나만의 방법 6. 악기로 해본 가장 특이한 행동 (*김혜미: 5. 노래로 이성에게 환심 사는 법 6. 가장 특이했던 행사)



쿠마(리더, 색소폰)

1. Miles Davis의 <Kind of Blue>. 내가 처음 접한 재즈 음반이라서.
2. R. Kelly의 'Bump N' Grind'. 범프하고 그라인드한다는데 말 다했지.
3. 내게 클럽은 단지 일터일 뿐.
4. 이쪽에 있다 보니 뭐가 비주류인지 모르겠다.
5. 최대한 버터가 흐르듯 느끼하게. 하지만 쉽지 않다.
6. 이번 촬영에서 색소폰으로 충을 쏘았다...



황키(키보드)

1. Stan Getz의 <Blue Skies>. 불면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2. 존 메이어의 허스키 보이스가 울려 퍼지는 무대 위에는 언제나 백마들이 넘쳐 난다.
3. 이태원의 올댓재즈. 사운드는 물론, 셀카까지 잘 나온다.
4. 우린 공창에 밀크셰이크. 겁데기에 오미자차 같은 팀이다.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선구자지.
5. 악기는 그저 거들 뿐.
6. 내 간반은 다용도 테이블 및 빨래 건조대로 활약하고 있다.



김혜미(보컬)

1. 쿠마파크의 <Ego>. 우리 특경 언니는 좀 천재인 것 같다.
2. TLC의 'Red Light Special'. 왠지 부모님 몰래 들어야 할 것 같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은 기억이 있다.
3. 원스인어블루문. 노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뽀뽀를 하더라.
4. '전설'로 기억되는 것!
5. 노래로 환심을 사고 싶은데 노래하기 전에 다 넘어오니까... 응?
6. 한둘이어서 말로 하지!



DJ노아

1. Roy Ayers의 <Everybody Loves the Sunshine>. 힙합 샘플링 곡으로 유명하니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듯.
2. Notorious b.i.g.의 'Fuck You Tonight'. 설명이 필요해?
3. 어두운 곳.
4. 그만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 음악이 짱이다.
5.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면 Game Over.
6. 입과 팔꿈치를 이용한 광속 스크래치.



김영진(드럼)

1. Jacky Terrasson의 <Smile>. 경쾌함과 우울함이 공존하는 자용동체 맛이다.
2. George Michael의 'Careless Whisper'. 멜로디만 들어도 괜히 아하다.
3. 어느 클럽이든 시끄러워서 서로 얼굴을 맞닿 수밖엔 없다.
4. 배고프다.
5. 공연 중 음이 간 스틱을 부러뜨려 정령을 과시해봤다.
6. 크래쉬 심벌을 집에서 컵홀더로 사용 중이다.



최인성(베이스)

1. Miles Davis의 <Round Midnight>. 재즈 음악을 처음 접한다면 추천한다.
2. 웬만한 블루스라면 다들 감백 죽지!
3. 오늘의 촬영 장소인 에반스. 이름부터 어쩐지 낭만적이다.
4. 이 음악을 주류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5. 베이스로 8비트를 아주 맛깔나게 연주하는 것.
6. 스캇. 응?

Sex

POSITION OF
THE MONTH



이 맞이에

당신이 꿈꾸던 스리섬 환타지는?

섬 바다 헬프 미!

영상으로
예측하자!



촌이랑 키스하면서 벤이랑 섹스하는 오피리아

특A급 마리화나를 재배해 판매하는 벤과 촌은 친구 사이. 두 남자는 오피리아라는 금발의 미녀를 공유하고 있다. 바닷가가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저택에서 셋은 약에 취해 먹고 자고 (섹스하고), 먹고 자고(섹스하고)를 반복한다. 오피리아가 벤과 키스하고 있으면 촌이 뒤에서 애무하고, 촌이 오피리아의 옷을 벗기면 벤이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는다. 여자는 벌써 절정에 다다랐지만, 두 남자는 아직 나른하고 여유롭다. 그런데 친한 친구와 여자를 공유하는 남 2, 여 1의 스리섬이 과연 영화처럼 판타스틱할까? 불알 친구의 불알을 보는 것도 모자라 다, 달기도 하잖아!

- 영화 <파괴자들>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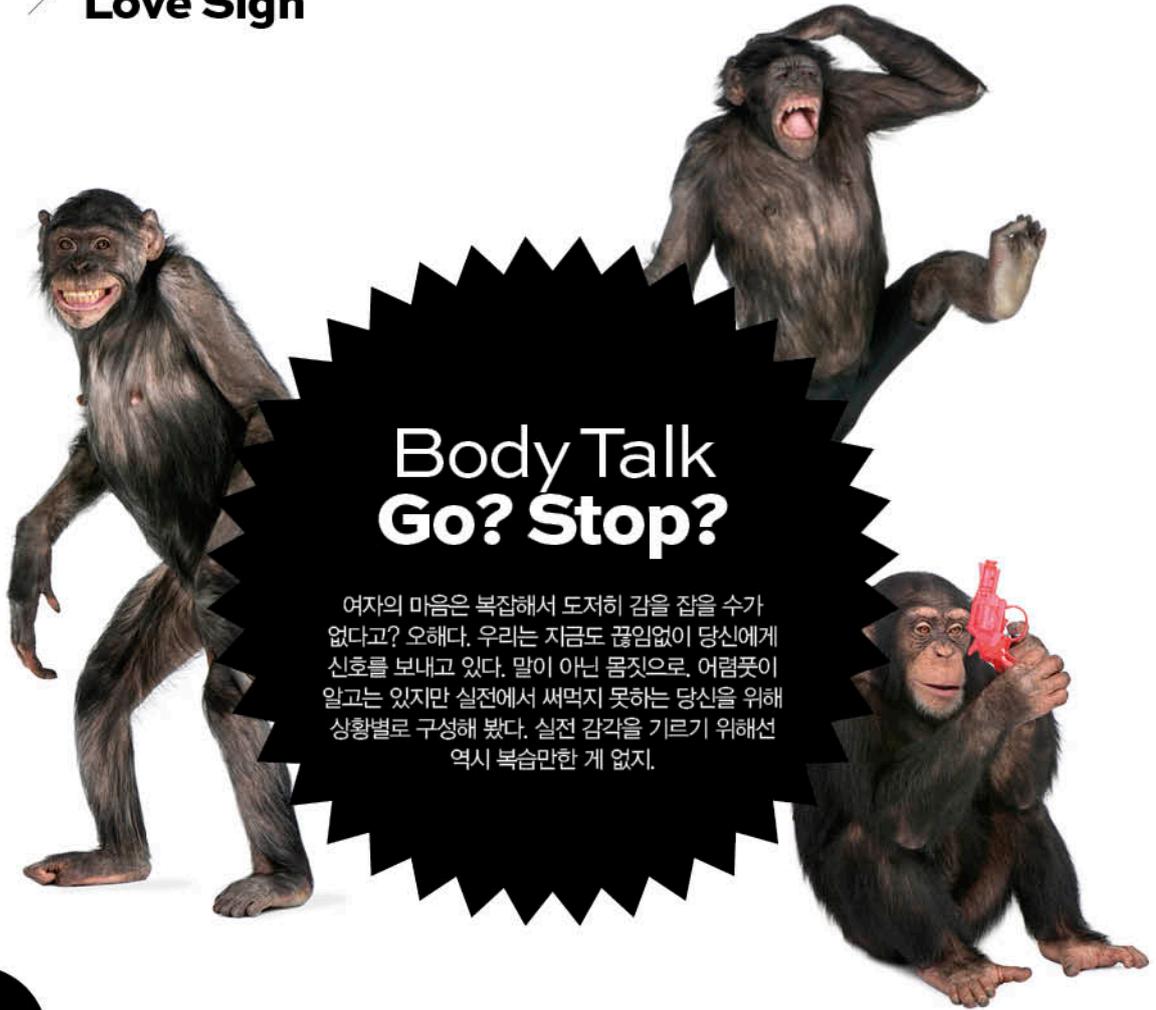
2대1이나, 1대2나?

당신은 어느 쪽인가? 아이스크림 한 개를 친구와 나눠 먹든, 두 개의 아이스크림을 양손에 쥐고 먹든 그 맛은 어차피 달콤하겠지만, 다다익선 아니겠는가? MAXIM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대다수 독자는 남자 1 : 여자 2의 스리섬을 선택했다.

Q. 보라카이보다 아름다운 섬, 스리섬! 당신의 취향은?



총 투표: 732 / 기간: 2013.1.8 ~ 2013.1.21



Body Talk Go? Stop?

여자의 마음은 복잡해서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오해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말이 아닌 몸짓으로. 어렵듯이 알고는 있지만 실전에서 써먹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상황별로 구성해 봤다.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선 역시 복잡만한 게 없지.

Case. 1

우연히 길을 건다 당신의 마음에 쏙 드는 그녀를 발견했다. 긴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기면서 걸어오는 그녀를 보니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싶다. 번호를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그녀에게 거절당할까 두려워 초조하게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Go

당신을 아래 위로 훑어본다

해석: 당신에게 반했어요. 그러니 어서 날 고쳐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인 유전자뿐만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방식도 다르다. 한 예로 남자는 머리와 눈동자를 움직여야만 상대방을 아래 위로 스캔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머리와 눈동자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슬쩍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전신을 스캔할 수 있다. 몰랐지? 사실 우리도 다 보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녀가 눈에 띄게 당신을 위, 아래로 훑고 있다면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거나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당신을 유혹하고 싶다는 사인이니 그녀에게 어떤 멘트를 던지든 작업 성공. 무조건 번호를 딸 수 있다. 하지만 그녀가 살짝 바운는 얼굴로 당신을 스캔했다면 바지 지퍼가 열렸거나 당신의 어딘가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니 주의하고, 참고로 여자가 다른 여자를 대놓고 훑어보는 행위는 그 여자를 싫어한다는 뜻이다. 아, 그랬구나.

Go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긴다

해석: 저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나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난 널 유혹하고 싶어

여자들이 머리를 돌리며 머리카락을 목뒤로 넘기거나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는 건 외출 전 엘라스틴으로 머리를 감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신의 매력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상대방을 유혹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포즈. 주위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더라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특히 더 심하다. 그녀가 당신에게 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여성들은 관심을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에 일단 번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질러봐.



Case. 2

긴 생머리 그녀에게 변호를 탄 당신, 그녀도 분명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이제 나머지는 당신의 몫. 그녀와 카톡을 주고받다가 드디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뭔가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이젠 당신만의 느낌인지 그녀도 같은 마음일지 헷갈린다. 현재 밥도 먹고 차도 마셨다. 술 한 잔 더 하고 싶는데 그녀도 나와 있는 게 즐거운 걸까?

Stop

고개를 너무 많이 끄덕인다

해석: 니 얘기 고민해 이 자식아

남자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반면 여자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그녀가 당신과의 대화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건 당신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서가 아니라서 걸 기억할 것. 고개를 잘 끄덕여주는 여자일수록 배려심이 깊은 경우가 많다.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도할 정도로 계속 머리를 끄덕이는 건 "됐고 요점이나 빨리 말해"라는 신호이거나 "니 말이 다 맞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 둘 중 하나다. 헷갈린다면 표정도 살펴라. 그녀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다면 고개를 끄덕이더라도 부정적인 신호임이 거의 확실하다. 하던 말 멈추고 그녀에게 말할 기회를 줄 것.

Go

자꾸 립글로즈를 바른다

해석: 어서 빨리 날 데려가줘

그녀가 대화 중 은연중에 스스로의 몸을 자주 만진다는 건 당신과 자고 싶다는 신호다. 특히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 손을 자꾸만 입술 근처로 가져간다면 거의 확실하다. 입술은 섹슈얼리티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적인 충동을 느낄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만지는 것이다. 갑자기 맥주를 병째 입술에 대고 마신다거나 뜬금없이 사탕을 빨아 먹거나 립글로즈를 꺼내 바르거나 입술을 혀로 핥는다면 어서 빨리 자리를 파하고 그녀가 원하는 걸 해주자.

Stop

코를 긁는다

해석: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거짓말

사람이 갑자기 긴장을 하면 부드러운 몸의 조직들이 팽창하게 되는데 코 안쪽도 마찬가지다. 긴장을 하면 코 안쪽이 부풀어 오르면서 간지러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땐 무의식적으로 코를 긁게 된다. 그래서 '피노키오 효과'라고도 한다.

Stop

입을 가린다

해석: 지금 내가 하는 말 다 거짓말

손을 입 근처로 가져간다고 다 좋은 신호는 아니다. 어린 아이들은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 손톱을 물어뜯는데 다 커서도 그 버릇 어디 안 간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손에 입을 가져가는 거다. 그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녀의 몸짓언어 해독법

꼭 말을 해야만 아나. 여자가 보내는 신체 사인을 잘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연애 고수, 연애 달인이 될 수 있다.

그녀의 YES 사인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미소를 짓는다.
머리를 뒤로 넘겨 목 부분을 노출한다.
몸의 방향이 당신을 향한다.
계속해서 시선을 마주친다.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를 기울인다.
당신을 바라보는 도중 시선이 코나 입, 심지어 더 아래로 내려간다.

그녀의 NO 사인

팔짱을 낀다.
무릎 위에 손을 얹어 놓는다.
뭔가를 두드린다.
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
발끝과 몸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눈동자를 계속 움직인다.
칭그린다.
걸놀질을 한다.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인

음료를 훌쩍 훌쩍 마신다.
안경 끈을 자꾸 만진다.
머리를 굴적이다.
자꾸 턱을 톡톡 친다.

머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여라

오른쪽으로 머리를 살짝 기울이고 "거기 예쁜 아가씨, 전번이 뭐예요?"하고 물으면 변호를 딸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있는 사람이나 왼쪽으로 머리를 기울인 사람보다 8도 각도로 오른쪽으로 머리를 살짝 기울인 사람에게 훨씬 더 신뢰감을 느낀다고 한다(각도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면 반대편 목이 상대에게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동물들이 순종한다는 뜻으로 하는 몸짓과 같다. 무엇이든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여자들은 왼쪽으로 머리를 기울인 남자는 바람둥이라고 생각하니 무조건 오른쪽으로 기울여야 된다.



Cas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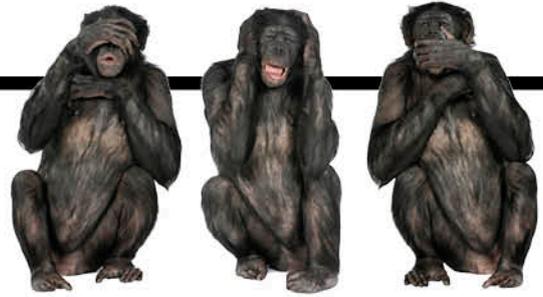
여차저차해서 드디어 그녀와 자...졌다. 역시 난 되는 놈이다. 그런데 섹스 후 그녀의 표정이 이상하다. 분명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그녀의 진짜 생각을 읽을 수가 없다. 그녀는 나와 섹스에 만족했을까?



클럽에서 여자 꼬시는 법

디테일의 차이가 연애 고수와 모태슬로를 판가름 한다.

- 관심녀를 발견했다면 시선을 마주쳐라.
- 바 근처에 서 있을 땐 바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게 좋다.
- 옆에 일행이 있더라도 시선과 몸의 방향을 스테이지 쪽에 뒀라.
- 돌아다녀라. 움직여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쉽다.
-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을 보고 말을 하고 자주 웃어라.
- 드디어 관심녀와 이야기를 하게 됐다면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라.



Go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잠이 든다

해석: 좋았어

여자와 남자가 서로의 가슴에 손을 얹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다. 섹스 후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는다거나 당신의 가슴털을 쓸어내린다거나 당신의 가슴팍에 손을 얹고 잠이 들었다면 그녀가 당신과의 섹스에 아주 깊이 만족했다는 뜻이다. 당신도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는 걸로 깊은 애정을 표현하라.

Go

담배 연기를 위로 내뿜는다

해석: 좋았어

섹스 후 담배를 피우는 그녀가 연기를 위로 내뿜고 있다면 당신과의 섹스가 좋았다는 거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기분이나 자신감을 느낄 땐 담배 연기를 위로 내뿜는다. 담배 연기를 내뿜는 속도는 감정의 강도와 관련이 있는데 위쪽으로 빠르게 내뿜을수록 좋았다는 사인이다.

Stop

담배 연기를 아래로 내뿜는다

해석: 지금 그걸 섹스라고 하나?

반대로 담배 연기를 아래로 내뿜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 화, 좌절감 등과 관련이 있다. 아래쪽으로 빠르게 내뿜으면 당신과의 섹스가 진짜 별로였다는 거다. 그리고 잊지도 않은 재를 계속 터는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어지럽다는 뜻이다. 그녀가 담배 연기를 아래로 빨리 내뿜으면서 없는 재까지 탈탈 털고 있다면 다음 만남은 기억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어차피 다시 안 볼 사이인데 한 번 더?

Stop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해석: '좋았다고' 말해줄게

"좋았어?"라는 당신의 질문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응, 좋았어"라고 답했다면 마음에 없는 소리일 가능성이 크다. 보통 거짓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과하게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Go

동공이 커졌다

해석: 좋았어

서클렌즈를 낀 것처럼 검은자위가 확대돼 있다면 당신과의 섹스가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거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동공이 커진다. 아, 근데 저건 서클렌즈가?

Stop

입술을 안쪽으로 말아 넣었다

해석: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 맞춰봐

큰일났다. 당신과의 섹스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당신이 뭔가 잘못된 거다.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가 이런 표정까지 지었다면 현재의 대처 상황을 극한 상황으로 끌고 갈 생각이라는 뜻이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것.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정을 짓기도 하기 때문에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하고 오히려 다그쳐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다. 귀찮으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더라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든가.

Stop

그녀가 당신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

해석: 매너상 좋은 척 해주는 거야

그녀가 당신을 향해 웃었다. 그녀가 웃고 있으니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그녀가 혹시 가짜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 진짜 만족해서 짓는 미소는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사라진다. 반면 가짜 미소는 재빨리 나타나고 재빨리 없어진다. 그리고 가짜 미소는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섹스인지 아닌지 보라는 말.

Go

높고 빠르게 말한다

해석: 좋았어

하이톤의 목소리는 그 사람이 흥분해 있다는 뜻이다. 긴장하고 있을 때 목소리 톤이 높아지게 되지만 매우 기쁠 때도 하이톤이 된다. 그녀가 높고 빠르게 말하는 건 당신이 매우 잘했다는 신호다. 아이, 좋아. 🍷

Hot Sau



The Helpful Hottie

2012년 미국판 Miss Maxim인 Hometown Hotties 결승 진출자 린지 쉐넬의 고민 상담소.



옛 여친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를 해야 하나요?

-Nick Madi
지금 여자친구가 있다면 하지 마세요.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트위터로도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솔로인 데다 조금 외롭기까지 하다면 연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끝내주는 오물캐트를 만들려면 필 필요하나요?

-Andy Krasinski
전 바삭바삭한 베이컨을 한가득 넣어요. 뭐가 더 필요한가요?

쓰레기봉투를 매일 해집어 놓는 고양이들을 쫓는 방법이 없을까요?

-Ross Mallace
개네도 먹을 게 없나 뒤적거리는 거예요. 정 귀찮다면 설사약을 탄 우유라도 놓아두세요. 아마 당신 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을걸요?

항수 대신 공기 청정제를 뿌리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Richard Cohen
물론이죠. 하지만 여자들은 당신이 택시기사인 줄 알 거예요.

애완용 새를 구입하려고 해요. 여자들도 좋아하나요?

-Jason Seccomb
글쎄요. 새가 당신의 성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새들은 시끄럽고 더럽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요?

새치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죠?

-Peter Jones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원래 나이 들어 보이는 중년 남자에겐 속없는 어린 여자가 많이 꼬이는 법이죠. 아버지 콤플렉스가 있는 여자를 공략하기엔 좋을지도 몰라요!

ce



PHOTOGRAPH ZOE MCCONNELL

Stuff

디펜딩 챔피언 iPad mini

방어전인줄 알았는데 챔피언 결정전이었네?

→ 국내 아이폰5의 반응이 시원찮다. 이제 시장에는 훨씬 적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관촬은 스마트폰들이 많고, 경쟁자들이 내세운 대형 스크린폰은 예상보다 훨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항상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내놓던 애플의 위엄은 자취를 감췄다. 시장이 심숙된 탓도 크지만 잡스 없는 애플은 확실히 예전보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호사자들이 '위기'니 '몰락'이니 입을 놀리기에 참으로 적당한 시기다. 애플의 새로운 수장 팀 쿡이 이끄는 애플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전보다 방어를 택했다. 아이폰은 소심하게 0.5인치만큼 길어졌을 뿐이고 아이패드에는 프그라든 불일미냥 작아졌다. 잡스의 유산을 우려먹었을 뿐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중요한 기로에서 악수를 두는 듯 했다. 그런데 아이패드 미니가 대박을 쳤단다. 오잉?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잡스가 "도착하자마자 죽는다 (Dead on Arrival)"고 했던 7.9인치 아이패드 미니 말하는 거 맞아?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망할 거라고 저주에 가까운 혹평을 내렸던 그 아이패드 미니? 애플은 당초 600만 대의 판매를 예상했지만 부랴부랴 1,200만 대로 예상치를 조정하고 부족한 물량 걱정을 하고 있다. 미니 16GB 제품은 당장 주문해도 2주 후에나 받아볼 수 있을 정도다. 없어서 못 파는 거다. 언론에서 아무리 숫자놀음을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애플 제품에서 매력을 느낀다. 실제 미니를 만져보면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디자인적 성공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아이패드 미니에 별다른 확신을 가지지 못하던 에디터가 실제 미니를 만져보고 이 제품이 왜 잘 팔릴 수밖에 없는지 정리해보았다.

아이패드 미니가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

1. 가볍다

태블릿의 본질은 포터블, 가벼워야 한다. 레터나 아이패드까지 두 제품을 모두 소유한 사람도 점차 미니를 들고 나가게 된다는 후기에 주목해야 한다. 화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휴대하기 편해야 한다는 거다. 아이패드가 무거워서 불편했던 사람이 산다.

2. 작다 or 적당히 크다

아이패드가 남성의 백팩이나 서류 가방 사이즈였다면 미니는 핸드백용이다. 대화면 모바일 트렌드에서 그동안

여성들은 아이패드 대신 갤럭시 노트를 샀다. 7.9인치 미니는 여성들의 조그만 핸드백에서도 빛을 발하는 최신의 사이즈다. 결국 신규 여성 유저층이 미니를 산다.

3. 최초의 리디자인 아이패드

아이패드가 처음 등장한 후 다섯 번째 만에 최초로 디자인이 바뀌었다. 아이패드 미니는 아이패드의 후속이라기보다는 더 커진 아이폰 5에 가깝다. 아이폰에서 호평 받은 모서리 빛면 커팅은 여전히 미려하고, 탄탄한 유니 보디의 만듦새는

진용 가방이나 파우치도 필요없을 정도다. 하지만 백미는 알아진 베젤의 폭이다. 덕분에 화면도 더 커 보이고 훨씬 세련돼 보인다. 영상을 보거나 전자책을 읽을 때 디바이스로 본다는 느낌이 덜해 훨씬 몰입감이 높다. 결국 아이패드 가진 사람들이 또 산다.

4. 아이패드 전용 앱을 그대로 사용

알다시피 7인치 태블릿 시장에는 이미 경쟁자가 많다. 하지만 경쟁자들은 스마트폰용 앱을 그대로 쓰는 수준이지 전용 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5.5인치

LCD TV로 (남극탐험) 한다는 거다. 반면 미니는 기존에 출시된 27만 개 상당의 앱 사이즈에 맞춰진 전용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써본 사람은 안다. 전용 앱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5. 저렴한 가격

42만 원이라는 가격에 경쟁기에 비해 결코 싼 편은 아니다. 하지만 9.7인치 아이패드에 비해서는 반값이고 아이패드 터치(39만 원, 32GB)보다는 딱 2만 원 더 지불하면 된다. "어라? 생각보다 싸네?" 하면서 일반인도 그냥 한번 사본다.



GEAR OF THE MONTH

SO SEXY IT HURTS!

비키니 하의 Victoria's Secret
robe
Urban Outfitters
MAXIM • JANU



ARIANA CELESTE

청량해서 피 타지에 싸우
 신을 더 흥분시키는 게
 리아나 셀레스티 아
 금까지 그녀는 너
 데로 유랑인을 찾
 여신 아리아나
 할 수 있

SO SEXY

SO SEXY IT HURTS!

리아나 셀레스티의 Victoria's Secret
 시종 Babe
 신발은 Urban Outfitters
 66 MAXIM • JANUARY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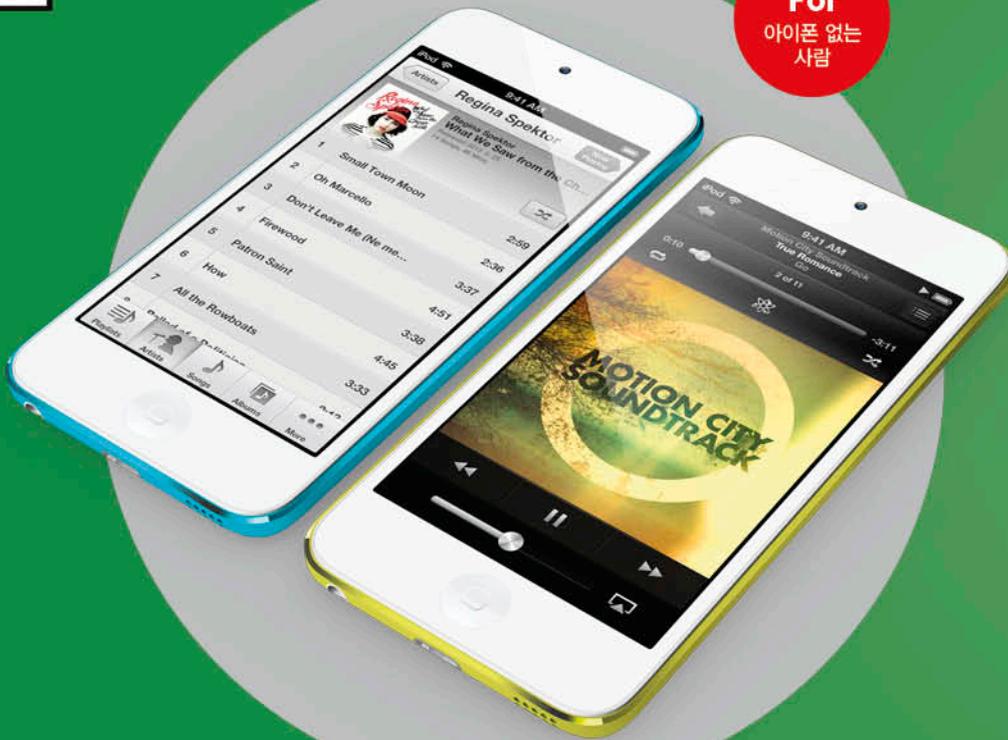
미니 좀 더 기다려 볼까?
레티나 미니 떡밥
 벌써부터 잔뜩을 뿌리긴
 싶지만 분명 언젠가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차기작이
 나올 것이다. 시간과 타이밍
 문제다.

BY 송동민 PHOTOGRAPH ARC STUDIO LAYOUT 전은경

Only for Music

스마트폰의 편의성 때문에 어느새 음질은 포기하고 지내지 않았는가? 전용 플레이어만의 고음질이 그리운 사람들을 위해 대표적인 휴대형 뮤직 플레이어 다섯종을 테스트해 보았다. 음악은 역시 음악 전용기기로 들어야 제 맛 아니겠어?

테스트에 사용된 노래 재생해 봐 너도



For 아이폰 없는 사람

애플 아이팟 터치

디지털 음원이 최대의 시장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과연 애플 때문일까, 단지 시대의 흐름일 뿐이었을까? 이 답이 먼저냐 달갑히 먼저냐 같은 논쟁이 어떻게 끝난던 간에 애플이 디지털 음원 시장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무서운 시장의 지배자는 2001년 아이팟 발매 이후 한 번도 챔피언의 자리를 내놓은 적이 없다. 그 원동력은 별거 없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다.

2012년 발매된 아이팟 터치 5세대(이하 아이팟)는 아이폰이 시장 웨어를 나눠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컬러로 차별화했다. 스펙으로는 아이폰 5의 업그레이드지만 디자인만큼은 오히려 아이폰을 능가한다는 평가다. 다만 음악 감상

전용인 만큼 '본체에 다음 트랙으로 넘길 수 있는 물리적인 버튼을 추가했다더라' 같은 사소한 아쉬움이 든다.

아이팟의 음악적 특성은 플랫(Flat)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1세대 아이팟에서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전통으로 음장효과나 강력한 EQ 탑재를 목표로 하는 대부분의 경쟁자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해상력이 엄청나다던지 하는 두드러진 특징은 없지만 전 영역에 걸쳐 고른 출력이 유지되며 음색이 튀지 않고 부담이 없다. 음장 능력이 뛰어난 플레이어와 번갈아 비교해서 들어본다면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로 그 플랫한 특성 때문에 오래 들어도 편하고 질리지 않는다. 사실 음장 기능은 미웁(조미료)

과 같아서 당장은 흥미롭게 느껴지지만 장시간 듣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 수많은 리스너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도 특색 있는 음장이 아쉽다면 '앱스토어'에서 유명한 EQ 앱을 다운 받으면 될 일이다. 앱에 의해 전혀 다른 소리로 변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괜찮은 EQ 앱이 출시되는 운영체제가 인기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가격 32GB 399,000원

MAXIM 평가

→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다가도 다른 기기들을 듣다가 다시 들으면 '아이팟이 이렇게 좋았나?' 싶은 생각이 꼭 든다.

For
워크맨
빠들이



소니 NWZ-F806

한 때 워크맨으로 포터블 뮤직 플레이어 시장을 평정했던 소니지만 자존심 상하게도 디지털 뮤직 시장에서는 도전자일 뿐이다. 하지만 소니가 결코 만만한 도전자는 아니다. 'S-Master MX' 라는 고품질의 디지털 뮤직 전용 앰프의 탑재로 뛰어난 노이즈 억제력과 더불어 상당한 해상력을 자랑한다. 특히 중·고음역대의 섬세한 해상력은 미세한 기타 리프의 떨림을 원음에 가깝게 재현한다. 대신 저음부의 박력은 떨어진다. 소니를 아는 사용자라면 "지금 소니 클리어 베이스 무시하나여?"하며 발끈하겠지만 F800 시리즈의 클리어 베이스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엉터리다. 이미 전작인 X1000 시리즈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단계를 올릴수록 사정없이 저음이 공개된다. 저음을 강조하는 리시버와 매칭하면 저음이 너무 과해 못 들어줄 정도다. 굉장히 간소화된 EQ 덕분에(?) 마음에 드는 소리를 만들려면 꽤나 골치가 아플 거다. 풍성한 양감과 해상력 등 기본기는 좋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아쉽다.

F800 시리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채택한 두 번째 워크맨이지만 여전히 그 효용성에 관해서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스마트폰의 단점만 잔뜩 가져왔다. 연속 음악 재생 시간이 짧다든지, 항상 켜져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 전력 소모가 심한 것은 모두 여기서 비롯된 단점들이다. 또 안드로이드로 힘을 발휘하려면 소니가 직접 개발한 앱이 다양해야 할 텐데 그럴 여력까진 없어 보인다. 그나마 소니의 테이프 워크맨 시대 명기들을 3D 그래픽으로 시뮬레이트 해주는 '클래식 워크맨' 앱은 제법 흥미롭다. 현재 재생 중인 곡이 테이프처럼 돌아가고, 플레이어의 각종 버튼들은 실제로 클릭 가능하다.
가격 32GB 339,000원

MAXIM 평가

→ 디지털 워크맨 시대에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지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 좋은 재료들을 덕지덕지 기워놓은 것 같다. 그래서 더 아쉽다.

코원 X9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속 사라져버린 PMP 스타일 디바이스. 제법 큰 4.3인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지만 지원하는 코덱도 적고 프로세서가 느려 동영상 재생은 별로다. 무엇보다 도트가 튀는 게 보일 정도로 떨어지는 해상도 때문에 동영상은 애초에 포기하게 된다. 노래만 잘 들려주면 된다지만 기왕 있는데 조금 더 좋았다면 하는 게 사람 욕심. 조금 작더라도 컨셉추얼하게 고화질 앨범 아트를 보여줄 수 있는 전용 스크린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하지만 코원의 경쟁은 음악 그 자체에 있다. 명기로 칭송받는 D2 시절부터 코원은 끝장나는 음장으로 유명했다. X9에는 그 완성형이라 할 수 있는 제트이펙트 5.0 버전이 탑재되어 그 명성을 이어간다. 강력한 EQ 프리셋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제트이펙트는 기본적으로 마련된 프리셋 메뉴가 경쟁 기종 중 가장 다양하다. 특히 BBE+저음 부스트 음장들이 발군의 성능을 발휘한다. 누군가는 공간감이

아쉽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풀어지지 않고 탄탄하게 응집된 음색이 마음에 들었다. 날아서 있다기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맘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유저 커스텀 메뉴에서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세세하게 손볼 수 있는 EQ 설정을 만져주면 된다. 무엇보다 뮤직 플레이어 본연의 가치는 재생 시간에서 드러난다. 경쟁 제품의 재생 시간이 짧으면 20시간에서 길어야 50시간에 비해 무려 110시간 연속 재생을 보장한다. 어딜 가나 충전 콘센트부터 찾는 스마트 노에 시대가 불만이라면 이만큼 든든한 녀석이 없다.
가격 32GB 249,000원

MAXIM 평가

→ 스마트폰을 능가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고집이 느껴진다.

For
베이스
신봉자



Stuff

Music Player

아이리버 아스텔앤컨 AK100

320x240의 작은 감압식 터치 스크린, 번들 이어폰조차 들어있지 않은 심플한. 오직 음악 재생밖에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기계를 69만 원이나 주고 산다는 것을 과연 보통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리버 아스텔앤컨의 타깃은 어차피 그들이 아니다. AK100은 디자인부터 콘셉트가 확실하다. 알루미늄 질삭 가공에 고급스러운 헤어라인이 가미된 디자인은 고급 오디오용 앰프를 떠올리게 한다. 골수 오디오 팬들을 노렸다는 거다. 아날로그 볼륨 노브까지 보면 확신범이다. 음질에는 더 신경을 썼다. 울프슨(Wolfson)사의 최상위 DAC을 내장해 테스트 제품 중 유일하게 24비트 192kHz의 고스펙 음원을 재생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가장 좋은 음질이라고 알고 있었던 CD가 16비트 44kHz라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다. 스튜디오에서 마스터링해서 나온 음원을 CD에 날기 위해서는 손실 압축을 해야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라졌던 디테일한 소리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뜻이다. 기존 음원 재생 실력도 좋다. 테스트 중 칭찬했던 Adele의

'Skyfall'에서는 웅장하게 저음을 울려주면서도 현악기 하나하나의 해상력 또한 돋보였다. 그 와중에 보컬이 또다시 앞으로 나서는 것이 놀라울 지경이다. 이정도면 같은 음원 맞나 싶다. 더욱 기대되는 것은 아이리버가 플레이어와 동시에 론칭하는 고음질 음원 판매 사이트 '그루버스'다. 더 이상 해외 사이트에서 이름도 모르던 아티스트의 연주 음악을 뒤질 필요가 없어졌다. 그루버스에서 최신 아이들 그룹의 음반까지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고음질로 즐기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것이 AK100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다. 하지만 MQS라 명명한 이 음원들은 멜론 정액 결제만 하던 이용자들에게 놀라 자빠질만한 가격표를 달고 있다. 또한 단지 MQS라는 이름만 달고 있는 저질 앨범도 많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국내 상업 음악들이 녹음 품질에 그만큼 큰 공을 들이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증거다. AK100을 대중에게 추천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투자한 만큼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는

For
오디오 덕후 or
얼리 어덕후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을 분명 만족시킬
것이다. 가격 32GB 699,000원

MAXIM 평가

→ 마니아의 장난감이라는 느낌이 들진
나치 마켓을 잘 파고들었다. 아이리버의
용감한 도전을 응원한다.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5.8

애플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터치 조합이 있다면 삼성에는 갤럭시와 갤럭시 플레이어(이하 갤럭시)가 있다. 이름처럼 5.8인치에 거대한 스크린 사이즈가 시작부터 경쟁자들을 압도한다. 테스트에 등장한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액정에만 쏙 들어갈 정도로 크다. 딱 봐도 멀티미디어에 더 집중했다는 인상이지만 삼성이 자체 개발한 사운드 얼라이브 음향효과가 음악에서도 수준급 성능을 발휘한다. 사운드 얼라이브는 삼성 제품을 예전부터 써왔던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DNSe의 완성형 음향 기술이다. 사용자가 직접 베이스와 고음 명료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3D 입체 음향, 리버브 레벨, 음 사이즈를 설정해 콘서트홀 같은 스테이징 감각을 만들 수 있다. 음악에서 현장감과 공간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다. 음악의 왜곡이 싫다면 사운드 얼라이브를 '일반'으로 설정하면 애플처럼 플랫폼 성향으로 돌아선다. 소리가 뭉치지 못하고 다소 풀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해상력과 박력만큼은 아이패드를 압도한다. 하지만

이때도 완전히 사운드 얼라이브가 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청취 시 귀가 빨리 피로해 질 수도 있겠다. 갤럭시 5.8은 마치 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공식 스펙 발표는 없지만) 헤드폰을 마음껏 울리지 못한다는 인상을 줬다. 저음 순발력이 떨어지거나 볼륨을 너무 많이 올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런 단점은 이어폰으로 청음했을 때는 깔끔하게 사라졌다. 청음에 사용한 두 리버브(소니 헤드폰과 아토믹 플로이드 이어폰)는 음악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 둘 사이를 오가려면 세팅을 전혀 다르게 해야 했는데, 코원처럼 음상 프리셋을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다. 가격 32GB 479,000원

MAXIM 평가

→ 떨어지는 출력과 화이트노이즈만
아니었다면 일등 먹을 수도 있었을텐데.

For
콘서트
마니아



Spec Check!

	아이팟 터치	NWZ-F806	X9	AK100	갤럭시 플레이어 5.8
디스플레이	2.4인치 320x240	3.5인치 800x480	4.3인치 480x272	2.4인치 320x240	5.8인치 960x540 TFT LCD
음장 시스템		DSEE, 클리어베이스 등	BBE+		SoundAlive™
크기, 무게	58.6x123.4x6.1mm 88g	57x114.6x 8.9mm 100g	72.5x114.9x12.2mm 159g	59.2x79x14.4mm 122g	85.9x165x10.8mm 221g
재생 시간	40시간	25시간(MP3 128kbps)	110시간	16시간(FLAC, 16bit, 44kHz, Vol 50%, EQ/LCD off)	65시간(음량 7, EQ off, MP3 192kHz)
운영 체제	iOS 6.x	구글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구글 안드로이드 4.0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가격 (32GB 기준)	399,000원	339,000원	249,000원	699,000원	479,000원

MAXIM's Summary!



애플 아이팟
터치 5세대

플랫한 사운드 성향 덕에 음질 튜닝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리시버를 고르면 고소란히 그 리시버의 특징을 재현한다. 이는 애플의 전 기종 공통이다. 단지 "어떤 기기가 출력이 더 높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헤드폰을 쓴다면 출력이 높은 아이패드가 유리하다.



소니 NWZ-F800
시리즈

소니의 안드로이드 선택은 득보다 실이 많다. 전통의 음향 업체답게 기본기는 훌륭하지만 부가적인 요소들이 점수를 까먹는 형국이다. 앞으로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 상황이 나아질까? 솔직히 부정적이다. 소니는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업체였으니까.



코원 X9

볼륨 버튼이 전혀 생동 맞은 곳에 있긴 하지만 오랜만에 물리적인 트랙 선택 버튼을 만지는 기분은 꽤 좋았다. 전체적으로 '유행이 지났다'는 느낌이지만 그만큼 음악이란 기본기에 충실한 점이 마음에 든다.



아이리버
아스탈엔진 AK100

디바이스나 리시버나 고급기로 올라갈수록 플랫한 성향으로 발전한다. AK100은 원음에 최대한 충실하면서도 애플을 능가하는 해상력으로 보다 따뜻하고 섬세한 소리를 낸다. 돈 값 한다고 느껴려면 그만큼 비싼 리시버를 들려줘야 한다는 게 함정.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5.8

사운드얼라이브 기술은 명불허전이지만 이것 때문에 음악 감상용으로 갤럭시를 선택하기엔 역시 너무 크다는 점이 걸린다. 갤럭시탑을 대신할 멀티미디어 장난감으로 선택한다면 모를까, 이 사운드가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라!

테스트 음원 소개



Adele - Skyfall

영화 <007 Skyfall> 주제가. 영국 출신의 여성 보컬 아델과 77인조 오케스트라가 함께 녹음한 장대한 현악 연주가 압도적인 대곡이다. 높은 해상도가 필요함은 물론 전 영역대를 고루 울려야 하는 현악 선율 특유의 까다로움 때문에 재생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편.



Ellie Goulding - Lights

우리가 빌보드 차트에서 사이만 찾고 있을 때 엘리 굴딩도 본국인 영국에서보다 미국에서 훨씬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리드미컬한 신디사이저 비트 위에 가성과 진성을 오가는 보컬의 독특한 음색이 만나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테스트 리시버



아트믹 플로이드 파워팩스

탄탄해 보이는 메탈 유닛과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케이블러 소재 직조 케이블. 여기에 강렬한 색상만큼이나 자극적인 V형 사운드를 들려준다. 자유분방하지만 당당한 영국 젊은이(악쟁이) 같은 느낌의 이어폰. 가격 195,000원



소니 MDR-1R

아무나 가질 수 없는 '1' 넘버링을 차지한 소니의 신작 헤드폰. 명기라 칭송 받는 MDR-E888의 디렉터 '츠노다 아이카타'가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흥분하는 팬들이 있을 거다. 목직한 저음과 풍부한 양감에 어울리지 않게 높은 해상력을 갖춰 밸런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들려준다. 가격 349,000원

그거 왜 샀어? #5

지름 품목: 푸그니 온수매트

얼마 전 실연당한 대학생 인턴 한 마리가 이별의 시린 가슴을 데워줄 전기매트를 구입했다.

구매자카드



구매자: 대학생 인턴 최성준

구매 가격: 298,000원

구매 동기: 정자를 지켜줄, 애인 같은 따뜻한 존재가 필요했음

구매 만족도: 

부러움 지수: 

M

→ 도대체 이젠 왜 산 건가?
 여자친구도 떠나고 울겨울 내 자취방은 유난히 추웠다. 오래된 주택이라 그런지 난방비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오는 통에 보일러도 마음껏 못 틀고 지냈다. 27년 만의 한파라던 12월 어느 날, 추위에 떨다가 잠에서 깬데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이더라. 이별의 시린 마음을 데우기 위해 물리적인 문명의 힘이 필요했다.

어디서 얼마 주고 샀나?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GS홈쇼핑에서 푸그니 온수매트를 보게 됐다. 쇼 호스트의 폭풍 말발에 홀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동 주문 전화를 걸고 있었다. 싱글 사이즈로 29만8,000원에 무이자 12개월로 구매했다. 정가는 32만8,000원이었다. 이런 걸 바로 득템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 나 잘났다.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설명해달라.
 한마디로 전기 열선 대신에 온수관이 매트 전체에 깔려 있다는 거다. 매트에 달린 호스를 밥통같이 생긴 작은 온수 보일러에 연결하고 물을 한 통 넣으면 끝이다. 보일러를 켜면 물이 데워지고 그 온수가 온수관을 돌면서 난방을 해준다.

잘못 밟았다가 온수관이 픽 터져버리라고 하면 큰일 아닌가?
 뭐, 자취방에서 양쪽 강 범람 재현하는 거지. 그런 우려를 GS 측에서도 의식했는지 방송 내내 무조건 안전하다고 매트 위에서 방방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을 보여줬다. 니중에는 애들이 집신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

난방의 핵심인 물은 언제, 얼마나 채워야 하나?
 1.5리터 페트 한 병 정도를 넣으면 겨울 내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센서가 온수 저장고의 상태를 바로 바로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 반도 채우지 않았는데도 센서에는 물이 가득하다고 나오다가, 뚜껑을 닫고 전원을 켜면 다시 물이 반밖에 안 들어갔다고 표시된다. 사람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붓고 기다리고 붓고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비소로 안락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인생의 진리를 온수매트로 깨달았다.

그냥 전기장판 쓰면 될 텐데... 사서 고생이다.
 전기장판에서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발생하는지 아는가? 혹시나 내 정자들이 약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이 온수매트는

전기열선이 없어서 전자파 걱정 따윈 하지 않아도 된다. 내 정자는 소중하다.

써보니 뭐가 가장 불편했나?
 매트 부피다. 이 싱글 매트를 처음 받았을 때는 안에 원앙금침이라도 들어 있는 줄 알았다. 온수관이 들어 있어서인지 잘 접하지 않아서 어디 보관하기도 부담스럽다. 매트 재질도 맘에 안 든다. 메시 소재인데 미끄러워서 그런지 이불이 자꾸만 밀리더라. 짜증나서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깔지 않고 매트 위에서 잔다. 사실 이건 중요치 않다. 이 매트는 전자파가 안 나오니까...

푸그니 온수매트... 이름만큼 정말 따뜻하냐?
 찢찢 끓는 온물 바닥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푸근하고 따뜻하다. 온수가 가운데만 도는지 가장자리는 얼음장이라는 건 별로지만... 가장자리만 따뜻하고 가운데는 얼음장이 아닌 게 어딘가.

어떤 사람에게 이 매트를 추천하고 싶은가?
 따뜻한 매트 위에 배 깔고 누워서 만화책 보는 호사를 누리고 싶은 전국의 백만 자취생.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 줄 여자친구 없다고 괜히 찬 바닥에서 자면서 궁상 떨지 말자. 입 돌아간다. 병원이기 온수매트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온다. 



시베리아 벌판에서 글을 까먹어도 안 죽을 것 같다.

Stuff

Woman With a Tool

이것이 렌치다!

→ 옆집에 사는 예쁜 여대생이 갑자기 찾아와 "파이프를 손봐줄 도구가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한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뭘 손봐달라고? 니 파이프를? 내 도구로? 지금 당장? 우리 집, 너네 집? 더러운 상상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여자가 처한 각종 기계적 문제를 푹푹딱딱 해결해주는 남자는 은밀한 파이프 구경을 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소개한다. 굵은 파이프를 절단할 때 유용한 이 대형 렌치는 길이 약 152cm에, 아가리의 크기와 힘은 사나운 투견 같다. 무자비하게 파이프를 절단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 갖다 대기만 해도 파이프가 "제발 목숨만 살려주소!" 하며 절할 거다. 주로, '이런 데서 뭘 여자를 만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유나 농공업 시설에서 쓴다. 대형 렌치를 현실에서 쓸 일은 없겠지만, 언제 갑자기 당신 집이 <7광구>나 <타워>의 배경이 되거나, 혹은 작년에 안 온 종말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 하나 구비해둬도 괜찮겠지? rigid.com, \$326

←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구. 위치 선정이 아주 훌륭하다.

MAXIM 뽐뿌질

언니, 얼마까지 알아봤어?

아이패드 미니와 찰떡궁합, 벨킨 쉬어 매트 케이스
내 소중한 아이패드 미니에 스크래치가 날까 마음 졸이고 있다면 웃을 입혀자. 벨킨에서 출시한 아이패드 미니 전용 커버 케이스인 쉬어 매트가 그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 슬림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몸체를 걸돌지 않는 피팅감이 특징인 이 케이스는 스크래치와 충격에 약한 아이패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줄 것이다. 무광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하며 반투명 클리어와 블랙의 두 종류로 구성된다.
24,900원, 벨킨(02-2088-7306, www.belkin.com)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이어폰, 젠하이저 IE 800

헤드폰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으로 인정받은 젠하이저 IE 800이 CES 2013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관련업계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디자이너, 엔지니어, 기자단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평가로 시상돼 더욱 신뢰도가 높다. IE 800은 젠하이저의 기술력을 총동원해 고급 헤드폰에서나 가능한 고품질의 음질을 이어폰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5~46,500Hz의 폭넓은 대역폭을 재생하여 현장감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세계가 최고라고 인정한 이어폰 IE 800, 음악 애호가라면 꼭 한 번 사용하고 싶은 잇 아이템이다.

119만 원, 케이원에이브이(02-553-3161, www.koneav.com)



플러그 앤 플레이 뮤직 재생, UCube Speaker

전세계 최고의 음향기기를 수입하는 ㈜로이코에서 PC 전용 스피커 유큐브(UCube)를 소개한다. USB 포트 연결만으로 바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 재생 방식이라 심플하고 휴대성도 좋다. 또 컴팩트한 크기의 스피커로 어느 공간이든 세팅이 가능하고, 유행을 앞서는 컬러와 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마구 자극한다. 특히 스피커에 설치된 BMR(Balanced Mode Radiator) 드라이버가 음향이 스피커 전면이 아닌 사용자 주변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을 전해 사용자에게 황홀함을 선사한다. 제품은 실버, 레드, 블랙 컬러로 선보인다.
23만 원, ㈜로이코(02-335-006, www.royco.co.kr)



가수 강민경,

질레트 퓨전 프로글라이드 새 모델 발탁

청순하고 섹시한 미녀가 나의 거친 수염을 매끈하게 면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유이나, 김사랑에 이어 강민경이 질레트 3대 여성모델로 등극했다. 면도기 광고는 남성모델을 기용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아리따운 미녀를 통한 저지극 면도로 남자의 감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면도기를 사면 강민경을 주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참자.) 여자가 먼저 다가가 키스를 하고 심을 만큼의 멋진 피부를 만들기 위해선 질레트 퓨전 프로글라이드만한 면도기가 없으니 참고하자.

질레트(080-920-6000, www.gillette.co.kr)



안전까지 보장하는 급이 다른 집전화, 스마트홈 폰 HD

KT가 다양한 기능을 자랑하는 스마트폰 형태의 집전화, 올레 스마트홈 폰 HD를 출시한다. 유선과 무선 통신망을 하나의 IP로 통합하고 강력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통해 끊김 없는 HD 음성, 영상 통화를 제공한다. 갤럭시 노트2(5.5인치)보다 큰 5.8인치 대형 화면과 고품력 전용 스피커를 채택해 집에서도 영화관이나 콘서트 홀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집을 비울 경우, 모션 센서가 작동해 집 안에 이상한 움직임 감지하고 미리 등록된 휴대폰에 상황이 문자로 전송되는 기능까지 갖췄다. 안전까지 책임지는 스마트홈 폰 HD, 이젠 혁신이다.

올레닷컴(080-237-7979, www.olleh.com)

넓혀서 사용 가능한

레노버 다인용 테이블 PC

레노버에서 선보인 다인용 테이블 PC는 더 이상 사람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지 않는다. 여러 명이 동시에 터치 가능한 멀티 터치 기능에 27인치 와이드 스크린을 넓혀서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여러 명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위해 디지털 주사위(e-dice), 조이스틱(joy stick), 스트라이커(striker)와 같은 특별한 게임 액세서리 세트를 함께 제공한다.
레노버(www.lenovo.com)



Motor

CAR OF THE MONTH



글쎄, 이유가 뭘까?

2월의 주인공 2013 Cadillac ATS

ATS가 처음 공개되던 날, 촬영기자 대신 카메라를 들고 남산 하얏트 호텔에 동행한 김희성 에디터 왓. “캐딜락은 그 여감이 정말 남자답고 멋진 거 같아요. 이름부터 날카롭게 각진 느낌이랄까? 전 왜 ‘캐딜락’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죠?”

차는 달리는 걸 봐야지

BY 유승민

그래? 아들을 낳으면 ‘유 캐딜락’이라고 지어야하니? 그리고보니 캐딜락은 이름도, 디자인도 마치 잘 커팅한 16캐럿 다이아몬드같은 느낌이다. 여자들 가슴 뛰게 하고 다니느라 바빴는지 너무 오랫동안 캠퍼 무대다. CTS 쿠페와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이 2010년 말에 같이 나왔던 걸 기억하면, 드림카 두 대를 한꺼번에 토해놓고 무려 2년 2개월동안이나 공백기를 가진 셈이다. 군대라도 다녀왔나? 현장엔 GM KOREA 장재준 사장과 한국GM의 세르지오 호샤 사장이 나란히 자리했다. GM KOREA 와 한국GM, 이름 순서만 다른 두 회사가 따로 운영

되는 이유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가 GM 그룹에 인수되기 전부터 캐딜락을 한국에 판매하는 현지 법인으로서의 GM KOREA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우차가 ‘GM대우’라는 이름의 과도기를 거쳐 GM브랜드 중 하나인 ‘쉐보레’로 개명하면서 캐딜락은 GM KOREA가, 쉐보레는 한국GM이 맡는 모양새가 된 거다. 그런데도 작년에 부임한 쉐보레 CEO 호샤가 이 날 메인 프레젠테이터로서 캐딜락의 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사실상 양 사가 그의 지휘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직원 40명 규모의 캐딜락보다 2만 명

규모의 쉐보레 수장이 우리나라의 GM총사령관인 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호샤 사장이 캐딜락 신차 발표를 주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신차가 없었으니 당연한 건가). 캐딜락의 대 변신을 예고한 이 브라질리언 사령관이 안그래도 박터지는 준중형 시장에서 어떻게 명차의 위상을 회복시켜 나갈지 엄청 기대된다(김우중 할아버지 보고 계셈? 이번엔 브라질 사람이래). BMW 3시리즈와 벤츠 C클래스의 라이벌전에 도전장을 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다음이인 캐딜락이라는 흥미진진한 사실만으로도 <이달의 차>는 너무도 명확해진다. 🍷

MAXIM
시승기
#25

2013 Ford Fusion

이야, 차 좋네. 2박 3일간 신나게 시승한 후, 숙제를 하기 위해 노트북 앞에 앉았다. “다른 기자들은 얼마나 잘 썼나 한번 볼까?” 인터넷을 까적이며 남의 시승기들을 읽었다. 제길, 애스턴 마틴을 달았다는 생각은 나만 한 줄 알았는데! 시승기 대부분이 애스턴 마틴과 007을 들먹이며 퓨전의 디자인을 읊조리고 있었다.



응, 그 애긴 됐고



디자인으로 울킴

자동차를 논할 때 크게 디자인과 성능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애초에 객관적 평가 기준이란 게 있을 수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보통 비교적 조심스러운 평을 내리는 반면, 성능에 대해서는 아박하리만치 칼같은 평가를 내리곤 한다. 온갖 수치로 동급 차종과 비교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오히려 절대 점수를 줄 수 있는 건 성능보다는 디자인 쪽이다. 왜냐고? 수치를 갖다대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

동차의 성능이라는 게 마치 시소와도 같아서 한쪽에 공을 들이면 다른 쪽이 부실해지기 마련이다. 같은 차를 놓고도 시승한 기자가 짤들이면 연비에 집중해서 경제성을 결코 넘어질 것이고, 기자가 스피드광이면 왜 더 기똥차게 튀어 나가질 못하느냐고 결코 넘어질 거다.

하지만 디자인은 좀 다르다. 오히려 수치로 계량화될 수 없다 보니, 참이나 거짓이나를 따질 수가 없고 다수의 판단이 한 쪽으로 쏠리면 그것이 보편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을 놓고 수

학 문제를 풀라고 했을 때 다수결로 정답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100명의 사람을 놓고 아름다움을 논하라고 했을 땐 다수가 택한 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것과 같다.

남들이 써놓은 시승기를 한참 읽다가 놀란 건, 내가 본 중 새 퓨전의 디자인이 구리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대 포르쉐도 어느 정도 취향을 타는데, 이만큼 칭찬 일색인 디자인은 근 몇 년간 푸조 RCZ 이후로 처음이다. 정말 보기 드물게 만점에 가까운 디자인이 하나 나온 거다.



SPEC CHECK

배기량 1,999cc (가솔린)	엔진 형식 직렬 4기통	최대 출력 234마력	최대 토크 37.3kg·m	구동 방식 앞바퀴 굴림	변속기 자동 6단	차체 길이 4,870mm	공인 연비 10.3km/L(4등급)
----------------------	-----------------	----------------	-------------------	-----------------	--------------	------------------	------------------------

절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능에 대한 찬사를 얻는 차는 '명차'가 되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찬사를 얻는 차는 '아이콘'이 된다. 지프 랭글러나 폭스바겐 비틀처럼 말이다. 에이,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중형 세단의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다. 다른 세그먼트에선 디자인 승리 공식이 딱 나와있다. 경차는 귀여우면 끝나고, 오프로더는 무지막지할수록, 대형차는 회장님 간지가 흐를수록, 스포츠카는 납작하고 문짝이 이상하게 열릴수록 영광한다. 그런데 이 중형 세단이라는 동네가 참으로 모호하기 짝이 없어서 밀도 끝도 없이 '무난하면서 멋있어야 한다'는. 조금만 영하게 가도 출랑댄다고 외면당하고, 조금만 점잖게 가도 밋밋하다고 외면당한다. 잘해야 50점인 이 까탈스런 중형차 시장에서 느닷없이 나타난 이 미국 차가 거의 100점을 찍고 있는 거다.

고지식한 시골 청년

더 놀라운 건 그 미국 차가 포드라는 사실이다. 포드는 미국의 국민차이고 그들에게 지금껏 어떤 감성으로 어필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참으로 밋밋한 차였다. 불과 몇 달 전의 퓨전, 몬데오가 그랬고, 2010년으로 넘어오기 전의 포커스와 토러스, 이름도, 생김 것도 너무나 비슷해 구분하기도 힘들던 익스플로러-이스케이프-익스페디션 익익익 삼형제, 그 뿐인가? 몇 년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컨츄리한 팻팻팻 삼형제(파이브헌드레드-프리스타일-프리스타)까지... 솔직히 좋게 말해 '우직하다'였지, 세상 차들 변화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도 투박했다. 세상 물정 모르는 텍사스 시골 청년이 탈 것 같았다. 절정을 찍은 건 바로 옐로캡. 흑자는 옐로캡을 두고 뉴욕의 낭만이니 뭐니 하지만, 에디티가 뉴욕에 있을 때 눈만 돌리면 사방 천지에 널려있던 더러운 누렁 택시가 바로 포드의 '크라운 빅토리아'였다. 뉴욕

모든 택시가 다 그 차였는데 엄청 길다는 것 외엔 아무 감흥도 생기지 않았다. 누군가 에디티에게 포드는 어떤 차냐 물었던 적이 있다. '그. 낭. 자. 동. 차'라고 답했다. 대책없는 연비 탓에 안 그래도 미국 차가 외면당하는 한국 시장에서 국산차보다 밋밋한 디자인의 포드는 더욱 고전했다. 포드는 비싸게 수입차를 모는 대가로 누려야 할 과시욕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성

그런 포드에서 이런 디자인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어느 순간 포드는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다. 연비는 좋아지고 가격도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거다. 당장 이번엔 시승한 퓨전만 봐도 예코부스트라는 기술로 2,000cc 배기량에 최대 234마력, 최대 토크 37.3kg·m라는 말도 안되는 성능을 발휘한다. 보통은 3,500cc 정도는 되어야 나오는 수차다. 이 성능에 복합 연비 10.3km/L이면 거저다. 여차피 프리우스 산 거 아니잖아? 사람들이 조금씩 포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앞에 나온 <MAXIM 선정 이달의 차> 캐딜락 ATS도 그렇고 미국 차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것들... FTA될 때까지 숨기고 있었군.

퍼즐의 마지막 조각

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그냥 '멋진 것'만으로 부족하다. 한국에서 잘나가는 수입차 브랜드로 완전히 굳히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그게 뭐냐고? 바로 그 브랜드만의 '확고한 아이덴티티', 쉽게 말해 '캐릭터'다. 걸그룹 하나에 들어가려 해도 귀여움이든 섹시함이든 청순함이든 뭐 하나를 담당해야 퇴출을 면하는데 하물며 드라이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팔리리' 캐릭터를 하나 잡고 있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니 포드가 어울려', '포드를 타면 이런 사람으로 보이겠지?'

해야 되는 거다.

포드는 이제 하나의 확고한 캐릭터가 필요하다. 기존의 고지식한 캐릭터 말고, 다른 브랜드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면서도 매력적인 캐릭터 말이다. 뭐가 있을까? 인기있는 콘셉트는 이미 질나가는 수입차 브랜드들이 하나씩 꿰차고 있는데 포드가 빼앗아 올 수 있는 캐릭터가 있을까? '귀여움'은 미니가 담당하고 있고, '럭셔리'는 벤츠랑 BMW가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고 있고, 볼보는 '不死'의 이미지에, 인피니티는 미끈하고 잘 놀게 생겼다. 토요타나 혼다는 성실한 대기업 회사원 이미지, 아우디는 좀 느긋한 허세남이고, 폭스바겐과 푸조는 일들함과 친환경의 상징이 되어 차에서 풀이라도 자랄 기세다. 그 이상은 이미 대중적인 영역이 아니라 콘셉트 자체가 '돈'이다.

할 게 없다고? 아직 하나 없는 게 있지. 바로 터프 아이. '진짜 남자다운 남자' 캐릭터가 아직 남아있다. 포드는 마지막 남은 이 티켓을 거머쥐고 자동차판의 터프가이가 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포드에 하나 있지 않나. 머스탱이라는 거친 수컷이 말이다. 시대가 메트로섹슈얼을 요구하는데 그런 구닥다리 싸나이 캐릭터가 먹히겠냐고? 물론이다. 당장 MAXIM이라는 잡지가 그러하고, MAXIM을 읽는 독자들이 그러하다. 호전적이고 거침없는 수컷의 본능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초성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MAXIM의 등장은, 온 세상 미디어들의 메트로섹슈얼 찬양에 지친 수많은 남성들의 열면 지지를 받았다. MAXIM이 그간 억눌려온 원초적 남성성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미 야생마를 한 마리 기르고 있는 포드가 이제 그 야생마에 '007 제임스 본드'를 태웠다. 익스플로러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거친 짐승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변화가 느껴진다. 어쩌면 MAXIM이 그랬던 것처럼, 포드가 잡아야 대상은 아직 길들여지지 거부하고 있는 '진짜 남자'들이지도 모른다.

BY 유승민 LAYOUT 전은경 COOPERATION FORD KOREA





HONDA CROSSTOUR

혼다의 크로스투어는 대접에 담긴 비빔밥처럼 모든 차의 장점을 담은 차다. 게다가 2013년형 크로스투어는 한국인 취향에 맞게 외관과 실내를 부분 변경했으니, 마지막으로 고추장까지 얹은 셈이다. 얼마나 맛있게 비벼졌는지 어디 한번 맛 좀 볼까?

→ 딱 중간은 없나?
에디터는 스노보드 마니아다. MAXIM에서 일하기 전엔 3개월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라면만 먹으며 눈밭에서 텅굴었으니 거의 폐인 수준이나 다름없다. 보드 탈 땐 좋았어도 스키장을 왔다갔다 운전했던 걸 생각하면 악몽을 꾸 것 같다. 스키장 진입로가 대개 산길이고 눈밭이 심해 어지간한 차로는 미끄러지고 도저히 통제가 어렵다. 게다가 스키장까지 두 시간은 죽히 걸리는 시간을 꼼짝없이 차 안에서 보내야 하는데, 엉덩이가 여간 질편해지지 않는 것도 문제였다. SUV를 끌고 다니자니 장시간 운전을 하면 소음도 신경쓰이고 피곤하다. 그렇다고 세단을 끌고 다니자니, 장비 싣기도 힘든 데다가 눈길에는 핸들이 확실히 돌아갔다. 두 차의 딱 중간인 차가 필요했다.





MAXIM

굳이 엄동설한
에 야외 촬영
하는 바보들





SPEC CHECK

배기량
3,471cc(7슬린)

엔진 형식
V6 3.5

최대 출력
282hp

최대 토크
34.8kg.m

구동 방식
앞비퀴굴림

변속기
자동 6단

차체 길이
5,015mm

공인 연비
9.9km/L(4등급)

4,690 만 원

아이라인을 그리다

수입차 시장에 들쭉날쭉하지는 아니어도 산들바람 정도의 CUV 바람이 불고 있다. 세단의 편안함과 5도어의 실용성을 한데 모은 차들이다. 이들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하나에 담았다는 의미로 '크로스오버' 또는 장르 파괴자를 의미하는 '세그먼트 버스터(Segment Buster)'라 불린다. 이미 해외에서는 2005년부터 CUV가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국내에서는 '수입차는 세단이지'라는 인식이 강해 이제야 눈길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포츠퉈리티차량(SUV)이 가고 세단과 미니밴의 장점을 결합한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유가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기름 먹는 하마'로 악명이 높은 SUV는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그 자리는 CUV가 대신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혼다 크로스투어가 처음 출시된 2010년 당시, 미국 시장에서는 '정말 못생겼다'는 혹평을 받았다. 게다가 간판모델 CR-V에 비해 가치치기 모델쯤으로 여겨져 판매가 여의치 않자 성형외과를 들락거리더니, 2012년 오프로드적인 거친 범퍼를 달고 날카로운 헤드라이트를 번뜩거리며 다시 나타났다. 가인도 눈매를 올리면 예뻐진다고, 결과는 성공적이어서 미국 시장의 판매가 경중 증가했다. 여세를 몰아 토요타의 벤자, 스바루의 아웃백 등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골판양 아우디 울로드 쿼트로의 따귀도 살짝 건드려보고 싶은 게 혼다의 심정일 것이다.

남자라면 등쌀이지

크로스투어는 앞에서 보면 세단, 뒤에서 보면 쿠페, 옆에서 보면 해치백인 모한 디자인을 갖췄다. 아이언맨이 배트맨 망토를 걸치고 거미줄을 내뿜는 모습이랄까. 사진으로는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 등쌀이 조폭 뺨치게 어마어마했다.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170cm대 초반인 에디터가 옆에 섰더니 꼬마신랑처럼 작게 느껴진다. 차체 길이는 5,015mm로 현대차 에쿠스(5,160mm)에 필적할 만큼 크다.

덕분에 주차하고 나면 다른 차보다 한 뼘은 족히 튀어나와 주차를 잘못된 건지 여러 번 확인하기도 했다. 그만큼 경쟁 차종 벤자나 아웃백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가졌다는 얘이기도 하다. 전장은 벤자나 아웃백보다 길다. 이는 산타페보다 훨씬 큰 베라크루즈에 가까운 대형 SUV 넓이의 실내공간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뒷좌석이 접이식으로 2열을 필요에 따라 모두 접을 수 있어 스포츠용품, 아웃도어 용품을 모두 대려 박고도 유모차까지



핸들에 달린 패들시프트로 기어 변속하는 맛이 쏠쏠하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가끔 차 뒤에서 거사(?)를 치를 일이 생기는 레일 수컷이라면 이점에 주목하라. 카마스트루에 나온 어떤 자세도 가능할 것 같았으니까.

소리 없이 강하다

12월 3일, 서울에는 맑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눈이 쏟아졌다. 연이어 45년 만에 찾아온 한파 콤보로 쌓인 눈이 곳곳 얼어붙었다. 출근길 살금살금 걷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빙판 위에서 트러플 악셀을 시전했다. 이런 날 차를 시승해야 한다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며 셀카를 찍고 싶었다. 차에 앉아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온열 시트가 엉덩이를 따뜻하게 달궂어주니 흐릿한 낯이 나오며 기분이 좋아졌다. 눈길도 이렇게 달궂어주면 참 좋으련만... 시승을 위해 차를 몰고 영종도로 향했다. 서울을 벗어나 인천공항까지 뺑 돌린 인천공항고속도로는 고속 주행을 체험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코스다. 차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살며시 패달을 밟았는데 큰 소음 없이 순식간에 140km/h까지 올라가서 깜짝 놀랐다. 혼다의 어코드에 적용됐던 ANC(Active Noise Control) & ASC(Active Sound Control) 시스템이

크로스투어에도 같이 적용되어 차량 소음을 최대한 줄여준다. ANC(능동 소음 제어장치)는 실내로 유입되는 외부의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고 ASC(능동 소리 제어장치)는 주행 중 들어오는 불쾌한 소음의 반대 주파수를 만들어 상쇄시키는 시스템이다. 혼다가 소음 차단을 위해 연구원을 꽤 붙였는지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다. 다젤엔진 특유의 소음이 신경쓰여 SUV 구입을 망설였던 드라이버라면 입이 떡 벌어질 만치 만족스러운 점이다.

공인 연비가 9.9km/L라고는 하나, 시승하면서 확인한 실주행 연비는 7km/L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에쿠스만 한 차체를 굴리는 데 이 정도 식성이라면 나쁘지 않다. 서스펜션은 혼다의 일반적인 차량 느낌과 다르지 않다. 훌렁거리는 게 없이 약간 쭈뼛하다고 느껴졌다. 어코드 세단보다 차체를 높여서 서스펜션의 오르내림도 길어졌다. 코너링 때 차체가 다소 기울어지긴 하지만, 이런 서스펜션 때문에 울퉁불퉁한 주행이 안락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로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영종도 공사판을 신나게 휘젓고 다녔지만 꼬리뼈가 전혀 시큰거리지 않았으니까.

포커 게임

최근 혼다의 눈빛이 달라졌다. 혼다는 숨겨둔 조커를

꺼내듯 2012년 하반기부터 파일럿, 오디세이, 크로스투어, 시빅, 5D, 신형 어코드 등 판매 차종을 부지런히 늘려왔다. 시장에서의 지력을 더 적극적으로 키우겠다는 심산이다. 물론 크로스투어가 로티플이 될지 원페어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나 확실한 건 에디터처럼 주말마다 산으로 들로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역마살 낀 젊은 수컷들에게 크로스오버는 참 괜찮은, 풀하우스 정도의 패라는 점이다. 직장 상사에게, 여자친구에게 달달 뉘이면서 쌓인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힐링하기 위해 아웃도어로 떠나는 길, 세단처럼 편안하고 SUV처럼 힘 좋은 크로스오버만한 동행자도 찾기 힘들 테니 말이다. 물론 예쁜 동승자가 있으면 더 좋고(여친 말고) 



쿠팡?



해치백?



트렁크엔 농구 선수도 들어갈 것만 같다.



이대로 그냥 스키장으로 가면 안 돼나?

Motor news

볼보자동차, 보행자 에어백 탑재한 V40 출시

볼보자동차 코리아가 오는 3월 세계 최초로 보행자 에어백을 탑재한 5도어 해치백 V40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전방에 탑재된 7개의 센서로 부딪힌 대상이 무엇인지 감지해 대상이 사람으로 판단되면 그 즉시 제어 장치로 신호를 전달. 보닛과 전면 유리에서 에어백이 작동해 부상을 완화한다. 볼보 V40은 유연한 측면 바디라인에 전면부를 낮게 설계해 당당한 모습을 표현한 해치백 모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선 그래도 안전 운전이 먼저겠지?

볼보자동차 코리아(www.volvocars.co.kr)



쌍용자동차 코란도C 10만대 판매 기념 스페셜 모델 출격

쌍용자동차는 코란도C 판매 10만대 달성을 기념해 상품성을 강화한 스페셜 모델을 출시한다. 날개 모양의 엠블럼을 넣어 특수한 모델임을 강조했다. 또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과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1&2열 온열 시트 등의 각종 편의사항을 탑재했다. 코란도C 스페셜 모델은 리미티드와 비트 두 가지 모델로 전국 영업소에서 판매에 들어간다. 연비 17.2km/h를 실현하여 SUV 중 가장 효율적인 연비를 자랑하는 코란도C! 스타일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은 코란도C의 공공 행진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585만 원(리미티드), 2,195만 원(비트), 쌍용자동차(www.smotor.com)



메르세데스 벤츠 The new CLS Shooting Brake 국내 최초 출시!

메르세데스 벤츠가 CLS-Class의 신화를 이어갈 5도어 쿠페 The new CLS Shooting Brake 모델을 국내 최초 출시한다. 이번 모델은 CLS-Class를 재해석한 새로운 컨셉의 5도어 쿠페다. 길게 뻗은 보닛과 루프라인은 후미까지 이어져 차체를 길어 보이게 하며 뒤쪽 펜더의 솔더 근육을 따라 볼륨감을 살린 엉덩이는 근육질의 뒤편을 보여준다. 국내에는 47통 디젤엔진과 7단 자동변속기에 ECO 스타트/스톱 사양을 넣었다. 스포티함과 실용성까지 갖춘 벤츠! 안목 있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 잡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www.mercedes-benz.co.kr)



럭셔리 세단의 다크호스, 캐딜락 ATS 한국 상륙!

해외 매체 및 기관들로부터 잇따른 수상과 호평을 받은 캐딜락 ATS가 드디어 국내에 출시된다. 이번 모델은 2리터 4기통 직분사 터보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272마력의 강력한 힘과 제로백 5.7초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한다. 게다가 노면상태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감지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기능을 장착해 주행 안정성과 최적의 승차감을 선사한다. 최고의 사양과 기능으로 국내 첫 출시되는 ATS! 그의 첫 한국 진출에 행운을 빈다. Good luck!

4,750만 원(럭셔리) 5,200만 원(프리미엄), 캐딜락(www.cadillac.co.kr)



한국 토요타 두 번째 벤자 스타일러는 누구?

한국 토요타에서는 스타일 리더들과 함께 토요타 벤자만의 새롭고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고자 벤자 스타일러를 선정해 6개월 동안 벤자를 제공한다. 첫 번째 벤자 스타일러로는 UFC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동현 선수를 선정할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스타일러로는 배우 이기우를 선정했다. 김동현 선수가 강렬하고 다이내믹한 SUV의 역동성과 잘 맞는 이미지였다면, 패셔니스타로서의 세련됨이 돋보이는 이기우를 이번 모델로 선정할 것. 이기우는 벤자 스타일 홍보 대사로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좋겠다. 차도 받고! 나도 나도! 토요타 페이스북 벤자 스타일러 스토리(www.facebook.com/toyotakorea)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3개월 정기 구독	6개월 정기 구독	12개월 정기 구독	24개월 정기 구독	36개월 정기 구독	48개월 정기 구독
정가 35,400원	정가 70,800원	정가 141,600원	정가 212,400원	정가 283,200원	
아싸 좋구나!	3천 원 할인 1000떡 적립	7천 원 할인 2000떡 적립	1만 5천 원 할인 4000떡 적립	3만 원 할인 6000떡 적립	5만 원 할인 8000떡 적립
정가 17,700원	할인가 32,400원	할인가 63,800원	할인가 126,600원	할인가 182,400원	할인가 233,200원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떡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떡=1원)

Style

Dial It Up

시간 지키기를 블랙&화이트처럼 요렇게 딱 떨어지게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

1. Nixon 세라믹&스테인리스

스틸 워치
\$2,340, nixon.com

2. Seiko 솔라 스테인리스

스틸 워치
\$265, seikousa.com

3. Luminor 네이비실 칼라마크

3057 화이트 아웃 스톤
패트를 워치
\$350, luminor.com

4. Tag Heuer 카레라 칼라브레

1887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5,300, tagheuer.com

5. Tissot PRX 크로노그래프

스포츠 워치
\$595, tissotshop.com

6. Swatch 뉴젬트 화이트 레벌 워치

\$70, store.swatch.com

7. Bulova 프리시저니스트 롱 우드

컬렉션 퀸츠 워치
\$450, bulova.com

8. Jorg Gray 3700-13 사파이어

코팅 K1 미네랄 크리스탈 글라스
스테인리스스틸 워치
\$595, Jorggray.com



PHOTOGRAPH: JEFFREY WESTBROOK



9. Swarovski 피자자
그란데(대 광장) 쿼츠 워치
\$900, swarovski.com

10. 88 Rue Du Rhone 더블 에잇
오리진 컬렉션 쿼츠 크로노그래프
\$580, 88rdr.com

11. ESQ Movado 엑셀 스위스
쿼츠 크로노그래프
\$595, esqmovado.com

12. Michael Kors 45mm 마이클
코어스 러버 스트랩 크로노그래프
\$195, michaelkors.com

13. Hamilton 인트라-매틱
오토매틱 타임피스
\$845, shop.hamiltonwatch.com

14. Bell&Ross 빈티지 BR126 팬텀
메카니컬 오토매틱 워치
\$4,600, bellross.com

15. RADO 하이퍼 크롬 크로노
XXL 오토매틱 워치
\$4,200, radoshop.com

16. Longines 레전드 다이버
\$2,300, shop.us.longines.com

Scent of A Man 7일간의 향수 일주

여자 에디터의 남자 향수 시향기



On Weekdays

1. 백스터 브라바도 3

한겨울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는 기분을 주는 시트러스 향은 에브리데이용 향수로 쓰기에 딱이다. 여기에 라벤더 향이 더해져 하루 종일 여자 친구를 안고 다니는 착각을 선사한다. 이 정도면 상사에게 깨지고 달려도 꽤 위위가 되겠는걸?
100mL, 120,000원

2. 도나카렌 디케이엔와이 맨 오데 트루왈렛

'차도남'의 향기가 이런 걸까? 생기 넘치는 베르가못 향과 신묘한 느낌의 백단향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스키 세트 슈트를 갖춰 입은 남자에게 이보다 잘 어울리는 향기는 없다.
50mL, 68,000원

3. 에르메네질도 제냐 포르테

시작은 꿀 빠는 듯 달콤하지만, 마무리는 의외로 맵싸하다. 거래처와의 미팅 전, 인상은 '훈훈'하지만 일 처리는 '칼'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이 향수를 주문처럼 뿌려보자.
50mL, 85,000원

4. 조르조아 아르마니 베티베 바빌론 오드 트루왈렛

베티베 나무 향이 온화하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사람 많은 화식 자리에서 이 향수로 존재감을 어필하라. 어느새 여직원들 사이에서 당신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어쩐지 끌리는 마성의 남자가 되어 있을 거다.
100mL, 21만 원대

5. 토미 힐피거 오드 프렘 토미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쏟아진 업무에 지친 직장인에게는 오드 프렘 토미를 추천한다. 레드 자몽을 한 입 크게 베어문 듯한 특 쓰는 향이 당신을 불금모드로 변신시켜 줄 테니까.
50mL, 55,000원

재킷 지오송지오 타이 시스템 옴므



7

8

9

10

6

8. 더바다샵 화이트 머스크 포 맨 오드 투왈렛

여자(사람)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녀들이 좋아할 만한 떡밥으로 무장하라. 재스민 향과 함께 지속하는 은은한 머스크 향은 당신의 어장 속 여인들을 살찌우기에 관찰은 미끼다.

100mL, 34,000원

9. 할프로렌 폴로 블랙 오드 투왈렛

어두컴컴한 클럽에서 주목받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달나라 흙어 집에서 맡아볼 법한 특이한 향수는 넣어두고, 클래식한 아로마로 승부를 겨루자. '낮선 남자'에게서 나는 구남친의 향기에 그녀도 절로 뒤를 돌아보게 될걸?

75mL, 76,000원

10. 잭블랙 블랙마크 오드 퍼퓸

소개팅 후 2~3번의 데이트,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히말라야 신나무 향기를 풍기는 미스터리한 남자는 결코 '뻥'한 놈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빠를 더 알고 싶어.

100mL, 105,000원

On Weekends

6. 에르메네질도 제나 지 제나

주말 오후, 여유롭게 수영이나 스쿼시를 즐기는 스포츠맨에게는 꼭 쓰는 화이트 페퍼 향이 어울린다. 운동 후에도 잔잔하게 남아있는 피츨리 향은 밤 '냄새'도 밤 '내음'으로 만든다.

50mL, 80,000원

7. 두카티 파이트 포미 오드 프왈렛

터프한 바이커가 의외로 섬세한 감성을 지녔다? 여자는 그 순간 그에게 반한다. 몬스터 두카티와 바이올렛 임사귀와 풋사과향의 만남은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50mL, 44,000원

00005691016, 에르메네질도 제나, 토미 힐피커, 두나카향(02-3440-2774), 조프르렌(080-02-3332), 더바다샵(02-759-0721), 백스타(1641-5107), 두카티(02-423-3203), 시스텔 돌비(02-546-7109), 지오송지오(02-516-5611), 씨퍼컴퍼니(02-3446-9949)

영수
확인
코



Style news

추운 바람 완벽 차단!

컬럼비아(Columbia) 골런 다운 재킷

컬럼비아에서 칼바람을 강력하게 막아주는 골런 다운 재킷을 출시했다. 골런 다운 재킷은 컬럼비아가 자체 개발한 '옴니윈드 블록' 소재를 채택하고 거위털을 넣어 보온력을 높였다. 또 후드에 풍성한 라코퍼를 달아 바람 들어올 틈을 주지 않게 설계했다. 소매 부분의 프린팅 된 컬럼비아 로고와 어깨 부분의 외편 장식은 캐주얼 한 멋을 더욱 살렸다. 점점 더 추워지는 요즘, 따뜻한 재킷은 필요한데 '북극의 얼굴 짐바'는 내키지 않는다면 컬럼비아 골런 다운 재킷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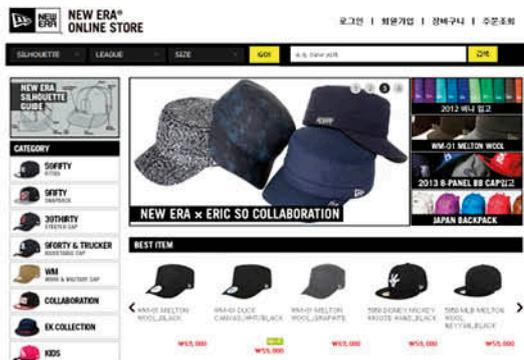
698,000원 컬럼비아(02-540-0277, www.columbiakorea.co.kr)



포인터(POINTER) 서퍼 로사 슈즈로 댄디남 변신!

스니커즈 셀렉트 샵 플랫폼에서 영국 스니커즈 브랜드 포인터가 서퍼 로사 슈즈를 선보인다. 그레이와 네이비 색상으로 구성된 포인터 서퍼 로사 슈즈는 EVA 아웃솔 소재를 밑창에 사용해 무게를 가볍게 했다. 또 브랜드 네임을 음각 처리하고 재봉선의 색상을 브랜드 네임과 동일한 컬러로 맞춰 클래식한 매력을 확보했다.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 새 신발이 필요하다면 플랫폼을 방문해 보자.

169,000원, 플랫폼샵(platformshop.co.kr)



뉴에라 사이트를 통해 이제 손쉽게 정품 캡을 갖하라!

정품 모자를 클릭 한번으로 구입하고 싶다면 뉴에라 코리아의 온라인 스토어를 주목하라. 기존의 제품은 물론 새롭게 출시되는 컬래버레이션 제품들과 의류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또 모자 사이즈 측정 방법과 자신과 어울리는 모델을 찾는 가이드도 있어 뉴에라 캡 입문자도 쉽게 자신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게 구성했다. 특히 공지 카테고리들 통해 신제품 출시 소식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해 수집과 소장 욕구가 많은 고객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 특징. 뉴에라 정품을 뉴에라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편리하게 만나보자.

뉴에라 코리아(02-547-5950, www.neweracapkorea.com)

신학기 맞이 필수 아이템, 카파 백팩 출시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카파가 2013년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스타일의 백팩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심플함이 돋보이는 스퀘어 백팩으로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사용해 가방 모양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어깨 끈에 쿠션을 넣어 어깨와 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하고, 자석 버클을 사용해 가방을 열 때 편리함을 더했다. 또 노트북, 아이패드 등의 수납공간 외에도 별도의 수납공간이 있어 활용도를 높였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겸비한 카파 백팩은 총 6가지 색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카파(www.kappakorea.net)



2013 계사년 기념, 뉴발란스

574 스네이크팩 슈즈 출시

뉴발란스에서 계사년을 기념해 강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뉴발란스 574 스네이크팩을 출시한다. 뉴발란스 574 스네이크팩은 뱀을 모티브로 한 한정판 제품이다. 신발의 발끝 부분부터 뒤꿈치까지 뱀피 무늬를 둘러 세련되고 특별한 느낌을 주었으며 금색 엠블럼을 추가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난 엔캡(ENCAP)기술을 탑재해 뛰어난 착화감까지 제공한다. 레드, 그린, 블랙 총 3종이며 전국 뉴발란스 매장에서 한정으로 판매된다.

109,000원, 뉴발란스(02-2028-6869)



툼 포드(TOM FORD)에서 선보이는 아이웨어 TF5254

툼 포드에서 도시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의 안경테 TF5254 모델을 선보인다. TF5254는 동그란 라운드 모양의 프레임에 톰 포드 특유의 시크한 감성을 담았다. 특히 가벼운 초경량 아세테이트 소재를 채택해 가벼운 착용감을 제공한다. 다양한 색상으로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맞춰서 쓸 수 있다. 전국 백화점 및 면세점에서 만나 볼 수 있으니 아이웨어 구입을 생각한다면 추천하는 제품이다.

세원 I.T.C(02-3218-8310)

Watch out!



스포티한 야외 활동을 위한 ALBA Active Gents AU2074X

ALBA에서 스포츠 워치 Active Gents AU2074X 모델을 선보인다. 블랙 컬러의 케이스에 로즈 골드 컬러를 조합해 심플한 것에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 입체적인 문자판을 채택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고 가시성을 확보했다.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의 1/5초 단위 크로노그래프 기능에 날짜 표시 기능을 더해 정확하게 기록을 체크할 수 있게 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 ALBA의 Active Gents AU2074X는 스포츠 시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37만 원, 삼성시계(02-511-3182)



헬다이버 SB2C-1002M 시리즈 리론칭!

총알 모양 용두와 시원한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며 품절되었던 헬다이버 SB2C-1002M 시리즈가 새롭게 보완돼 출시되었다. SB2C-1002M 시리즈는 미네랄 코팅 글라스에 스테인리스 스틸 총알 용두로 헬다이버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시리즈다. 특히 이번 업그레이드 시리즈는 메탈 스트랩을 채택해 헬다이버만의 청량한 디자인을 극대화했다. 또한 측면 로고 각인과 문자판 로고를 더욱 입체감 있게 표현해 디자인을 보완했다. 블랙 컬러의 BK 모델, 일명 '서인국 시계'라고 불리는 로즈 골드 컬러의 RGBK 모델과 세련된 실버 컬러의 SIL 모델로 구성해 선택의 폭도 넓혔다.

389,000원, 에이맨인터내셔널(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



SEIKO의 DNA를 탑재한 제이 스프링스, BFC 라인의 투톱이 떴다!

SEIKO의 새로운 브랜드인 제이 스프링스에서 블랙 케이스의 두 가지 모델을 제안한다. 블랙 도금 케이스에 아쿠아 블루 색상을 넣어 시원한 느낌이 특징인 BFD055 모델과 강렬한 레드 색상으로 어디서나 돋보이는 BFD057 모델이 그 주인공. 두 모델 모두 10 기압 방수 처리를 하고 크로노그래프를 넣어 편의성을 확보했다. 자신의 개성에 맞게 색상만 선택하면 된다. 출시 이후 가장 반응이 뜨거운 BFD055와 BFD057. SEIKO의 보장된 기술력에 새로운 디자인을 만나고 싶다면 제이 스프링스를 기억하자.

성원(02-3445-4603)

잉거솔 그랜드 캐니언 워치를 상당히 요구하라.

각종 기념일을 잘 챙겨줬다면 이번 밸런타인데이에는 여친에게 한뼘 챙겨보자. 독일 워치 잉거솔에서 클래식한 멋의 그랜드 캐니언 IN6900RWH 모델을 제안한다. SBS <힐링캠프>에서 박시후가 착용해 화제가 된 모델로 브라운 컬러의 고급 가죽 스트랩에 화이트 문자판, 로마자 숫자 표시를 넣은 클래식한 디자인에 날짜 표시 기능,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넣어 실용성을 높였다. 유행에 따르지 않는 기본 아이템으로서 손색이 없는 모델. 어서 기사를 폰으로 찍어 그녀에게 전송하자. 뒷감당은 물론 당신의 몫! 후.

거노 코퍼레이션(02-3397-7100, www.eurotime.kr)



로즈 골드가 대세! 자스페로 CASELLI 라인 출시

로즈 골드의 세련됨을 물씬 느끼고 싶었던 고객들을 위해 자스페로에서 로즈 골드 컬러로 전체를 꾸민 CASTELLI 라인을 새롭게 출시했다. 다른 색상에 포인트 컬러로만 사용하던 로즈 골드를 전면에 배치해 고급스러움을 높였다. 요일, 날짜를 표시하는 멀티 크로노와 낮과 밤을 표시하는 문페이스를 채택하고 이중입체 다이얼을 사용해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해졌다. 또 가죽 밴드와 호환이 가능해 실용성을 겸비했다. 문자판에 사용한 초콜릿 컬러가 밸런타인데이 선물 아이템으로도 적당하다.

438,000원(CG101.18 모델),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

모험을 꿈꾼다면, NEW 루미녹스 8825KM 워치

미국 해군과 공군에 의해 실제 군 작전에서 착용되는 루미녹스 워치 브랜드에서 밀리터리 컬러로 보강한 새 모델 Luminox 8825KM을 내놓았다. 그린 컬러의 나토 스트랩을 채택, 손목에 착 감기는 높은 착용감을 보이며, 수심 200m 방수 기능은 물론 루미녹스 발광 테크놀로지를 갖추었다. 특히 루미녹스 발광 테크놀로지는 자기 발광형 가스 캡슐을 내장해 별도의 동력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유지한다. 빛의 수명이 25년 동안 지속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기술. NEW 루미녹스 8825KM은 배낭여행이나 산행의 동반자로 손색이 없다.

369,000원, 미림시계(02-757-9866, www.milimwatch.co.kr)



조끼 스투시 by 피나클
셔츠 엘레먼트 by 훈자야
팬츠 티투엠 진 by 훈자야
운동화 뉴발란스 by 피나클



이원종

촬영 내내 이원종과 주거니받거니하며 얼큰하게 취한 MAXIM 스태프가 외쳤다.
“아, 이 형 진짜 죽이네!!!”



포털사이트 프로필에 직업이 배우 겸 농업인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 양주시 송추에 조그마한 시골 농가와 텃밭이 있다. 충남 부여 출신이라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었다. 요즘은 먹거리와의 전쟁 아닌가? 우리 식구들이 먹을 음식 재료는 내가 키운 걸로 싸야지. 그리고 농사짓는 일만큼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게 없다.

그동안 거처온 직업 중에 '젓갈장사'란 직종은 참 비린내 나면서도 신선하다.

지금 잘나가는 내 또래 배우는 대부분 그런 장사 한두 번 안 해본 친구가 없을 거다. 연극 두세 편 해봤자, 백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데 가족 부양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나.

그래서 돈벌이가 좀 되던가?

아기 분웃값은 물론이고 젓갈 장사하면서 전셋집 한 채를 샀으니 꽤 번 셈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장 서는 거 있잖나? 그게 다 짜고 들어가는 거다. 주인 자치 단장님이나 부녀회장님하고 같이 맥주 한잔 먹으면서 살살 구슬리면 하게 해주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마대 자루에 한 포대씩 돈을 담아 오곤 했으니까.

골프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시트콤 <이글이글>에서 골프 강사역으로도 출연했고, 골프 행사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프로 골퍼로 나설 생각인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깨달았다. '난 신동이구나.' 알아보니깐 배우 생활을 하면서 골프 강사를 병행하면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고 해서 한동안 정말 열심히 쳤다. 정말 절정기가 오긴 왔다. 언더파도 치고 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골프를 즐기지 않고 정복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그만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배우로서 충실하기로 했다.

같이 라운드 하고 싶은 여자 연예인이 있나?

집사람이랑 다니는 것 이외에 여자랑 같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골프다.

아니 왜? 여자 연예인이 "사장님 나이스 샷"을 외쳐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티샷 하는 위치가 다르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리고 나는 내기를 걸지 않으면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여자랑 치는 게 재미없다. 적은 돈이라도 1,000원, 2,000원 걸어야 한 타 한 타에 정성이 들어간다.

학번이 세 개다, 대학을 세 번이나 간 이유가 뭔가? 학력 세탁인가?

다 데모하다 질린 거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시국이 어지러웠으니까... 게다가 난 출신 성분이 아주 좋잖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니까 프롤레타리아 중에도 아주 최고의 조건이지.

극단의 판소리 선생이던 연상의 아내에게 300번이나 대신한 끝에 사귀었다고 들었다. 아내를 넘어오게 한 필살의 비기가 있나? 혹시 협박한 건 아니겠지?

“

처음 피자를 사준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다.

”

스물여덟 살까지 피자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래서 극단에 “처음으로 피자를 사주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그러다 대학로에 있는 피자헛에서 집사람과 처음으로 피자를 먹게 되었다. “선배,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다들 아는데, 저는 저한테 처음으로 피자 사준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근데?”, “선배님이 저한테 처음 사주신 거예요.(소곤) 귀엽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결혼기념일에 피자를 먹는다.(웃음)

그 명칭에 그런 고백이라니 징그럽다.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 콘셉트에 술을 넣었는데 어떤가?

아! 아주 좋다. 정말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은 술이 아닐까 싶다.

재밌는 술자리 에피소드는 없나?

술을 자주 먹다 보면 상대방이 어디서 필름이 끊기는지 보인다. 그 사람이 주사를 부리거나 하면 ‘아, 이쯤에서는 기억 못 하겠구나’ 하고 목 뒤를 한 대 쳐서 기절시켜서 데리고 간다.

그렇게 때려본 연예인이 있나?

광주에서 <네 발가락>이란 영화를 찍을 때인데, 허준호, 박준규와 촬영을 도와주는 조직에 계산 건달들과 술을 먹는데, 준규형이 술에 취해서 “아, 너 강패야?” 하는 거다. 아, 이리다 맞아 죽겠다 싶어 뺨 쳐서 기절시키고 숙소로 데리고 갔다. 하... 이 인터뷰 보고서 보복할지도 모르겠는데?

<편의 전쟁> 마동포처럼 실제로 돈을 잘 빌려주는 타입인가?

이거 집사람이 알면 큰일 나는데, 집사람 몰래 빌려줬다 못 받은 게 3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사업 아이템이 괜찮은 친구한테는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다. 광고도 무료로 찍어주고 말이다. 그 사람이 의리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힘없을 때 도와주겠다.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군.

뿌린 건 많은데 아직 수확이 없다. 그거 다 집사람이 모르는 돈인데...(웃음)

이원종에게 MAXIM은 무엇인가?

첫 경험. 화보는 처음이니까. 사실 매우 두려웠는데, 무척 신나게 촬영했다. 내가 술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술을 잔뜩 갖다 놨는지.(웃음)

이원종에게 남자란?

남자는 가족 사랑이지. 딸들이, 딸 해도 네 편인 아빠가 있다. 사랑한다. ☺





사진으로 보는 이원종 사용 설명서

카메라 내려 놓고
일단 와서 한잔 해



니트 웨일즈패토리 by 훈자야
팬츠 티투엠 진 by 훈자야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은 술이다



이원종

생년월일 1966년 1월 1일
신체 180cm, 80kg(보기보다 가볍다)
가족 술하 2녀

데뷔 1999년 영화
<안정사정 볼 것 없다>
대표작 tvN <뱀파이어 검사>
SBS <편의 전쟁>, <아인시데>
영화 <남자사용설명서>,
<다세포소녀>

수트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COOPERATIONS, 씨피엔터테인먼트(02-516-2778) 홍자아(www.hoonjaya.com) 스푸시, 피나콜, 카시나(02-3444-5487) 오비맥주(02-2148-6000) 해리타저(02-530-7145)



비키니 Mikoh Swimwear

MAXIM  02/2013

CSI: CUTE, SEXY, IRRESITIBLE

CSI의 핫한 수사관 엘리자베스 하노이스, 귀엽고 섹시한 그녀 앞에선 모두 무장해제, 항거 불능 상태가 되니, 이거 이거 엄청 심각한 범죄 아닌개

2000년 첫선을 보인 <CSI> 시리즈는 수갑이 아닌 면봉으로 DNA 샘플을 채취해 범죄를 해결하는 경찰에 대한 환상을 전 세계 시청자에게 심어주었다. 12년 동안 두 개의 스프린트 시리즈를 탄생시킨 <CSI>, 그 원조 격인 라스베이거스 CSI 팀에 드디어 젊고 탱탱한 미녀 수사관이 영입됐다. 신입 수사관 모건 브로디를 연기한 엘리자베스 하노이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시체나 주물럭거리는 여자를 보며 군침을 흘리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예쁘면 됐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 사람아.

그녀의
뜨거운
활약상





엘리자베스 하노이

태어난 곳: 미국 디트로이트
생일: 5월 26일
트위터: @ElisabethHarnois





비키니 Salt Swimwear

“ 나는 고전적인 포르노가 좋다. ”

BY JULIAN STERN PHOTOGRAPH RICHARD BERNARDIN
STYLING ZOE GLASSNER/CELESTINE AGENCY HAIR ROD PRTEGA MAKE LIP SAGE MAITRI

〈CSI〉의 대사엔 어려운 과학, 수사 용어가 준비하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역할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나?

제작진이 촬영 전 실제 라스베이거스의 부검실에서 부검 장면을 코앞에서 보게 했다. 이 직업을 이해하고 배역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카메라 앞에서 놀라 지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당신이 TV 속 연구실에서 만지면 피와 내장은 얼마나 사실적이었나?

진짜 리얼했다. 촉감이 정말 진짜 같았다. 사람 뇌를 실제로 들어봤는데, 우리가 촬영에 쓰는 가짜 뇌가 딱 그 느낌이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의 내장을 빼고는 CSI 촬영용 가짜 장기들이 아마 가장 진짜에 가까울 거다.

극 중에선 총기 전문가로 나온다.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총이 있다면?

45구경이 나한테 딱이다. 처음 쏘본 총은 리볼버였는데, 그 덕분에 사격을 좋아하게 됐다. 총열이 길고 손에도 착 붙어 정확도가 꽤 높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섹시한 영단어는 무엇인가?

음, 이게 섹시한지는 모르겠지만.. '거시기(cock)'란 말을 좋아한다. 나는 절대 남자의 거시기를 '성기'라고 하지 않는다. 그건 '거시기'대. 아, 그리고 '젖(tits)'과 '궁둥이(ass)'란 말도 맘에 든다. 은밀한 부위를 아무렇지 않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웃기면서도 섹시하지 않나?

이상형은?

특별히 이상형이라고 할 만한 타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전형적인 마초 짐승남에게 끌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약간 중성적인 섬세한 남자도 충분히 섹시할 수 있다. 가끔은 정말 반할 것 같은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기기도 한다. 그러니 내가 아주

남자다운 남자에게만 끌린다고는 말 할 수 있지.

여기서 이걸 안 물어볼 수 없군.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는 누구인가?

알리사 밀라노. 드라마 〈참드(Charmed)〉에 함께 출연했는데, 그녀가 날 붙잡는 장면이 있었다. 내 가슴을 덥게 잡던걸?

당신을 달아오르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음, 포르노.

포르노! 특별히 좋아하는 거라도?

그냥 평범한 포르노말이다.

'그냥 평범한' 포르노가 대체 뭔가요?

모르겠다. 수간물은 일단 싫대. 페티시도 싫다. 그냥 평범한 고전 포르노가 좋다. 🍷



세계 맥주 기행: 독일 밀맥주 두 번째 베를리너 바이스

색도 맛도 다양한 이 맥주, 혹시 후레시맨을 알아봤나?



맥주? 샴페인? 정체가 뭐냐?

파리지역이 서울 가리봉동에서 파리바게트를 발견하고 고향의 맛을 찾은 기분이 이랬을까? 1809년 베를린에 입성한 나폴레옹과 그의 병사들은 고향의 샴페인과 비슷한 맥주를 발견하다. 베를리너 바이스(Berliner Weisse)였다. 흑형 X처럼 시꺼먼 맥주가 대부분이었던 당시 특이할 정도로 색이 옅고, 따르면 격하게 거품이 일다가 이내 꺼지는 조루증을 앓는 이 특이한 맥주는 신맛에 가볍고 상쾌해서 타들어가는 갈증을 해소하는 데 그만이었다. 베를린 서민 사이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스파클링 와인'으로 불리던 베를리너 바이스에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북구의 샴페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3리터짜리 맥주잔?

그 당시 맥주는 3리터 들이 대형 유리병에 담겨 나왔다. 하도 커서 별도의 받침대가 필요할 정도였다. 나중에 밀이 평평한 고블릿으로 발전, 오늘날 여러분들이 즐기치게 되는 맥주잔이 되었다.

잔이 왜 필요해?



톡톡 튀는 상큼함이 에이핑크 뽕치네

대부분의 밀맥주가 여름 맥주로 사랑 받지만 베를린 밀맥주에 필적할 상대는 없을 거다. 낮은 알코올 함량(2.5~3.0%), 아주 가벼운 보디, 높은 탄산 함량에 신맛이 두드러진 베를린 밀맥주는 그중에서도 가장 상쾌한 밀맥주로 사랑받는다. 호프의 쓴맛도 거의 느낄 수 없다. 보통의 맥주와는 달리 보존과 청정만을 목적으로 호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단맛은 거의 안 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중해 연안의 갓 짜낸 레몬즙을 연상시키는 강한 신맛이다. 이 신맛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일단 맥주에 신맛을 주는 원재료인 밀 물트, 베를린 일대의 물이 경수라는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 최강 전사인 이유가 단지 사이어인 혈통 때문은 아닌 것처럼(그랬으면 형 라데츠가 카카로트에게 발릴 리 없다), 단지 밀과 경수만으로 신맛의 비밀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손오공에게 근성이 있었다면, 베를리너 바이스에겐 젯산 발효라는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

아아, 젯,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다.

베를린 밀맥주 거품은 왜 조루일까?

이것도 신맛과 관련이 있다. 와인이나 샴페인처럼 강한 산성이 있기 때문에 거품을 유지하는 단백질 조직이 없어서, 잔에 따라올 때는 거품이 일어나다 금방 사라져버린다. 삼가 조의를...

신비로운 젯, 아, 아니 젯산 발효의 비밀

베를린 밀맥주는 발효에 독일의 다른 밀맥주처럼 상면발효 이스트를 사용하는데,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젯산균을 함께 사용하여 알코올 발효와 젯산 발효가 상호보완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은 와인이나 샴페인의 2차 발효 과정과 유사하다. 와인의 경우 사과산이 젯산으로 변하면서 신맛이 보다 부드럽고 복잡미묘한 맛으로 발전한다. 베를린 밀맥주의 강한 신맛은 이러한 젯산 발효 덕분이다. 갓 짜낸 레몬즙처럼 강렬하지만 우유처럼 부드러운 신맛의 비결은 젯산 발효에 있다. 음, 역시 뭐든 '젯'이 들어가면 부드럽고 복잡미묘해지는 법이지.



오, 주여! 베를린 밀맥주에 신의 은총을!

베를리너 바이스의 초기 역사는 베일에 싸여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그노(Huguenot)설이 가장 유력하다. 16세기 초부터 프랑스에서 확산된 신교도(위그노라 불림)들의 교회개혁운동은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망명자를 낳았다. 1562년 프랑스 바시 거리에서 구교도 수령이 창고에 숨어 예배 중이던 신교도를 급습한 이른바 '바시의 학살'이 발단이 되어 위그노전쟁이 일어났다. 1572년 성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로 정점을 이룬 신교도 탄압은 1598년 위그노의 신앙 자유를 보장하는 이른바 '낭트칙령'의 발표로 일단 종결되는 듯 했다. 학창 시절에 딸딸이 치느라 너무 바빴지만, 훗시 기억 나나, 왕권신수설? 왕만이 유일한 신의 대리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강력하게 외치고 실천한 절대군주 루이 14세는 장군신 신내림이라도 받았는지 화끈하게 1685년 낭트칙령을 파기한다. 이 때문에 영국, 네덜란드, 프로이센 등으로 망명한 자가 많았는데, 그 수가 무려 40만 명에 달했다. 지금으로 치면 경북 구미에 사는 모든 시민(41만)이 짐 싸서 이민을 간 셈. 게다가 신교도의 대부분은 근면한 상인·기사·공예인·군인 등이었으므로, 이로 인한 프랑스의 국부 유출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반대로 그들의 대이동에 따라 전파된 프랑스의 선진 기술과 문화는 전 유럽을 살찌웠다. 당시 망명자들이 정착한 곳 가운데 하나는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일대였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북부 독일로 이동하는 와중에 플랑드르 지방을 거치는데, 이때 그곳의 밀맥주 제조방법을 배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플랑드르 지방은 밀맥주의 일종인 람빅(Lambic)로 유명한 곳으로 야생 이스트를 이용한 자연 발효 방법을 사용한다. 베를린 밀맥주가 남부의 바이젠보다 벨기에의 람빅과 스타일면에서 유사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베를린 밀맥주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긴 여정에 대한 신의

은총이었는지도 모른다. 북부 독일에서의 베를린 밀맥주 스타일의 인기와 명성은 확고했다. 당시 베를린 일대에만 700여 곳의 밀맥주 양조장이 있었고 브룬스비크, 하노버, 브레멘 같은 북부 독일의 도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밀맥주를 만들었다고 한다. 브레멘은 오늘날에도 브레머 바이스(Bremer Weisse)라는 이름의 밀맥주를 갖고 있는데, 벅사에서 만든다.

맥주 카테일: 슈스로 연출하는 다양한 맛과 색

"Red or Green?" 여름철 베를린에서 밀맥주를 달라고 하면 주문 받는 사람이 되묻는 말이다.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를 묻는 건 아니다. 빨간색은 나무딸기 슈스(Schuss), 즉 나무딸기로 만든 시럽을 넣은 맥주를 가리킨다. 실제로는 빨간색보다 복숭아 색이 가깝다. 녹색 시럽은 선갈퀴 추출액으로 매우 향이 짙고 레몬즙 맛이 난다. 나무딸기와 선갈퀴는 모두 베를린 인근의 숲에서 자라는 것으로 소프트 드링크를 만들거나 미네랄 워터에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근데 맥주에 왜 과일이나 허브로 만든 시럽을 넣는 걸까? 시럽은 맥주의 신맛을 어느 정도 죽이면서 달콤함을 더한다. 그래서 처음엔 시럽의 단맛을 맛보고 끝엔 맥주 본래의 강렬한 신맛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슈스가 안겨주는 즐거움은 맛에 머물지 않는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슈스의 종류에 따라 맥주의 색, 특히 거품 색깔까지 달라져 보는 즐거움을 준다. 신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캐러웨이 슈납스(Schnapps, 증류주의 일종)를 첨가해 마시기도 한다. 맥주의 신맛을 베이스로 슈스를 이용해 맛과 색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베를린 밀맥주는 일종의 맥주 카테일이라 할 수 있다. 겨울에는 레몬 주스와 섞어 뜨겁게 마신다. 이것이 베를린 토박이들 사이에선 고풍의 특효약으로 통한다.



슈스를 넣은 베를리너 킨들의 모습. 들리나 뽀로로가 그려져있었던 영락없는 어린이 음료다.

어울림 안주는?
신 맥주에는 역시 신 음식이다. 베를린 밀맥주엔 딸기와 같은 새콤한 제철 과일이 알맞다. 피클이 들어간 음식, 예를 들어 피클을 얹어 그릴에 구운 청어도 좋다. 시큼한 요구르트도 잘 어울린다. 음, 곰삭힌 홍어가 출동하면 어떨까?

도자기 용기: 탄산을 보존하기 위한 눈물나는 노력

베를린 밀맥주는 병 숙성(2차 발효)을 거치기 때문에 묵힐수록 맛이 좋아지고 복잡미묘한 맛을 낸다. 2차 발효를 하는 대부분의 병 맥주들이 묵힐수록 맛이 좋아지긴 하지만 베를린 밀맥주는 창고에 수년간 묵힐 수 있는 몇 안 되는 맥주 중 하나이다. 남녘도 최소 두어 번은 합을 맞춰야 공짜이 잘 맞듯, 베를린 밀맥주의 경우 저장한 지 최소 18개월이 지나야 제 맛이 나기 시작한다. 과거 술집 주인들은 밀맥주를 담은 도자기를 지하저장고의 바닥에 묻고 모래로 덮어 숙성시켰다. 온도를 낮추어 폭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유리병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도자기로 만든 병에 맥주를 담아 팔았는데, 이때 코르크 마개로 입구를 막고 끈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이 모두가 맥주의 높은 탄산 함량, 특히 발포성과 연관된 것이었다.



베를리너 킨들 로고. 과음하면 줄지에 애 아빠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 이렇게 무서운 로고는 처음 봤다.

베를린 밀맥주의 르네상스를 기다리며

베를린의 밀맥주는 바바리아의 밀맥주와는 달리 심각한 몰락을 겪고 있다. 한때 번성했던 베를린 일대의 맥주 양조장들은 지금은 **베를리너 킨들(Berliner Kindl)과 ***슐타이스(Schultheiss), 두 곳만을 남겨놓은 채 모두 사라졌다. 2차 대전 이전에 이미 필스너에 시장을 빼앗기긴 했지만 무엇보다 베를린의 분단이 밀맥주의 몰락을 재촉했다. 장벽은 동독 편에 위치한 밀맥주 양조장을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 그리고 독일과 베를린의 재통합은 베를린 밀맥주의 영화를 되살리기에는 너무나 늦게 찾아왔다. 한편으로 독일 남부 바이젠이 부활했듯이 언젠가는 베를린 밀맥주에도 르네상스의 향운이 찾아오리라 믿는다. 아마도 그것은 베를린이 다시 유럽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되찾는 때와 함께 할 것이다. 아직은 힘들겠지만 곧 당신 집 앞 맥주집 테라스에서 시원상큼한 베를린 밀맥주로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날이 오겠지? ☺

**** 베를리너 킨들 맛은?** 더 절제된 듯한데, 신맛과 복합적인 맛이 덜하고 과일맛이 풍부.
***** 슈타이스 맛은?** 가볍고 상쾌하고 꽃 향이 두드러진다. 첫 맛의 신선함이 특징적. →



Smoke&Drink

Dust off

이 안에
편집장 있다.

아마 채 탈리듯
탈리겠지?

덜고 덜고
또 덜고!

꽂초 터는 모습으로 보는 5가지 성격 유형

딱 봐도 성격이 나온다.



1 한 번에 깔끔하게 터는 일반형

강력한 검지의 반동을 이용해
망나니 모가지 썰듯 단번에 불씨를 튕겨내는 기술이다.
짬뽕 줌 먹은 애연가들이 구사하지만, 숙달이 덜 된 초보
흡연자들에게는 어려운 스킬.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덜지
않으면 새로 산 신발이나 바지에 블랙홀을 생성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로 한다. 가끔 초보자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 남의 78만 원 짜리 히말라야 노스 패딩에 뜨거운
불을 지피고 빗쟁이로 살기도 한다더라.



3 비벼서 불씨 떨어뜨리는 장인형

검지와 엄지를 사용해 담배 끝자락을 빅뱅의 승리가 여자
목 조르듯 압박해 비벼 끄는 유형. 연세가 많으신 중년층,
주로 여유를 가진 우직한 성격의 사람들이다. 느릿한
손짓으로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다가 마지막 연기를 뿜을
무렵 불씨를 지긋이 바라보며 비벼기를 시작한다. 실수로
불씨를 잡아 손가락에 생긴 화상이 오랜 외길 흡연 인생의
산 증거로 남아 있기도 하다. 가끔 불씨를 덜고도 모자라
꽂초 끝을 말아 송곳처럼 뾰족하게 만드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



5 내장까지 떨어버리는 사회 불만형

일반형에서 파생된 습관으로, 불씨를 터는 것만으로는
시원찮은지 남은 재까지 탈탈 털어 결국 필터만 남긴다.
그날 따라 심하게 뻑뻑하거나 사회를 향한 원한이 꽂초로
전이된 경우에 나타나는 유형이다. 사방에 담뱃가루를
눈처럼 뿌려대기 때문에 가장 민폐스러우며, 심한 경우
꽂초마저 버리는 새끼도 있다. 대외부에 청소부 아저씨의
빛자루 스매싱이 크리티컬로 꽂혀 봐야 정신 좀 차릴랑가?



2 불씨를 살살 밀어내는 소심형

꽂초를 터는 건지 애무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삭삭' 소리를 내며 검지로 종이를 밀어
불씨를 떨어뜨리는 유형. 머리에 척추가 달려 뻗하는
것처럼 불씨에 담뱃잎이 엉겨 붙어 떨어지는 모습이 몹시
시원찮다. 보통 1번 유형에 매번 실패해 조심히 밀어 끄던
버릇이 남아있는 소심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통 함께 담배를 피우던 1번 유형의 흡연자가
상대적으로 쓸데없는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4 꽂초를 통째로 투척하는 흥련형

불씨를 덜지 않은 채 꽂초에 격한 회전력을 가해 날리는
유형으로 포물선 운동을 동반한다. 장난기가 가득해 빨짓을
일삼는 사고뭉치들이 주로 구사한다. 까진 고딩들이나
심심한 군인들이 매점이나 PX 빵을 걸고 누가 더 날리는지
내기를 하기도 한다. 불씨를 덜고 날아가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이 있으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구사했다간 구치소
입주하기 십상이다. 만약 무단투기로 적발되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꽂초 하나로 담배 20갑이 날아가네.

6 of 10

MAXIM 독자들을 상대로 담뱃불 끄는 습관에 대해
MAXIM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0명 중
6명이 불씨를 깔끔하게 터는 '일반형' 마무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지로 살살 밀어서 끄는 '소심형'
은 10명 중 한 명꼴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한 에디터는 어느새 사회 불만형 인간이 되어 있었다.
탈탈탈!

이달의 신상 담배



보헤미안 시가 미니 5mg
잉글랜드 북부
코츠월드의 저택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

같은 고풍스러운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담배는 알아졌으나 시가 잎이 20%
가량 함유되어 보헤미안 특유의 맛과
향은 여전하다. 유난히 얇은 케이스는
셔츠 가슴주머니에 넣고 아이폰5라고
구리를 쳐도 될 정도다.



버지니아 슬림 4mg
슬림 담배 라인의
강자 에세 시리즈를
계량한 필립 모리스의

버지니아 슬림 리패키지만, 부드러운
향과 목넘김은 여전하다. 3,000
원으로 내려 기존 이용자들은
억울할지도. 단힐 파인먼트의 가격
인하에 대응한 조치라는 설이
유력하다.



카멜 슈퍼 라이트 3mg
오래된 담뱃갑 모서리가
쉽게 닳는 것을
의식했는지 부드러운

8각형 케이스를 들고 나온 카멜의
저타르 제품, 사리곰팡이에서 어머니의
진한 사골 육수 맛을 느꼈을 때의
충격일까. 3mg 제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카멜 특유의 구수한 향을
그대로 잘 살렸다.

Fightman

WARRIOR OF THE MONTH

외팔이 챔피언 닉 뉴웰

양손으로 싸우기도 벅찬 링 위에 기적의 사나이가 서 있다. 한 팔만으로 상대를 휘저으면서 말이다.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뉴웰이 저먼스플렉스로 상대를 가지고 놀고 있다.

'Notorious' NICK NEWELL

생년월일 1986년 3월 17일
체격 187cm, 79kg
리치 188cm
특기 레슬링, 주짓수
전적 9전 9승 2KO 6SUB
현 XFC 라이트급 챔피언
페이스북 facebook.com/
nicknewellmma

↳ 쉽지 않았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다. 허나 닉 뉴웰의 생각은 달랐다. 온전한 팔 하나와 절반 뿐인 팔로 그는 9연승을 거쳐 챔피언이 되었다. 현 XFC 라이트급 월드 챔피언 뉴웰은 선천적 절단 장애로 왼쪽 팔꿈치 아래가 없다. 그러나 고교 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레슬링 선수로 300번 넘게 승리했다. 그는 MMA 무대에 서고 싶었다. 하지만 프로 데뷔 전부터 난행이었다. 약해서가 아니다. 외팔이 파이터와 상대해줄 선수는 없었다. 뉴웰은 싸우고 싶었다. 기회는 슬픔과 함께 찾아왔다. *XFC 트라이아웃에 뉴웰을 데리고 간 친구이자 팀 동료 에비 마스터는 불행히 경기를 앞두고 오��바이 사고로 사망한다. 슬펐지만 뉴웰은 눈을 대신 맘을 흘리기로 한다. 2011년 12월 3일, 마스터의 사망을 기리는 <XFC 15: Tribute>에서 그는 죽은 친구를 대신해 링에 올라가

상대를 힐룩으로 압도하여 서브미션승을 거뒀다. 외팔이 파이터의 승리는 큰 화제였다. 또 다른 화제의 경기는 XFC 19에서의 통렬한 니킥 KO승이다. 단 한 방으로 상대를 기절시킨 그 무시무시한 니킥은 '악귀 같은 전사' 뉴웰의 이미지를 MMA 팬들에게 각인시켰다. '기구한 외팔이 파이터'로만 기억되기에 그는 너무 강했다. 그의 경기 영상을 보면 빠른 발과 속사포 펀치, 하이미들-로우에 고루 터지는 강한 킥, 끈질긴 그래플링, 놀라운 유연성, 게이저옥 같은 레슬링과 주짓수 실력 (브라운 벨트)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특히 상대가 누워있을 때 상위 압박은 기가 막힌다. 게다가 실전에서 보기 힘든 저먼스플렉스 같은 화려한 기술 구사와 대담하고 도발적인 링 매너는 상업적으로도 그가 얼마나 관眾은 물건인지를 보여준다. 게다가 상당한 훈남 외모다. 지난해 12월 7일, 연승을 달리던 뉴웰은 에릭 레이놀즈

라는 동갑내기 베테랑 파이터와 챔피언 벨트를 두고 붙었다. 만만치않은 상대였지만 뉴웰은 1라운드 1분 22초만에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서브미션승을 거뒀다. 심판은 챔피언의 절반 밖에 없는 완장을 반씩 들어올렸다. 승리 후 링아나운서가 그에게 '뒤에서 목을 잡힌 상대가 당신 팔을 잡아 앞으로 끌어내리려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당신 한 팔이 없어서 유리했던 것 같다'고 말하자 뉴웰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그 초크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훈련했고, 매일 연습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닉 뉴웰. 그는 팔이 없어 '특이한 파이터'가 아니라, 포기를 모르는 전사에게 '특별한 챔피언'이다.

PHOTOGRAPH RICH OSULLIVAN

*XFC: Xtreme Fighting Championships, UFC보다 소규모인 MMA 리그.

Fight

UFC



케인 벨라스케즈

태어난 곳: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생년월일: 1982년 7월 28일

신장: 185cm

체중: 109kg

리치: 196cm

전적: 11승 1패 9KO



존 파치의 MMA 다큐 필름 <Such Great Heights>에 등장한 벨라스케즈

산토스와의
숙명의 대결



Back to the Top

케인 벨라스케즈

13개월의 절치부심.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싸움꾼이다.



2012년 12월 21일, 마야력은 끝났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지구는 무사했고 그로부터 9일후 마야의 피를 이어받은 한 파이터가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새 UFC 헤비급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케인 벨라스케즈, 그는 라이벌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를 상대로 5라운드 내내 확고한 우세를 점했다. 경기 전 세간의 예상은 산토스의

우세였다. 주요 MMA 미디어 9개사가 모두 산토스의 승리를 예측했고, 도박판의 판세 역시 산토스 1.55 대 벨라스케즈 2.7로 산토스가 넉넉한 톱 도그(Top Dog)였다. 결과는 그러나 벨라스케즈의 대형 업셋. 벨라스케즈는 자신의 벨트를 빼앗아간 상대에게 통렬한 복수전을 펼치며 두 번째로 UFC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다.

고교 레슬러에서 MMA 파이터로

에프레인 벨라스케즈는 추방과 밀입국을 끈질기게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 이사벨을 만났다. 그녀는 미국 시민권자였다. 1982년 에프레인과 이사벨 벨라스케즈 사이에서 아들 케인이 태어났다. 케인 벨라스케즈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린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는 밀입국자였습니다. 추방을 7번이나 당하셨죠. 그는 맨몸으로, 돈 한 푼 없이, 사막을 걸어 이 나라에 왔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농장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된 노동입니다.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면을 본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벨라스케즈는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를 좋아했다. 중학교 때 레슬링을 시작했고 고교 때는 미식축구와 병행했다. 그는 두 종목 모두에서 주장이었다. 고교 레슬링에서 주 챔피언 2회, 올아메리칸(전국 8강에게 주어지는 칭호) 2회를 기록했다. 대학에서도 전국 5위권 이내의 성적을 유지했다. 아마추어 레슬링 특유의 하드 트레이닝을 거쳐 전투력을 갖춘 벨라스케즈의 시선은 대학의 졸업에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향했다.

“어느 순간부터 레슬링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나날이 성장해가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저도 치고 받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벨라스케즈는 레슬링 선수 생활이 끝나면 프로 MMA 파이터로 전향할 계획을 자신의 레슬링 코치에게 상의했다. 코치는 먼저 학위부터 취득하라고 조언했다. 벨라스케즈는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교육학 학사를 받았고, 코치가 소개한 아메리칸 킥복싱 아카데미(AKA)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로 떠났다.

육타곤에 등장한 두려운 신에

2006년 10월 7일 스트라이크포스에서 벨라스케즈의 프로 데뷔전이 벌어졌다. 상대는 제시 퓨라식이라는 선수였다. 벨라스케즈는 능숙한 레슬링과 위력적인 파운딩으로 1라운드 1분 58초 만에 상대를 분쇄했다. MMA 수련 3개월 차에 불과한 선수치고는 내용 면에서 매우 뛰어난 경기였다. 다음 경기는 2개월 후 러시아에서 열렸다. 결과는 다시 한 번 1라운드 TKO승이었다. 단 두 경기였지만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벨라스케즈 이름은 빠르게 업계에 알려졌다. UFC 측에서도 벨라스케즈에게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경기에 앞서 상대방이 도망가는 일이 자주 반복되었다. 이미 벨라스케즈는 불과 2전 만에 UFC의 영입 제안을 받은 특급 신인에 입소문을 타버렸고, 그와 대전하기에 적당한 신인급 중 누구도 벨라스케즈를 상대하지 않았다. 답답해진 그의 코치



애리조나 주립대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동한 벨라스케즈



리브으로 묶어 줄래?

멘데즈는 UFC 대표 데이나 화이트에게 벨라스케즈를 직접 보여주기로 했다. UFC CEO의 면전에서 벨라스케즈는 3명의 스파링 파트너를 차례로 상대해 곤죽으로 만들었다. 화이트는 그 자리에서 UFC의 계약서를 내밀었다.

2009년, UFC 진출과 동시에 벨라스케즈는 매우 높은 레벨의 선수들과 상대하게 되었다. 본인의 프로 세 번째 경기이자 UFC 데뷔전에서 만난 브레드 모리스는 당시 이미 12전을 경험한 선수였다. 그렇지만 경기 시작 2분 10초 만에 벨라스케즈의 TKO승. 스탠딩에서부터 우세를 점한 벨라스케즈는 이미 충격을 입고 그라운드로 내려간 상대를 숨 싹 틔울 주지 않고 때려잡았다. 벨라스케즈의 네 번째 상대였던 제이크 오브라이언은 데뷔부터 8연속 KO 승을 거둔 정도로 펀칭이 위력적인 선수였고 베테랑 타격가 히스 히링에게서도 승리를 거둔 적이 있다. 그에게 패배를 안긴 상대는 전 챔피언 안드레이 알롭스키였다. 체격이 좋고, 레슬링이 강한 데다 주먹도 센 오브라이언은 벨라스케즈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선수들과는 확실히 타원이 다른 강자였다. 벨라스케즈에게 이 경기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상대의 키가 크고 펀칭 능력이 위협적일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최대한 빨리 접근전을 걸고 클린치 게임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다. 벨라스케즈는 이 경기에서 빠르게, 적극적으로 접근전을 걸었고 쇼트 펀치의 콤비네이션을 돌린 후 클린치를 잡았으며 그대로 경기를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갔다. 이런 모습, 즉 강력한 펀칭을 자랑하는 오브라이언 같은



선수를 상대로 주저함 없이 화선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과감한 접근전을 걸 수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전략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였다. 일단 그라운드로 내려간 이상 승부의 추는 벨라스케즈 쪽으로 기울었다. 오브라이언은 벨라스케즈의 상위 압박에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1라운드 4분 만에 TKO 패했다.

The Great Mexican Fighter

예로부터 멕시코 복서들은 지구력에서 다른 인종에 비해 월등하게 두각을 나타내왔다. 중미 지역의 평지는 우림이거나 사막이라 문명이 발달하기 힘들었고 이 지역 토착민은 적절한 기후를 찾아 고산지대를 향했다.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과 산소 농도는 낮아진다. 해발 3,000미터 대기 산소량은 저지대 산소량의 70% 수준이다. 멕시코 시티의 고도는 평균 2,200여 미터, 가장 높은 지역은 3,900여 미터에 이른다. 그곳에서 적응하는 수천 년 동안 토착민은 특수한 유전 형질을 습득했다. 그들의 심장과 폐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운송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온 것이다. 고산 민족의 상당수는 유럽인이 저지대 전쟁과 학살, 구대륙에서 전파된 치명적인 전염병 등으로 절멸했으나, 살아남은 소수 고산 민족의 강화된 심폐 기능 유전 형질은 현재의 멕시코인에게 전해졌다. 심폐 능력은 스포츠에서 매우 중대한 자산이다. 장거리 육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케냐 역시 고원지대의 축복을 받은 것이며, 멕시코 혈통인 케인 벨라스케즈의 막강한 체력 역시 마찬가지다.

Fight / UFC

2009년 6월, 벨라스케즈는 칙 공고와 만났다. 공고는 장신에 리치가 긴, 강력한 타격 스페셜리스트로, 타이틀로 가는 길목에서 수많은 유망주로 돌려세운 수문장 같은 선수였다. 공고의 강력한 라이트가 벨라스케즈의 라이트에 한 박자 먼저 적중했다. 끝내주는 타이밍에 터진 카운터 클린히트였고 곧바로 KO가 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강타였다. 순간 벨라스케즈의 무릎이 꺾였다. 일어서는 중에 공고의 라이트가 다시 한 번 꽃혔다. 벨라스케즈는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 공고의 하체를 붙들고 늘어지는 듯 보였지만 양 오금에 손을 뻗어 순식간에 공고를 넘겨버렸다. 보통 그 정도 강타를 두 개씩이나 받고 무릎이 두 번 꺾일 정도면 데미지를 수습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벨라스케즈의 회복 속도는 상식을 넘어선 것이었다. 타격에서 얻은 데미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신비로울 지경이었다. 신기하게도 벨라스케즈와 그라운드에서 구르다 보면 모든 선수가 백을 내주고 안면을 얻어맞으며 찢찢 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고와 벌인 경기에서도 그러했다. 그는 3라운드 내내 상대를 굴리면서 무려 251발의 펀치를 쏟아냈는데, 대부분은 파운딩이었다. 결과는 벨라스케즈의 판정승. 그의 체력이 이 경기에서 확실히 증명되었다.

프로 여덟 번째 상대는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였다. 노게이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파이터 중 한 명이다. 선수로서 완성도도 높거나 인간성도 좋아 수많은 파이터의 귀감이 되고 있다. 당시 그가 벨라스케즈를 이기면 대망의 UFC 헤비급 타이틀전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상황이었다. 노게이라의 특기는 그라운드에서 펼쳐는 주짓수다. 벨라스케즈는 이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듯 했고 노게이라와의 경기에서는 타격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노게이라도 타격전으로 맞붙을 놓았다. 두 선수 모두 정면에서 치고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입이고, 한 대를 맞으면 카운터로 갇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지라 불만한 타격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경기 시작 2분 20 초경 노게이라가 한발 크게 뛰어들면서 왼손 잽을 날렸다. 스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치고 난 이후에도 몸이 앞으로 움직였는데 좋지 않은 동작이었다. 타격 직후 몸을 전방으로 움직이면 상대의 카운터를 향해 뛰어드는 꼴이기 때문. 임팩트 직후에 후방이나 측면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체중의 흐름을 관리해야 하는데 노게이라는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한 것이다. 노게이라의 '그' 왼손 잽에 맞서 벨라스케즈는 레프트-라이트 어퍼-레프트 혹은 카운터 컴비네이션을 버락같이 휘둘렀다. 결과는 벨라스케즈의 1라운드 KO 승. 타이틀 도전권은 총 전적 불과 8승에 불과한 케인 벨라스케즈에게 주어졌다.

vs. 브록 레스너,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

2010년 10월 23일 케인 벨라스케즈는 브록 레스너의 UFC 헤비급 왕좌에 도전했다. 레스너의 힘과 운동 능력, 레슬링, 타격의 재능 등은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웨인 카윈전에서는 그는 안면 공격에 대한 방어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약점을 노출했다.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할 것 같았지만

레슬링을 제외하면 사실상 그는 MMA 초심자에 가까운 상태였다. 경기 초반, 레스너는 놀라움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공세를 취했다. 벨라스케즈를 테이크다운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벨라스케즈의 펀치가 적중하기 시작하자 레스너는 공황 상태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치욕적인 TKO패를 당하며 벨트를 벨라스케즈에게 넘겨주었다. 이전까지 멕시코는 어떤 투기 종목에서도 헤비급 챔피언을 배출하지 못했다. 벨라스케즈는 최초의 멕시코 헤비급 챔피언이 됐다.

경기 전에 레스너는 "벨라스케즈를 처리하고 부리토(멕시코의 대표 음식)를 먹고 코로나 맥주(멕시코산 유명 맥주)를 마시겠다"라고 벨라스케즈를 도발했다. 타이틀을 획득한 후 벨라스케즈는 <로페즈 투나이트>라는 TV쇼에 출연했다. 사회자인 조지 로페즈는 "당신이 이겼으니 우리가 전통적인 아메리칸 식사를 해야 한다"라며 벨라스케즈와 함께 피너 버터와 젤리 샌드위치를 먹는 퍼포먼스를 보여 화제가 됐다.

벨트의 영광은 달콤했지만, 대가가 따랐다. 벨라스케즈는 레스너와 경기에서 어깨를 다쳐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회복과 재활에는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헤비급에서는 브라질 출신의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가 모두를 때려잡으며 도전의 명분을 다지고 있었다. 산토스는 강했다. 크고

너무 잔인해!



벨라스케즈는 UFC 146에서 만난 안토니오 실바의 얼굴을 주먹으로 찢고 또 찢어 참혹한 파찰갑으로 만들었다. 본인의 몸도 온통 실바의 피로 물들었고, 거인 실바의 얼굴에서 흐른 피가 고여 바닥에 파운딩이 생길 정도였다. 그야말로 살벌한 광경이었다. 당시 생방송에서는 그대로 내보낸 파찰갑이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이후 방송에서는 편집되었다.



vs. 브록 레스너
레스너에게 승리 후 환호하는 벨라스케즈



vs. 주니어 도스 산토스

경기 내내 도스 산토스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멧집 하나는 끝내주네

빨랐으며 성능 좋은 양 주먹과 단단한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척 리델의 발전형'으로 불리기도 했다. 두 선수의 대결은 2003년 호도르-노게이라전 이후 오랜만에 찾아오는 메가 파이트였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두 선수가 가장 목직한 벨트를 걸고 최고의 무대에서 격돌하게 된 것이다.

2011년 11월 12일, <UFC on FOX 1>은 지구 최대의 방송사 FOX를 통해 전 미국에 공중파로 방영했다. 이 대회의 메인 이벤트가 바로 벨라스케즈 대 산토스의 헤비급 타이틀전이었다. UFC 최초의 공중파 중계라는 역사적 의미가 무색하게도 경기는 어이없을 정도로 빨리(1라운드 1분 04초) 끝나버렸다. 대부분의 관계자가 격렬한 장기간을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말이었다. 산토스와는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어중간한 지점에서 타격을 주고받던 중 산토스의 라이트 오버핸드를 정통으로 허용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폭주 기관차처럼 9연승을 달리며 챔피언 자리에 오른 벨라스케즈였지만 일단은 거기서 스톱이었다. 그 후, 산토스-오브레임, 벨라스케즈-미어전을 중심으로 모든 카드가 헤비급으로 기획된 UFC 146(2012년 5월27일)은 악물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오브레임 때문에 상당 부분 중량감을 잃었다. 오브레임이 장외에 묶여 있는 이상 산토스의 연말 타이틀매치에 어울리는 상대는 벨라스케즈가 유일했다. UFC는 두 선수의 2차전을 발표했다. 날짜는 2012년 12월 30일이었다.

Back to the Top

산토스는 거리를 다소 벌린 상태에서 재빠르게 들락날락하다가 기회가 오면 강력한 펀치를 쏟아내는 스타일이다. 체격에 비해 행동이 매우 민첩하기 때문에 상대 선수로서는 붙잡히기가 쉽지 않고 덩치만큼 힘도 좋아서 붙잡히거나 테이크다운을 당해도 금세 털고 풀려나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었다. 1차전 때문에 2차전을 앞둔 미디어와 하드코어 팬층의 예상은 산토스의 재선 쪽에 힘이 실린

상태였다. 경기의 승부처는 '접근'이었다.

경기 스타일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을 장착하거나 약점을 보완하는 일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쉽지 않다. 훈련 때는 곧잘 되던 것이 막상 경기에 나서면 주춤하고 늘상 하던 기술이 나오면서 애초의 약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벨라스케즈는 산토스와의 2차전 경기에서 진일보한 헤드무브먼트를 동반한 강한 압박을 구사해 산토스의 조준선을 흔들고 그가 좋아하는 거리를 내주지 않았다. 펀칭도 이전보다 늘렸다. 불과 1년 사이에 이정도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움직이는 속도가 대폭적 증가했고 머리 움직임이 더 좋아져서 방어력도 증가 한 셈이며 펀칭라인자가 길어지면서 적중률 또한 대폭발한 것이다. 1라운드에 터진 벨라스케즈의 오버핸드는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포인트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엄청난 결과물이었다. 상대가 산토스였기 때문이다.

산토스의 패인 중 하나는 팔 힘이 너무 일찍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산토스는 강약을 잘 섞어 쓰지만, 때가 오면 풀스윙을 하는 선수다. 풀히팅 타격가의 팔은 레슬링을 하면 금방 소모된다. 1~2라운드 내내 벨라스케즈의 능숙한 레슬링과 그라운드, 파운드에 당하고 어떻게든 저항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이에 산토스의 팔이 폭발력을 모두 소진해버린 게 아쉽다. 후반부 라운드를 보면 산토스의 타격이 좋은 타이밍에 꽂히는 하는데 힘이 없어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 반면 벨라스케즈의 축복받은 체력은 이 경기에서도 빛났다. 5라운드 내내 산토스를 몰아붙이면서도 전혀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경기가 끝나고 데이나 화이트가 "이것이 (공중파로 중계한) 1차전이었던 것"이라는 멘트를 남겼을 정도로 멋진 경기였다. 이것으로 양 선수의 상대 전적은 1대 1이 되었다. 이제 두 선수의 3차전이 언제 벌어질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

벨라스케즈에 관한 사소한 사실들



벨라스케즈는 기혼이고 부인 미셸과의 사이에 어린 딸이 있다. 대전료는 2억 가량이다. 2012년 수입은 4억 원

정도이며 MMA 선수 생활 통산 약 12억을 벌어들였다. 2011년형 포드 F-150 SVT 랩터를 주로 타고 다니며 1971년형 포드 토리노 코브라도 한 대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바이크 라이딩을 즐기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연찮게도 산토스와의 2차전 승리 보너스로 최신형 할리데이비슨을 받았다. 좋겠다.



그는 미국 국적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을 멕시코인으로 생각한다. 어린 시절을 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보냈고 주말

동안 멕시코를 오가는 일도 흔했다. 그의 가슴에는 'Brown Pride (브라운 프라이드)'라는 문구가 새겨 있다. 히스패닉 갱들이 많이 하는 문신인 탓에 그가 인종주의자나 갱 멤버 일지도 모른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벨라스케즈는 <MMA Insider>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은 인종주의자이거나 갱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토스와의 2차전 승리한 벨라스케즈는 백스테이지에서 인터뷰 도중 어려울 때 자신을 믿어주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격려해준 팬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눈물을 흘렸다.

the Hottest Valentine's gift

곽현화

어느 날 타임라인에 뜬 곽현화의 반가운 멘션,
“저 진짜 소방관복 잘 어울리지 않아요? 기회가 된다면 소방관들과 섹시화보를,
그리고 수익금은 모두 소방관 복지금으로 기증”
마침 이번 달 표지모델 후보를 놓고 고심하던 MAXIM 편집부의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다.
우리의 로망을 실현시켜 주는 수학의 여신... 아니 MAXIM의 여신이자
이 땅 모든 수컷들의 여신 곽현화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다.
대박이 날 징조인지 화보 촬영 하루 전 날 그녀의 첫 주연작인 영화 <전망 좋은 집>에 대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그녀의 이름이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아아, 당신은 우리에게 뜨거운 밸런타인데이 선물이었어요.



후끈
달아올랐던
촬영 현장





오랜만이다. 이번이 MAXIM과 세 번째 화보 촬영이라는 거 알고 있나?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뜻 아닌가? 오히려도 자주 불러줘라.

당신과 절친한 동생 강예빈이 먼저 표지 모델을 했는데(2012년 10월호) 열받지는 않나?
사람들이 왜 계속 강예빈과 나를 비교하는 거지? 난 강예빈을 비교 대상으로 생각해보는 적이 없다. 나는 '김 카다시안' 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안하다. 안 보는 사이에 더 예뻐졌고 한 살 더 먹어도 여전히 섹시하다. 아니 더 섹시해졌다. 그래서인지 당신 이름을 검색하면 '충격', '가슴 노출', '출렁'과 같은 단어가 우수수 뜬다. 신경 쓰이지 않나?
신경 쓰이던 시점은 친척에 끝났다. 지금은 해탈했다. 초만간 공중 부양의 경지에 오를 예정이다.

'섹시'란 단어를 천박한 이미지로 직결시키는 세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천박한 게 나쁜 건가? 난 잘 모르겠다. 섹시함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다. 대문 거칠고, 직접적인 표현이 더 섹시할 때가 많은 법이다.



천박한 섹시함을 선호한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다. 섹시란 단어에는 늘
고급스러운 무언가로 포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문제라는 뜻이다.

도인이 다 됐군. 철학자와 인터뷰하는
느낌이다.
물렀나? 내 몸의 99%가 사라다.

〈SNL코리아〉 14화에 출연해 핸드백에서
바나나를 꺼내 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완전 자학 개그에 가까웠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 건가?
그냥 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발말 안
하던데? 이상했나?

아, 이미 해탈했다고 했지?
그렇지. 문에서 사리 나온다니까. 아무튼
SNL 촬영할 때 무척 재미있었다. 나는
바나나를 먹고 김현수 씨는 핑크색
왕스시지 먹었지. 아마?

토론 배틀 〈사랑유희〉, 정당 창당 프로젝트
〈클까당〉 등에 출연했다.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행동인가?
그렇 리가. 난 털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나갈 수 없다.

그래도 혹시 흥미한다면 어느 지역이
적당하겠나?
다양성과 다문화가 공존하는 이태원 쪽이
좋을 것 같다. 외국인도 많고, 클럽도 많고.



공교롭게 오늘 촬영한 곳도 이태원이다.
그러게, 이렇게 음침한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동물적인 느낌이 들어서 좋다.
지나치게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는 별로
섹시하지 않다.

결혼 계획은 없나?

결혼은 마흔 정도에 하고 싶다. 이 얘기
했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다. 자궁이
노화된다고 이거 지금 굉장히 순화시켜
표현한 거다.

**마흔 살이면 좋은 남자를 만나기 어려울
나이 아닌가?**

내 생각은 오히려 정반대다. 요즘 이혼도
많이 하는 편인데, 오히려 결혼을 두 번
하는 남자를 만난다면 더욱 신중하고
어딘가 노련하지 않겠나?

**역시 요즘엔 돌싱이 대세인가. 결혼을 늦게
하고 싶다는 건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지금 굉장히 자유롭고 즐겁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여행
가고 싶을 때 훌쩍 떠나버릴 수 있고 아주
매력적인 삶 아닌가?

구두 슈즈원

“
서로의 치부를
마음껏 들출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

브라 CK인더웨어



“

때론 거칠고 직접적인
표현이 더욱 섹시할 때가 있다

”

브라 CK언더웨어
구두 슈즈원

연예인 중에 이상형을 꼽자면?

연예인 중에서는... 잘 모르겠다. 외모를 진짜 안 보는 타입이어서.

당신의 역대 남자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 예전 남자친구를 본 사람들은 항상 말한다. "진짜 외모 안 보네"라고. 어릴 때는 외모를 좀 봤는데, 20대 중반부터는 거의 안 봤다.

그럼 성격을 많이 보나?

그렇다. 말도 잘 통하고 서로의 처부를 마음껏 들출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다. 방귀도 뽕뽕 끼고.

수확해도 썼겠다 수학 선생님의 성교육 수업을 테마로 개그 프로그램을 해볼 생각은 없나?

'곽현화의 어아성', '어른들의 아름다운 성' 같은 제목으로 어른들을 위한 성교육 방송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영상화되면 수위가 꽤 높아서 곤란할 것 같은데?

에이, 더 좋아하지.

누가? 당신이?

푸하하. 예리하군.

아이를 낳으면 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생각인가?

남자아이라면 일찍부터 피임 교육을 해야 할 것 같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 성 경험을 하는 아이가 꽤 많다고 하더라. 그런데 아들의 남자 친구들이 놀러오면 무척 설렐 것 같다. 우리 어머니 아빠가 이거 보면 또 기절하겠네(웃음).

근데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웃음소리가
굉장히 요란하다. 바깥 생각은 안 해봤나?
그러면 너무 완벽하잖아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야지. 웃음소리라도 하자가 있어야
세상이 공평하지 않겠나?

그나저나 밸런타인데이도 다가오는데,
초코시럽 묻힌 바나나를 먹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릴 생각이 있나?
푸하하. 스페셜 에디션으로? 그런데
초콜릿을 묻힌 바나나는 너무 작위적이니까
차라리 긴 초콜릿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왕빼빼로라면 더 아할 것 같은데.
그러네. 근데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 너무
크면 좀 그래.

뭐 어쩐가? 김현숙은 소시지도 먹었는데.
그건 김현숙 씨한테 어울리는 거고.

하긴, 그건 별로 아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군.
내가 하면 아하다는 건가 지금? 이거 완전
억울하다.

전문용어로 '예쁜 게 죄'라고 하지.
아, 그 죄라면 달게 받겠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 죄는 거의 종신형이지. 

이두 슈즈원



GO TO
MAXIM
IPAD



곽현화

생년월일: 1981년 3월 2일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수화 학사

이상형: 방귀 꺾는 탈탈한 남자

결혼 계획: 미혼 살,
서두를 생각은 없다.

주량: 소주 1병 반, 맥주 1,500cc.

여기서
기어기라고?

2013년 유럽파 전망 대박이나 쪽박이나

2013년 기사년에는 뱀처럼 기어서
벌처럼 썩라!



→ 2012년 하반기 해외 축구에서 한국 선수들은 승승치럼 명망한 한 해를 보냈다. 한국 축구의 아이콘 박지성이 맨유를 떠났고, 빅 클럽 진출로 기대를 모은 기성용의 스완지 시티 내 활약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동원은 선덜랜드 스쿼드에서 아예 이름이 사라져버렸다. 독일 분데스리가 손흥민, 구자철이 분전했으나 관심이 높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의 입지는 수도권 아파트값처럼 툭툭 떨어졌다. 일본 선수들의 지명도 상승은 한국 축구팬의 심기를 효자손으로 긁어냈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 한국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축구 인기로 밥 먹고 사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입맛을 툭 떨어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기사년(癸巳年)이 밝았다.

QPR 박지성, 시작부터 꼬인 실타래

2013년 기사년 전망: 쪽박

박지성이라면 자다가도 휴지를 집어들 것 같은 박지성빠 마크 휴즈 감독이 QPR에서 물러났다. 뒤를 이어 잉글랜드 출신 해리 레드냅 감독이 QPR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했다. 해리 레드냅 감독은 강등권 팀을 잔류시키는 데 타고난 능력을 발휘한 감독이지만, 팀 운영에는 영연방 선수들만 챙기는 전통적 영국식 사고방식을 지닌 감독이다. 한국 선수와는 약연 아닌 약연도 있었다. 1999년 웨스트햄 이적을 추진한 최용수, 김도근의 유럽 입성이 레드냅 감독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후 포츠머스 이적을 추진한 이천수와 토트넘에서 입지가 좁아진 이영표도 그와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레드냅 감독이 QPR에 부임하자마자 '박지성 위기설'이 제기됐고, 마누라 팬 날 장모 오듯이 하필이면 고질적 무릎 부상 재발로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박지성 또한 이 점을 모르지 않을 터. 1월 3일 첼시 원정에서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다. 부상 중인 박지성의 결장이 예상됐으나 레드냅 감독은 후반 막판 교체로 '캡틴 박 카드'를 썼다. 첼시의 막판 화력을 봉쇄하기 위한 비책이었고



박지성

보기 좋게 적중하며 1-0 승리를 지켜냈다. 다만 이 한 장면을 놓고 박지성에 대한 레드냅 감독의 믿음을 확인했다는 주장은 '난센스'다. 레드냅이 아니라 우리 엄마라도 그 상황에서 박지성을 내보냈을 거다.

이 김덕중 기자 (엑스포포츠투스) IMAGE 엑스포포츠투스 제공, 연합뉴스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상





기성용

홀대인가 변화인가, 스완지 기성용

2013년 기사년 전망: 반 쪽박

스완지 시티 입단 후 매 경기 선발 출장하던 기성용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최근 스완지는 기성용에 대해 '선벤치 후교체' 방식을 쓰고 있다. 연말 연초 살인적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체력 안배와 상황에 맞게 기성용을 활용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 모두 능한 기성용의 특징을 고려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경기에서 앞서면 볼 소유권을 높이기 위해 투입하거나 골이 필요하면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해 활용했다. 다만 국내 팬으로서, 베드신 없는 조여정 영화를 보고 있는 기분, 기성용의 위용을 지켜볼 시간이 줄었고 공격적 측면에서도 아직 셀틱 시절만큼의 존재감은 없다. 영국 현지 팬도 기성용보다는 미추의 활약에 열광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상위권에 포진한 미추는 최근 스페인 대표팀에 합류하는 로또까지 맞았다. 스완지는 최근 전술 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기존 4-2-3-1 전형 외에 4-1-3-2 포메이션을 활용하는 플랜 B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선수 기용에 신중한 상황에서 기성용 활용법에도 눈길이 간다. 레온 브리튼, 웨인 라우틀리지, 미추 등과 함께 주축 선수들로 분류되는 기성용의 활용에도 고심이 생겼다. 그동안 체력 문제 등을 이유로 선발과 교체를 넘뒀던 기성용이다. 과연 향후 미카엘 라우드로프 스완지 감독의 구상에서 기성용이 어떤 형태로 활용될지 기대된다.

그는 뭔가 다르다. 함부르크 손흥민

2013년 기사년 전망: 대박

죽 쓰고 있는 프리미어리거와 달리 독일 분데스리가의 올 시즌 활약은 태양권을 맞은 듯 눈이 부실 지경이다. 2012년 하반기 축구계 핫이슈는 대부분 손흥민의 발끝에서 터져 나왔다. 함부르크의 해결사로 떠오른 손흥민의 골 장면을 되짚어보자. 올 시즌 손흥민의 3, 4, 5호 골은 마치 데자뷰인 듯 닮았다. 손흥민의 3호 골인 도르트문트전 두



손흥민

번째 골은 원발 슈팅이었고, 4호 골인 피르트전은 오른발 슈팅, 5호 골인 아우크스부르크전 골은 원발 슈팅이었으나 마지막 슈팅 직전 간결한 터치로 상대 수비수 밸런스를 무너뜨렸다는 점은 공통이다. 슈팅 공간과 시점 확보를 위한 '볼 센스'가 뛰어난 뿐 아니라 양발을 자유롭게 쓰는 한국 선수의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 더욱이 3, 4, 5호 골 모두 슈팅한 최종 위치가 아크 오른쪽이었다. 손흥민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 아크 오른쪽에 접근하면 과감한 슈팅을 시도했다. 또 3골 모두 상대 골문 왼쪽 하단을 겨냥했다. 슈팅을 시도한 발은 달랐으나 슈팅 방향이 같다. 슈팅 지점은 모두 아크 오른쪽, 바로 '손흥민 존'이다.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은 함부르크는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를 향한 유럽 빅 클럽의 '러브콜' 소식도 단순 루머로 들리지 않는다. 함부르크의 또 다른 '에이스' 라파엘 반 더 바르트의 복귀도 손흥민에게는 반갑다. 그 둘의 절묘한 호흡은 시즌 초반 충분히 검증된 바 있는 칠떡궁합이니까.

아우크스부르크의 '지구 특공대(지동원+구자철)'

2013년 기사년 전망: 준대박

선덜랜드에서 사라진 지동원의 이름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자철이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바로 그 팀이다. 지동원과



지동원



구자철

구자철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한술밥을 먹게 됐다. 각각의 성을 따 지구 특공대라는 '캡틴 플래닛'스러운 닉네임이 붙었다. 임무가 막중하다. 아우크스부르크에 모인 지구 특공대는 땅, 불, 바람, 물, 마음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아 팀의 강등권 탈출을 이끌어야 한다. 팀의 전술 운용에도 승통이 트였다. 아우크스부르크 유니폼을 입은 지구 특공대의 활용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지동원, 구자철의 공격 일선 동시 배치 가능성이 엿보인다. 지동원이 최전방 공격수, 구자철이 공격형 미드필더 또는 새도 스트라이커로 나설 수 있다. 이들의 화력은 이미 2011년 입증됐다.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한 둘은 대표팀 공격의 핵으로 맹활약했다. 서로의 골을 도우며 자기들끼리 사이 좋게 득점 순위 1, 2위를 해먹은 바 있다. 두 번째는 가능성이 더 높은 시나리오다. 최근 구자철의 포지션 변경과 맥을 같이한다. 지동원이 전방 공격수, 구자철이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격한다. 최근 다니엘 바이어와 함께 더블 볼란치를 구축한 구자철은 팀의 공수 조율을 담당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동원이 공격 일선에서, 구자철이 후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팀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현실적 목표는 1부 리그 잔류. 지구 특공대가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면 이들을 바라보는 유럽 축구계의 시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감지된다.



엠블럼으로 보는 챔피언스리그 16강전

뜻이나 알고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자고.

각 클럽
전설들의
하이라이트
영상



세리에A의 유재석과 박명수



유벤투스 FC

승부 조작 혐의로 하부 리그로 강등되는 쪽팔림을 감수한 유벤투스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16강 문턱에 안착했다. Juventus는 라틴어로 '젊음'이라는 뜻으로, 1897년 마시모 다젤리오 학교 학생들이 만든 축구팀의 전신이다. 엠블럼 한가운데에 박혀 있는 것은 개처럼 보이지만 소다. 연고지인 토리노는 예로부터 목축업이 유명했기 때문에 사용됐다. 토리노 시의 문장에도

저 포효하는 소가 그려져 있다. 유니폼 엠블럼에는 2개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세리에A에서 10회 우승마다 하나씩 달아주는 별이다. 총 27회 우승한 유벤투스만 유일하게 2개의 별을 가슴에 달고 있다. 유벤투스의 상징인 흑백 스트라이프는 잉글랜드 축구팀 노츠 카운티 FC의 유니폼을 베꼈다는 후문. **총평:** 언뜻 가수 박상민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

➔ ANOTHER SYMBOL:

델 피에로



데뷔전에서 헤트릭을 달성한 델 피에로, 1998-99시즌 악물복용으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지만, 2011-12시즌 리그 무패 우승을 견인함. 팀이 승부 조작으로 강등되자 "신사는 숙녀가 필요로 할 때 떠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겨 '유빠' 생산에 이바지했다.

AC밀란

유벤투스 다음으로 리그 우승을 가장 많이 한 공국의 라이벌. 유니폼의 별은 하나다. 엠블럼 중앙의 십자기는 밀라노 공국의 문장에서 따왔다. 하지만 영국인이 창단한 클럽이란 점과 과거 영국과 이탈리아 선수만 등용한 사실 때문에 영국 국기라는 설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그래서 아직까지 '밀라노'가 아닌 영어식 표현인 '밀란'을 사용한다고 전해진다. 왼편에 있는 줄무늬의

붉은색은 노동자의 열정을 뜻하고, 검은색은 상대를 겁주려는 의도에서 사용했다. 엠블럼 하단의 숫자 1899는 AC밀란의 창단년도를 뜻하며, 'AC'는 Associazione Calcio의 약자로 축구 협회라는 뜻이다. 참고로 인터밀란은 AC밀란의 국가 차별 정책에 반대한 일부 사람들이 독립하여 만든 축구팀이다. **총평:** 웬지 구호물자에 찍혀 있을 것 같은 '적십자'스러운 디자인.

➔ ANOTHER SYMBOL:

파올로 말디니



AC밀란 수비 라인을 3대째 이을 예정인 혈통 있는 말디니 가문의 2대 파올로 말디니. 밀란은 파올로 말디니와 그의 아버지의 공헌을 높이 사 등번호 3번을 영구 결번하기로 결정했으나 말디니는 등번호 3번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밝힘.



EPL의 중심에서 반 페르시를 외치다

아스날 FC

반 페르시를 주축으로 'Arsenal (군수공장)'다운 면모를 자랑한 강팀 아스날. 이 팀을 창단한 울위치 지역은 로마 치하 때부터 무기를 만드는 지역으로 유명했다. 엠블럼의 대포는 그러한 특색을 살린 심벌이다. 1888년 처음 제작한 엠블럼에는 대포가 무려 3개였지만 이후 대포를 하나로 줄였다. 포 방향 또한 좌로 갔다. 우로 갔다를 반복하다가 1992년부터 오른쪽으로

고정했다. 2002년 갑자기 엠블럼을 간소화한 것은 상표권 등록을 해 노점상이 엠블럼을 베껴 파는 것을 막기 위한 공책이었다. 일부 골수팬은 아스날 엠블럼의 역사를 일반적으로 훼손했다며 항의했지만, 2003-04시즌 유례없는 EPL 무패 우승을 달성하며 그간의 잡소리를 싸그리 뒤아버렸다. **총평:** 옛날 엠블럼이 더 정감이 있긴 하군.

➔ ANOTHER SYMBOL:

테드 드레이크



1934-35시즌, 리그(FA 컵, 첼티시드 포함) 총 44골을 기록한 아스날의 전설. 1950년대 첼시 감독으로 부임해 세대 교체를 시도했다가 쫓겨하는 딜레마를 겪은 바 있어 현재의 아스날 뱅거 감독과 평행이론이 성립된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올 시즌 라이벌 팀인 아스날로부터 약 426억 원에 반 페르시를 영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붉은 악마의 원조격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엠블럼에는 붉은 계열의 텍스트와 중앙부에 커다란 방패가 있다. 방패 상단에 그려진 노란색 배는 과거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맨체스터 운하를 상징한다. 이것은 맨체스터 시의 문장에도 그려져 있다. 가운데 포크를 들고 있는 악마는 상대 선수를 꼬챙이에

찍어서 먹어버리겠다는 귀여운 포부를 담아 1981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원래는 악마 대신 맨체스터 시의 3개 강을 의미하는 3개의 사선이 그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같은 연고지의 클럽인 맨체스터 시티만 사선을 사용하고 있다. 양 옆의 피구공 같은 축구공은 랭커스터 가문이 사용하던 뽕뽕맞은 장미를 빼버리고 넣은 이미지다.

총평: 실실 쪼개고 있는 악마에게서 맨유의 자신감이 보인다.

ANOTHER SYMBOL:

에릭 칸토나



맨유의 전성기를 이끈 최고의 공격수로 '맨유의 신'이라고 불린다. 자신에게 야유를 보낸 관중에게 달려가 이단 옆차기를 적중시키며 발끝의 세밀함을 과시한 바 있는 다혈질 선수로, 세밀한 발끝의 감각과 육하는 성격이 루니를 연상시킨다 (참고로 탈모는 없다).

레알(REAL) 바르(BAR)고 싶은 숙명의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 라리가 최다 우승 등의 타이틀을 안고 있는 현존 지구 최강(문제는 바르샤) 축구 클럽이다. 1920년 축구광이던 알폰소 국왕에게서 '레알(귀족이라는 뜻)'의 명칭 사용을 허락받은 후 동그란 엠블럼 상단에 왕관을 씌우기 시작했다. 엠블럼 중앙의 M, C, F는 클럽 명칭의 약자다. 원 안을 가로지르는 남색 계열의 선은 과거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에 그려져 있던 문양을 엠블럼 디자인에 차용한 것이다. 현재 유니폼은 올 화이트와 올 블랙 디자인으로 바뀌었지만 엠블럼의 사선은 바뀌지 않은 상태.

총평: 바르셀로나가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엠블럼 간자는 레알이지.

ANOTHER SYMBOL:

에밀리오 부트라게노



레드카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1990-91시즌 득점왕 공격수. 메시 못지않은 작은 키(168cm) 덕분에 무게 중심이 낮아 민첩한 드리블을 보여줬다. 레알의 부회장을 지낸 클럽의 상징적 존재.



FC 바르셀로나

속적 레알 마드리드를 괴롭히는 지구 최강의 클럽이자 발롱도르 4연패에 빛나는 메시님을 보좌하고 있는 FC 바르셀로나. 최초의 엠블럼은 월계수와 붉은색 십자가가 그려진 다소 난해한 모양이었다. 이후 1910년 공모전을 통해 디자인을 간소화하고 현재의 엠블럼으로 진화했다. 위쪽 왼편에 있는 붉은 십자가는 기독교 수호 성인 중 하나인 성조기를 뜻하며, 그 옆의 붉은색과

노란색 선은 카탈루냐(바르셀로나가 속한 지방)의 상징이다. 블라우그라나(파란색과 붉은색 패턴)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 설이 많은데,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팀의 설립자인 호안 캄페르가 이 색을 좋아했다는 것이다. 캄페르는 팀 창단 이전에도 이 패턴의 모자를 경기에서 즐겨 쓰곤 했다고 한다.

총평: 스페인 피구팀 같은 인상은 기본 타이트겠지...

ANOTHER SYMBOL:

리오넬 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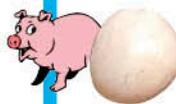


발롱도르 4연패, 라리가 한 시즌 최다 골, 한 시즌 최다 헤트트릭, 클럽 역대 최다 골,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4연패. 메시 왈 "이제 다 이루었노라."

메시 왈 "이제 다 이루었노라."

먹지 말고 발에 양보해

축구공의 역사 돼지 오줌보부터 자בל라니까지.



돼지 오줌보
돼지 오줌보를 바닥에 놓고 밟은 뒤, 공기를 넣어 묶으면 축구공 완성. 모양이 어설피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 메시가 와도 그라운드에서 택견 하는 꼴을 연출할 확률이 높다.



가죽공의 탄생
나뭇 가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1940년대 축구공. 흡사 럭비공 같지만 오줌보에 비하면 감지덕지.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엠블럼에 그려진 공의 형태와 유사하다.



최초의 공인구 '산티아고'
1963년 아디다스에서 제작한 최초의 피파 공인구. 정작 월드컵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중앙에 '산티아고'라고 적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축구왕 숯불이의 바로 그 공
1970년 FIFA 월드컵 때 사용된 공인구 텔스타. 비가 오는 날에는 돌처럼 딱딱해지는 바람에 선수들 발목이 아작나기 일쑤였다고 함. 텔스타는 '텔레비전 속 스타'라는 뜻(농담 아님).



잡을라니 잡을 수가 없다!
최첨단 공기 역학 기술로 만들어낸 2010 남아공 월드컵 공인구 자בל라니. 브라질 대표팀 골키퍼 줄리오 세자르는 "슈퍼에서 파는 싸구려 공 같다"라는 혹평을 남김. 반발력이 강해서 공을 잡기가 어렵다고..



After School Fun with **Oh!** GA EUN!

〈학교 2013〉 뒷자리에서 거울을 보며 연신 빗질을 해대는 새침한 학생 오가은이 사실 학창 시절 학생회장엔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던 범생이었다면 믿겠는가? 이런 늘씬한 친구가 같이 공부하는 학교라면 수능을 다시 보더라도 다닐 만하지 않겠어?

촬영장
습격하기



원피스 에이전시즈
구두 스티유
액세서리 이메지네이션악세서리즈

→ <학교 2013>을 위해 긴 머리를
싹둑 잘랐다고 들었다. 아깝지
않던가?

<학교 2013>에 머리 짧은 캐릭터가 하나
있어서 그걸 노리고 잘랐는데, 캐스팅
되고 나서 그 캐릭터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말 아까워서 땅을 치며
울고 싶더라. 지금 역할은 사실 짧은
머리와 아무 상관 없는 배역이다.

확장시절 교복을 즐겨입는 간지를
즐기는 학생이었나?

아, 물론이다. 셔츠는 허리만 좀 즐기고,
치마는 1cm 정도 올려 입었다. 그리고
조끼를 입지 않고 바로 재킷을 걸치는
거다. 조끼가 없어야 완벽한 핏이
나온다.

기회가 되면 <엽기적인 그녀>처럼
교복을 입고 나이트를 훑어보는 건
어떨까?

절대 싫다. <학교 2013>을 하면서
교복을 질리도록 입어서 다시는 입고
싶지 않다. <학교 2013> 교복은 치마도
짧고 팔이 조일 정도로 셔츠가 딱
붙는다. 게다가 요즘 날씨가 엄청 추운데
교복을 입고 있으려니까 얼어 죽을
지경이다.

어떤 학생이었나?

활발한 학생이었다. 남자애들한테
헤드록을 걸기도 하고, 교실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나왔으니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교실을
뛰어다니고,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그런
애였다. 중학교 때 별명이 '오랑말'
이었으니까.(웃음)

'오랑말'이라니, 여자로서 치명적인
별명이다. 교무실에 불러 간 일 중에
가장 화끈한 사건은 무엇인가?

못 믿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학생회장에 전교 1등을 했다. 예까지
않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수 연습생이
되면서 성적이 서서히 떨어지더라. 근데
가수, 그거 음악 좋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포기했다.

이렇게 예쁜데 전교 1등이라니 너무 사기
캐릭 아닌가? 사춘기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반항해본 적 있나?





반항하려다가도 금방 '깨갱' 하는 스타일이다. 아버지께서 엄하셔서 5초 정도 반항하다가 바로 죄송하다고 한다. 엄마한테 혼나도 20분 만에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하면서 금방 풀린다.

연예계 활동이랑 학교생활을 같이하면 가장 어려운 일이 뭐가?

나를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 싫었다. "야, 연예인!" 이렇게 비꼬는 친구가 많아서 정말 힘들었다. 그리고 '재는 연예인이니까 친해지면 좋겠다' 하면서 속이 보이게 접근하는 친구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본인 성격이 극 중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그냥 그 배역이 나다. <학교 2013>에서 앉는 자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앉던 바로 그 자리다. 앞을 보지 않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까지 똑같다. 친구들이 SNS에서 "왜 나는 고등학교 때 너를 보는 것 같냐. 너한테 연기적 요소는 없는 거냐?"라고 할 정도니까.

섹시 코드로 연기에 도전해볼 계획이 있나?

물론이다. <박쥐>나 <하녀> 같은 역할도 좋다. 사실 예전에 <은교> 오디션에서 최종까지 갔다가 제작사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거부당했다. 그때 열아홉 살이었다.

BY 박원복, 누리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S 박종민, 박수현, 최성준 HAIR MAKEUP 이혜진 LAYOUT 전은경

상악 이자배의 팬츠 이남도바사니 구두 스타유 액세서리 이메지네이션의세서라이즈

집이 엄하다면서 <은교> 역할은 어떻게 허락받았나?
"내가 주인공이야. 언제 내가 주인공을 해보겠어?" 하고
엄마를 졸랐더니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시더라. <은교>
가 1년만 늦게 개봉했어도 내가 은교로 나왔을 거다.

아직 어리지만 혹시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데 초조함을
느낀 적이 있나?

명절 때 사촌들이 "가은이 TV에 언제 나오니?" 하고
물어보면 그때 확 느낀다. 그래서 명절 스트레스가 좀
있다. 나는 시집가라는 소리 말고 TV에 언제 나오느냐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

<학교 2013> 촬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뭘 먹고 싶나?
곱창이랑 돼지껍데기가 먹고 싶어 미칠 것 같다.
아직 초딩 입맛이 남아 있어서 양념갈비, 피자, 치킨,
튀김처럼 살찌는 걸 무척 좋아한다. 먹으면 바로
찌는 체질이라 몸매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루에
세끼를 다 먹으면 1~2kg이 확 찌기도 하니까.

요리에는 관심이 없나?

물론 좋아한다. 근데 요리하기 전에 다 먹어버린다.
김밥 같은 건 썰면서 하나씩 먹으니까.



“

TV에 언제
나오느냐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

”

원미스 에잇세컨즈

귀여운 외모에 어울리지 않게 특이한 취향이 있나?

〈쏘우〉, 〈큐브〉처럼 사람을 찢어 죽이는 영화를 좋아한다. 그런 걸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기회가 되면 좀비 역할도 해보고 싶다. 눈을 하얗게 뒤집어 뜨고 다니면서 총을 계속 맞아도 죽지 않는...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가?

1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여배우 셋을 꼽았을 때 그 셋 중 하나가 되고 싶다.

10년 뒤면 서른한 살인데?

서른한 살이 뭐 어때서 그런가? 한가인도, 김태희도 30대다. 여자는 그 나이가 가장 예쁠 때가거든? 



오가은

생년월일 1993년 5월 25일

신체 170cm, 50kg

혈액형 O형

수상 스마트 모델 콘테스트 대상

데뷔작 〈학교 2013〉

학창 시절 최악의 과목

수학, 국사

몸매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

팔목에서 팔꿈치까지

오가은에게 최악의 남자란?

욕하고 물건 던지는 사람

오가은과 친구가 되자

twitter.com/gaeunion

COOPERATIONS, 이메지네이션액세서리아이즈(www.imaginationacc.com) 이사네이(02-3274-5633) 게스 언더웨어(02-914-9006) 아날도바시니(02-2068-3004)수조원(02-3443-1703) 보브(02-6911-0785) 에잇세컨즈(1599-0007) 블루페페(080-022-1500) 스튜디오(02-333-0880)

상의 블루페페
팬츠 아날도바시니
구두 스튜디오
언더웨어 게스 언더웨어
액세서리 이메지네이션액세서리아이즈

110
STRONGEST

XX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여성 역사(力士) 10인

세상의 반을 받치고 있는 게 여자라는 말, 진짜였다. 세계 최강의 XX 염색체들!

*이번 호에서 가장 무거운 기사나 페이지 넘길 때 주의할 것!

프라이팬
물음 마는
여자



力+女

당신은 강한 여자를 보면 강아지처럼 그녀의 가슴팍에 뛰어 들어가 얼굴을 묻을 건가, 아니면 경쟁심을 불태우며 스스로를 브록 레스너처럼 만들 것인가? 중요한 건 이 여자들 모두 엄청난 땀을 흘려가며 헤라클레스의 경지에 올랐으며, 고추 달린 당신도 범접하기 힘든 대기록을 세웠다. 사실이다. 편의를 위해 올림픽 정식 종목인 역도와 '스트롱맨 우먼스 월드 챔피언십(여자들이 각종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던지는 것을 겨루는 대회)'을 포함한 비올림픽 대회 기록과 기네스 기록을 모아 리스트를 만들었다. 따지지 마라. 어차피 당신을 종잇장처럼 접을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No. 10

쌀국수 파워 업!
티아나 호



2010년 8월, 베트남계 미국인이자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박사 호는 1시간 동안 합계 47,552.9kg의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여 기네스북에 올랐다. 20.77kg의 바벨로 총 2,289회의 스모 데드리프트를 성공시킨 것. 놀라운 건 그녀의 키가 152.4cm, 몸무게는 겨우 43kg이란 사실. 그녀는 1시간에 5,135 회의 스모 데드리프트, 11시간 51분 14초 동안 벽에 등을 대고 의자 없이 버티기로도 기네스에 올랐다. 이 여자, 독하다, 독해.

스모 데드리프트는 이렇게 하는 거.



어찌 좀 무섭다... 하! 어른 합성은 아님!



바퀴는 있는데 차가 없네...



들리고... 들리하~고호~

No. 9

날자, 날아 보자꾸나!
미하엘 페네캅프

해머던지기 등 무거운 것 던지기가 특이인 이 독일 중년 여인은 무게 12.3kg의 맥주통을 3.5m 높이의 공중으로 날려 '맥주통을 가장 높이 던진 여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역살 잡히면 바로 성총권 들고 날아가는 거.



가재 우주로!

No. 8

45kg의 소녀 장사
나오미 쿨린



작년 3월, 미국 뉴저지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의 유태계 소녀가 텍사스에서 열린 국제 역도 대회에서 영국, 터키, 중국, 북한, 카자흐스탄 등 역도 강국에서 온 언니, 이모들을 제치고 체급대 세계 기록을 수립했다. 자신의 몸무게인 45kg의 두 배가 넘는 97.5kg 무게로 스쿼트를 한 그녀의 나이는 겨우 10세(미국 나이), 종전 기록은 44세의 유럽 아줌마가 세운 94.8kg였다. 제 나이에 소녀 중 체급 불문 최고 무게 스쿼트와 데드리프트(95kg) 세계 기록을 보유한 쿨린이 역기를 들기 시작한 건 8세 때부터다. 가라데 레슨을 받던 딸 쿨린이 또래 남자애의 체력보다 월등하다는 걸 발견한 곡예 역사(力士) 출신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인형 대신 역기를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6kg짜리 바를 들던 딸 쿨린은 8세 때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67kg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원동력은? 부모가 우승 보상으로 약속한 푸딩 한 컵, 거품 목욕, 그리고 수족관 놀러가다.



최근 모습은 꽤 귀엽다!

무지개 양말이 오늘의 포인트.

어메이징 할머니들

이봐, 젊은이들,
힘만 세다고 최고가 아니야!

지니 레인만

타이틀: 세계 최고령 여성 레이스
나이: 90세 106일
기록: 우리나라가 경술국치 3년 째를 맞은 1913년 4월 19일에 태어난 호호 할머니, 한 일 월드컵 1년 후인 2003년 8월 3일 캐나다에서 열린 레이스 대회에 참가

E. 윌마 코너

타이틀: 세계 최고령 여성 보디빌더
당시 나이: 76세
기록: 1935년 5월 9일생인 그녀는 2011년 8월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

타마에 와타나베

타이틀: 세계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반가
당시 나이: 73세
기록: 1938년생인 할머니가 2002년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꼭대기 정복한데 이어, 2012년 5월 19일 또 다시 등정에 성공해 자신의 기네스 기록을 경신

캐롤라인 르 클레어

타이틀: 7대륙 최고봉을 정복한 최고령 여성
당시 나이: 60세 77일
기록: 51세가 될 때까지 등반을 해본 적이 없던 간호사 할머니가 2009년 5월 23일에 에베레스트에 오르며 일곱 대륙의 가장 높은 곳을 모두 정복

글레디스 버릴

타이틀: 마라톤을 완주한 최고령 여성
당시 나이: 92세 19일
기록: 2010년 12월, 하와이 호놀룰루 마라톤 대회에서 9시간 53분 16초로 마라톤 완주(참가가 아니고 완주)

마가렛 해거티

타이틀: 7대륙에서 마라톤 대회를 완주한 최고령 여성
당시 나이: 81세 101일
기록: 66세에 마라톤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73번의 마라톤을 완주한 그녀는, 1995년 72세 255일의 나이로 첫 대륙 마라톤 완주를 시작해 2004년 7월 4일 호주에서 7시간 49분 37초의 기록으로 전 대륙 마라톤 대회 완주에 성공



로즈가 마늘을
angkat 있다.

고려장 준비하니?



No. 7

소녀 헤라클라스
바리아 아쿨로바

나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지
않는다.
종합
비타민만
먹는다.

- '소녀 헤라클라스'
바리아 아쿨로바

2004년, 12세의 우크라이나 소녀 바리아 아쿨로바는 350kg짜리 바벨을 들어올리며 세계를 놀라게 한다. 이미 자기 아버지가 드는 것보다 무거운 무게를 들던 이 소녀의 당시 체중은 40kg. 14세 때는 성인 남자 4명을 한번에 들어올렸다. 아직 놀라지 마라. 아쿨로바는 이미 3세 때 100kg짜리 바벨을 들어올렸고, '지구 상에서 가장 힘센 소녀'로 기네스북에 두 번이나 올랐다. 꼭예 역사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딸의 힘을 눈치채고 훈련을 시켰다. 할아버지 역시 소문난 장사로 1,200kg의 무게를 든 기록이 있으며, 아쿨로바의 어머니 역시 보통 여자들보다 힘이 세다. 갓 스물을 넘긴 그녀는 올림픽 금메달과 스트롱맨 우먼스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위해 꾸준히 훈련 중이다. 무식하게 힘만 센 게 아니다. 아쿨로바는 아크로배틱과 복싱, 킥복싱, 레슬링 등 다양한 스포츠를 훈련했으며, 어릴 때부터 영특하기까지 해 3세 때 이미 글을 읽을 수 있었고, 학교에서도 늘 최고 성적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보기보다
신나진 않아.



그녀의 최근 모습이 각실각실하다.
힘 좋고 발육 좋고!! 의상 좋고!!!

No. 6

부창부수 여장사
크리스틴 로즈

2012년 스트롱맨 우먼스 월드 챔피언십 우승자, 즉 가장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힘센 여자로 공인된 역사(力)사. 미국인인 그녀는 이 대회에서 220kg를 들어올렸다. 장기는 '한 손으로 무게추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로 최고 기록은 114kg다. 지난 12월엔 35kg짜리 무게추를 26회 연속 들어올려 기네스에 올랐다(총 910kg).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지고 걷는 종목인 '슈퍼 요크' 최고 기록은 320kg을 들고 15.24m를 걷는 것이다. 한번에 137kg는 거뜰히 들며, 평소 훈련 때는 207kg이 넘는 무게를 실어 스쿼트를 하는 괴력의 로즈는 이미 전미 스트롱맨 우먼스 챔피언십을 다섯 차례나 휩쓸었다. 같은 '스트롱맨'인 남편 도니의 권유로 힘 대결 대회에 참가하게 된 그녀. 이 덕 부부싸움 나면 집이 가루가 되겠다.

No. 5

지상 최강의 여자
베카 스완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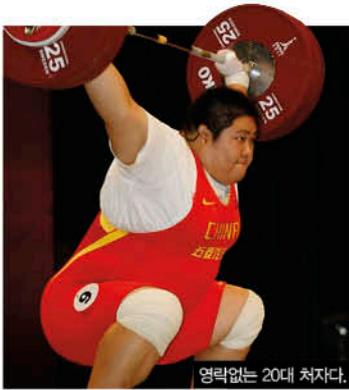
키 178cm, 몸무게 110kg의 미국인 여성 보디빌더이자 파워리프터, 프로레슬러. 별명은 '지상 최강의 여자'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 프레스, 그리고 그 합계에서 세계 기록을 달성한 그녀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362.8kg 이상의 스쿼트를 하고, 272.2kg의 무게로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는 여자라고 한다. 나름 미니스쿼트를 차려 입은 모습... 왜 우리 삼촌 같지?



No. 4 미란이 금메달이 내 손에! 탕공홍

1998, 1999년 2연속 세계선수권 금메달,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금메달, 2004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국 여자 역도 영웅 탕공홍의 선수 시절 체격은 키 172cm에 몸무게 120kg, 딱 봐도 여장사다. 아테네 올림픽 결승에서 장미란의 302.5kg 기록을 꺾기 위해 마지막 순간 합계 305kg

을 들어올려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앗아간 장본인이다. 마지막 시도 당시 역기를 들고 딱 정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렸으나 금메달이 주어졌기에 특히 우리나라 안티가 엄청났다. 어쩌랴, 국제 역도계에서 중국 파워가 워낙 대단한 것을. 그것을 끝으로 은퇴한 그녀는 최근 22kg나 감량했고(그래도 98kg), 지난해 12월 1일, 36세의 부동산업 종사자인 남자와 결혼에 골인했다. 둘은 첫눈에 반해(!!!!)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한다. 속도위반?



영락없는 20대 처자다.

No. 2 세계 여자 역도 1인자 저우루루

장미란 선수가 4위를 한 런던 올림픽 여자 역도 부문 금메달리스트, 그녀는 이 대회에서 자신의 기존 세계 기록인 용상 328kg을 333kg으로 경신했다. 키 175cm에 체중 133kg, 5XL를 입는 저우루루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다. “물고기자리라 로맨틱한 것을 좋아해요. 쇼핑을 좋아하지만 뭘 많이 사진 않아요. 맞는 옷이 없어서.” 물고기자리가 아니고 고래자리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힘센 여자가 많은 나라는?

춘리 캐릭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 1위 중국
- 2위 러시아
- 3위 타이베이
- 4위 키자흐스탄
- 5위 불가리아
- 6위 대한민국
- 7위 타이
- 8위 헝가리
- 9위 미국
- 10위 인도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 메달 경쟁순 (1987~2012)

중국은 여성 역도계의 넘사벽이다.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지금까지 중국이 가져간 금메달 수는 무려 116개. 2위 러시아보다 105개나 많다. 총 메달 수는 156개로 2위 러시아보다 114개가 많다. 우리나라는 금 4개, 은 9개, 동 10개로 세계 6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 중 4개의 금메달은 2005~2009년에 장미란이 딴 것.

거기 그만 민저,
이 여자야.



No. 3 프라이팬 말기의 달인 아네타 플로르치크

역도가
좋다면
체형이나
여성미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시원한 미소를 가진 상당한 미모의(아마 이 기사에 등장한 성인 여자 중 가장 예쁜) 그녀가 프라이팬을 신문지처럼 돌돌 마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20초. 2008년 그녀가 찍어올린 이 유튜브 영상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다. 플로르치크는 1분 동안 4개의 프라이팬을 말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고, 2008년 거기에 1개를 더해 총 5개의 프라이팬을 1분 동안 돌돌 말아 자신의 기록을 갱신했다. 1982년에 폴란드에서 태어난 그녀는 16세 때 역도를 시작해 수차례 자국 대회를 휩쓸었고, 이어 전 유럽과 세계 대회를 제패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4연속 스트롱우먼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그녀가 세운 또 다른 기네스 기록은 성인 남자 12명을 들어올린 것이다. 이로써 그녀는 자신이 지구 상에서 가장 빠른 여성임을 자기 '힘'으로 증명했다. 참고로 그녀의 라이벌은 10명밖에(?) 들지 못했다.

-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용상 세계 기록
보유자 저우루루



계란말이
잘 되라고.





장미랑이 느껴지나!!!!



No. 1

멋지다! 아름답다! 최고다!

장미란

전 무후무한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그녀는 그 어떤 선수도 가지 못한 길을 개척했다. 1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우람하고 힘센 여자들,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여자들과 경쟁했고, 경기마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놔다 하는 최고의 명승부를 펼쳤다. 매 순간 대기록이 탄생했다. 국내 대회 금메달은 너무 많아서 세기도 힘들다. 세계선수권대회 4회 연속 제패.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금메달과 은메달을 쓸어 역대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장미란은 지난해 12월 10일 눈물을 흘리며 15년의 역대 선수 생활을 은퇴했다. 런던 올림픽 마지막 3차 시기, 부상으로 인해 전성기 때 기록이 나오기 힘들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바벨을 들어올리던 그녀. 결국 170kg의 바벨을 떨어뜨리고 숨을 고른 뒤 관중의 박수에 손을 흔들어 응답하던 장미란의 미소와 바벨 키스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굿바이'였다. 경기 후 인터뷰를 앞두고 마이크를 들고 한참 울던 그녀는 오히려 "실망시켜드려서 염려스럽다"고 말해 대한민국을 울렸다. 바벨이 아닌 국민 모두의 희망과 기대, 그리고 인생을 들어올린 아름다운 그녀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 로즈란, 사, 사랑해!



언니들 땀!

로즈란을 피워낸 한국 최고의 여성 역사 3인방 한국 여자 세다.

이름 보고 놀리면 큰일내!

원순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역도 스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을 그녀는 진짜 1968년생 원순이이다. 원순이는 1987년 4월 TV에서 역도 선수 모집 광고를 보고 무작정 훈련장을 찾았다. 그리고 7개월만인 그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56kg 이하급 은메달을 쟁취했다. 이어 1988년 자카르타 세계선수권대회, 1991년 도나우에싱겐 대회에서 은메달, 1992년 미안파에서 동메달, 1993년 멜버른에서 다시 은메달을 거머쥔다. 1996년엔 한국 신기록을 3개나 달성하고 다음 해 은퇴를 선언한다. 그녀는 요즘 학생과 후배 선수의 훈련을 도우며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아름다 파워 업!

최명식

한국 여자 역도의 간판 최명식. 남편 역시 역도 선수 출신인 그녀는 국제 대회 이력도 화려하다. 1988년 자카르타 세계선수권 44kg급 동메달을 시작으로 체급을 올려가며 1989년, 1990년, 1996년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접수했다. 2000년 전국체전에서선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에도 투혼을 발휘해 인상, 용상, 합계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감동 드라마를 선보였다. 2005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중 조절을 위해 하루에 줄넘기를 5천 번씩 했다는 그녀는 이 대회에서 하루에 한국 신기록을 5개나 세우고 금메달 3개를 쓸어 담는 기염을 토했다. 2006년에도 역시 체급도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그야말로 기록 제조기.

미란아, 코치님 나왔다!

김순희

장미란의 런던 올림픽 코치 김순희는 한국 역도를 세계 레벨로 이끈 주안공. 고교 시절 역도를 시작해 1997 차양미이 세계선수권 은 동메달, 1998 방콕 아시안 게임 은메달의 쾌거를 올린 그녀의 기록은 1999년에 절정을 맞는다. 봄철 여자 역도대회(75kg급)에서 5개의 한국 신기록을 달성한 김순희는 전국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 역도 최초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다. 그해 아테네 세계선수권대회 용상에선 금메달마저 따냈다.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세계 대회 금메달이었다(인상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해 준우승). 그녀는 2006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장미란과 나란히 은메달을 따고 2010년 전국체전을 끝으로 멋지게 은퇴한다.

1983

그해 10월 9일, 세계 여자 역도의 전설이 될 여자아이가 강원도 원주에서 탄생

61

네이버 프로필 경력 사항에 적힌 그녀의 수상 내역 개수

5.9

출생 당시 체중. 장미 씨이 원래 이렇게 큰가?!!!

40

그중에서 우승 횟수와 금메달 개수의 합

10

바벨을 처음 잡고 첫 대회 입상까지 걸린 날짜. 그녀는 역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강원도 내 중학생 대회에서 우승했다.

5

2008 베이징 올림픽 때 그녀는 다섯 번이나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그대는 진정한 60억분의 1!

285

그녀의 키(cm)와 몸무게(kg) 숫자를 더한 합

A

꽃꽂이를 좋아하는 로즈란의 혈액형은 섬세한 A형

전 누구보다 행복한 선수였습니다.

- 장미란



이 기사에서 어떤 거 기대했다면 미안.

MISS M



2013
**MISS MAXIM
CONTEST**
The 1st
SEMIFINALIST

박선혜

MISS MAXIM 최연소 지원자로 순수한
외모와 달리 음주가무를 즐기는 반전
매력녀, 박선혜



브래지어 캠티블라인 언더웨어

AXIM

OF THE MONTH



박선헤

이상형 남자다운 사람
활동 지역 전국
주량 소주 2병
좋아하는 음식
닭발 같은 매운 음식

BY 김희성 WORDS 조영재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UP 이주연 FILM 최성준 ASSISTANT 최영희 LAYOUT 정은경 COOPERATION 엘비블리인 인더베이(02-3447-7701)



→ MISS MAXIM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같은 댄스 팀에 있는 언니가 2년 전에 MAXIM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진이 너무 예뻐요.(웃음)

댄스 팀이라면, 어떤 댄스를 추나?
취미로 가끔 가는 댄스 팀이 있는데 풀댄스부터 클럽댄스까지 다 배운다.

풀댄스? 그럼 클럽에서 뽐춤도 추나?
술 먹고 기분이 좋아지면 가끔 혼자서 뽐 타고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관계자가 와서 "여기서 이리시연 안 됩니다"라고 한다.(웃음)

MAXIM과의 촬영은 뽐춤만큼 신났나?
재미있었다! 사실 "실물은 구리네요" 하고 욕먹을 줄 알았다.(웃음)

남친 있나?
없다. 남자는 많다.(웃음)

술버릇이 있다면?
남들 얘기로는 취하면 도발적으로 변한다던데, 난 잘 기억나지 않는다. (웃음) 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냥 집에 간다는 거. 그래서 욕먹는다.(웃음)

무인도에 세 가지를 가져갈 수 있다면?
남자, 술 그리고 MP3 플레이어. 남자 옆에 끼고, 노래 틀어놓고, 바다를 보며 술 한잔 하면 그게 낙원 아니겠나!

피부가 예술이다. 비결이 뭔가?
어려서 그렇다.(웃음) 파랗파랗한 스킨을 쓴

당신 같은 여자가 대쉬하면 다 넘어오겠다.
최근 너무 외로워서 클럽에서 번호를 댄 적이 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가린다. 근데 10분 뒤 다시 와서는 "여자가 먼저 번호 따는 거 아니예요" 라고 하는 거 있지.

그에게 저주의 한 마디를 퍼부어 주자.
"술직히 나도 니가 썩...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



애용하는 보디 클렌저
클린트 향 클렌저

좋아하는 남자 향수
스킨 향이나 섬유유연제 향

특이한 목욕 습관
물을 계속 틀어놓고 점점 온도를
높인다.

평균 목욕 시간
1~2시간. 기분에 따라 늘어났다.



언더웨어 세트
캠블린라인 언더웨어



2013
**MISS MAXIM
CONTEST**
The 2nd
SEMIFINALIST

정예진

벨리댄스로 다듬은 탄탄한 몸매로 모든 스타프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그녀, 정예진

종종한
촬영 현장
엿보기



브래지어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 정예진

이상형 교수
활동 지역 강남 일대
주량 소주 2잔
좋아하는 음식
쇠고기, 단 음식



반갑다! 당신 같은 여자가 MISS MAXIM에 지원해서 기쁘다.

주변 친구들이 MAXIM 얘기 하는 걸 듣다가 MISS MAXIM을 알게 됐다. 니가보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원했다

범상치 않은 미모다. 남자들이 자주 들이댈 것 같은데?

그렇다! 솔직히 좀 귀찮을 정도로 들이댄다! 정말.

뭐라고 하면서 꼬시던가?

가지가지다. 카페 같은 데서 편지를 써 주는 사람도 있고, 거리를 걷다 보면 옆 차도에서 지나가던 차를 멈추고 휴대폰을 던지며 번호 달라는 사람도 있다.

예전에 MAXIM에 실린 MISS MAXIM중 기억에 남는 후보가 있다면?

수지 달으셨던 분(김수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예쁘더라.

모델이라고 들었다. 우리가 당신을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그렇지도 모르겠다. 청바지 피팅 모델도 하고 화장품 CF를 찍은 적도 있다. 최근에는 극장과 케이블TV에 나오는 성형외과 CF도 찍었다.(웃음) 요즘 나오고 있을 거다.

백린타인데이에 남자친구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 있다면?

봉투에 현금을 넣어 준 적이 있다.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주머니에 스윽 넣던데? 싫어하는 척하면서 받더라.(웃음)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

올해 1월을 이렇게 즐겁게 시작해서 기분이 아주 좋다! 이 기운이 연말까지 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애용하는 보디 클렌저
베이비파우더 향 클렌저

좋아하는 남자 향수
이베크롬비 맨 향수

특이한 목욕 습관
피부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물을
안 닦고 나온다.

평균 목욕 시간
1시간



2/14 밸런타인데이

로마 시대에는 탈영이 엄려돼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발렌티노라는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몰래 이들의 결혼을 주례해주었는데, 결국 발각되어 사형되고 말았다. 이를 기리기 위해 생긴 것이 발렌타인데이...라고는 하나, 이걸 나중에 갖다 붙인 얘기고, 원래는 2월 14일부터 새들이 교미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시작된 날이라고, 조류가 발정 났다고 영장류도 초콜릿을 미끼로 바치고 곤충을 세워야 한다니, 웬지 자존심 상하는데?

이날의 작업 멘트: 내 초코송이 맛 좀 볼래?



3/3 삼겹살데이

죽어가는 축산 양돈 농가를 살리기 위해 지역 축협이 301 겹치는 3월 3일을 '삼겹살데이'로 지정했다. 삼겹살은 밥, 파채, 마늘, 양파, 버섯, 김치, 쌈장, 기름장과 함께해야 제 기량을 발휘하니 이날 하루는 양돈 농가뿐 아니라 농수산업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삼겹살데이에는 돈 아간다고 수입 냉동 대패 삼겹살 씹지 말고 국내산 삼겹살을 먹어야 간지다.

이날의 작업 멘트: 오늘 하루는 삼겹살이 되어 불편처럼 달궂진 내 몸에서 구워지고 싶어.



이러니까 여자들이 뺨이가지.

3/14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일본의 '전국사랑과자공업 협동조합'이 매상 증진과 재고 처리를 위해 1978년에 만든 기념일이다. 혹시 이번 화이트데이에 좋아하는 여성에게 선물 공세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사랑보다는 초콜릿을 선물하라. 대부분의 여성이 사랑보다 초콜릿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초콜릿보다 명품백을 더 좋아한다.

이날의 작업 멘트: 사랑발림이 아니야. 사랑해. 그런데 혹시 300만 원 정도 여유 있나?



4/14 블랙데이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선물을 받지 못한 남녀가 옷을 비롯해 구두, 양말, 액세서리까지 검은 옷을 입고 자장면을 먹고 블랙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만난 남녀가 연인이 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재수 없는 건 솔로가 아닌 커플도 중국집과 커피숍에 우글우글하다는 점이다.

이날의 작업 멘트: 오늘 침대 위 메뉴는 '자장 떡볶이'로 하자.

5/2 오이데이

숫자 5와 2에서 착안, 농촌진흥청이 오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이날을 '오이데이'로 지정했다. 오이 피클을 주문하면 피자가 달려오는 이벤트는 없나?

이날의 작업 멘트: 내 오이 딱딱해졌어. 어떡할 거야.



5/3 오삼데이

오징어와 삼겹살이 들어간 오삼 불고기를 먹는 날이다. 오징어와 삼겹살의 조합만큼 획기적인 발명이 있을까? 역대 최고급이라는 루이 비통과 무라카미의 컬래버레이션도 오삼불고기를 따라오려면 멀었지.

이날의 작업 멘트: 우리도 오징어와 삼겹살처럼 한번 섞여볼까?



6/9 치아데이

6세 때 영구치(09)가 나온다고 해서 치과 의료인들이 6월 9일을 치아데일로 정했다. 앞니에서 여섯 번째에 있는 영구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렇다. 69를 하려면 구강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 암요, 그럼요.

이날의 작업 멘트: 69할래?

6/14 키스데이

이성이면 누구와 입맞춤해도 괜찮은 날이 아니니, 꼭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시작하자. 법적 효력이 있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이 멍충아.

이날의 작업 멘트: 츄르름



7/5 추어탕데이



7과 5가 추어와 발음이 비슷한 데서 착안해 2005년 전북 남원시에서 남원의 명물인 추어탕을 홍보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남원시는 보양식인 추어탕 먹고 주체할 수 없이 세진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도 제정하라!

이날의 작업 멘트: 오늘따라 내 미꾸라지가 왜 이렇게 꿈틀거리지?

7/14 실버데이



사과라 은은 안되겠니.

칠월칠석을 맞아 연인끼리 은반지(은제품)를 선물하는 날이다. 대체 무슨 상관이지? 건우와 직녀도 종로 3가에서 커플링 맞췄다고 광고할 기세네.

이날의 작업 멘트: 내 곤휴에 너에게 줄 반지가 걸려 있어. 뽀수 있으면 빼가.



8/8 라면데이

'사랑하는 연인끼리 라면을 팔팔 끓여먹자'는 의미에서 라면데일로 불린다. MAXIM 에 라면 기사를 쓰는 누들러도 모르는 날을 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날의 작업 멘트: 우리 집 가서 라면 한 젓가락 하고 가. 후식으로 짜빠구리?



8/14 그린데이

연인끼리 삼림욕을 하며 무더위를 달래는 날이다. 하지만 소주 업계가 신이 나서 전 국민의 폭음을 독려하는 이벤트를 벌이는 날이기도 하다. 아니, 이날 애인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술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뭘 또 이벤트를 벌이실까.

이날의 작업 멘트: 이 잔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9/9 구구데이

9월 9일을 숫자로 써서 읽으면 닭을 불러 모을 때 부르던 99(구구)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데서 나온 말로, 2003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전쟁 군대에서는 365일 주구장창 닭고기만 나오길래 이런 날이 있는지도 몰랐네.

이날의 작업 멘트: 모텔 가서 치킨이나 뜯자.





9/14 포토데이

연인끼리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서 한 장씩 나눠 갖는 날이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연인이 같이 찍은 사진을 각각의 수첩에 끼워 놓고 다닌다면 더욱 돈독해진다는 의미다.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족쇄가 될지는 생각지도 못한 채.

이날의 작업 멘트: 사진은 식상하니까 우리는 영상으로 남기자. 일단 벗...

10/14 와인데이

연인끼리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다. 유럽에서는 포도 수확철인 10월과 11월에 지역별로 축제를 여는데, 이것이 1990년대 후반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와인 제조업자, 백화점, 와인 전문점의 상승과 만나 14일에 자리를 잡았다. '마시고 죽자'는 한국에서 은은하게 즐기는 와인은 참 뜬금없는데, 와인 업계는 와인데이를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에 이어 연인들의 3대 기념일이라고 주장한다. 가요계 3대 섹시퀸에 현아, 효성 그리고 효녀 가수 현숙이 끼는 느낌이네.

이날의 작업 멘트: 이 와인 참 드라이하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아침에 우리 집 드라이기 쓸래?

11/8 브래지어데이

브래지어 끈 모양의 11과 가슴 모양의 8을 본떠 만든 날로, 브래지어를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한다. 급한 마음에 아직 연인도 아닌데 뽀빠로데이 이전에 이런 과감한 선물을 하는 바보는 없겠지?

이날의 작업 멘트: 사이즈 괜찮아? 내가 사준 게 잘 맞는지 한번 봐야겠는데...



11/11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

꼭 연인 사이에만 주고받는 쫄쫄한 날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과 우정,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1994년 부산 영남 지역 여고생들이 1의 숫자가 네 번 겹치는 11월 11일에 친구끼리 우정을 전하며

'키 크고 날씬해져서 예뻐지자'라는 의미로 빼빼로를 선물하기 시작한 데서 퍼졌다. 이를 제대로 이용한 롯데제과는 매년 11월이 되면 매출이 폭증해 벌어들인 돈을 삼으로 퍼 담기도 어렵다고. 2003년 11월 11일부터는 행정안전부가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빼빼로 대신 가래떡을 즐기자는 의미에서 '가래떡데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바구니에 코딱지만 한 가래떡이랑 곰인형 하나 달랑 넣어두고 몇만 원씩 받아먹는 건 아니겠지?

이날의 작업 멘트: 금방 붉은 듯한 쫄쫄한 내 가래떡으로 엉덩이 한번 맞아볼래?



12/14 허그데이, 양말데이

연인끼리 서로 포옹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양말을 선물하기도 한다. 그냥 두 개 합쳐서 아무것도 안 입은 채 양말만 신고 포옹하는 날로 하면 안 되나?

이날의 작업 멘트: 한번 안아봅시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매달 3일 삼각김밥데이

돈에 눈이 먼 편의점들이 뜬금없이 삼각김밥을 들고 나섰다. 이런 마케팅 할 시간 있으면 삼각김밥에 참치마요네즈 양이나 좀 늘려줘.



Who's that Girl?

Chic Black 이예빈

'애니팡녀'와 '슬로대첩'으로 못 남성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그녀, 이예빈이
MAXIM 독자들의 마음을 헤집으러 왔다

구두 슈즈원

모델 소장품
충격의
전신망사!



BY 조용재 PHOTOGRAPHY ARC STUDIO HAIR&MAKEUP 이주연 ASSISTANT 최동희 기네 최성준 L'AOUÉ 서울점



'솔로대첩'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처음에 나간다고 하게 된 계기는 뭔가?

계기를 말하자면, 페이스북에 왜 '참가' 버튼 누르는 페이지 있잖은가. 거기에 솔로대첩 행사가 있길래, 재미있겠다 싶어 참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페이지에 일루드를 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검색 순위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 기껏거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그런데 왜 안 나갔나? 많은 남성이 침을 흘리고 있었는데, 댓글 때문이다. "나와만 봐라, 가슴 만지고 튀어야지"라는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뿐 아니라 입에 담지 못할 야한 댓글이 올라오자 술술 무서워졌다. 주변에서도 "신짜 나갈 생각이냐. 큰일 난다"라며 말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지(웃음)



She was here



솔로대첩
솔로대첩에 나온다고 했다가 급취소해 남성들의 뭇매를 맞은 그녀!



애니팡녀
지스타 부스걸 중 단연 최고의 귀여움을 자랑한 그녀, 구글링만 하면 사진이 우수수!

Who's that Girl?



속옷 하의 게스 언더웨어

예전에 MAXIM과 촬영한 적이 있다.

2010년에 레이싱 팀 소속으로 멤버들과 촬영했다. 추운 야외에서 비키니까지 입고 엄청 오랫동안 고생했지만 결과물이 훌륭하게 나와서 뿌듯했다.

안 그래도 MAXIM 홈페이지의 '섭외 요청 게시판'에 당신을 섭외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표지 모델을 시켜달라.(웃음)

사실 2012년 12월호에 지스타 취재를 하다가 당신을 몰래 찍어 왔다(2012년 12월호 52p 참조).

정말? 다른 부스 모델도 10명 정도 있었는데 나를 봤다니. 처음부터 MAXIM과 함께할 운명이었다 보다.(웃음)

레이싱 모델 출신이다. 이미 상당한 경력의 소유자인데, 방송 일도 한다고?

레이싱 모델은 7년 정도 했다. 현재는 <카운셀링 유> 라는 프로그램에서 MC를 보고 있다.

매끄러운 진행으로 호평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다. 방송 일은 재미있나?

누가 그래? 진짜?(웃음) 레이싱 모델 일이나 방송 일 모두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솔직히 지금은 방송 쪽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 새로운 일이기도 하고 나이도 있다 보니 전문 방송인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당신이 도착했을 때 스튜디오에서 MISS MAXIM 2013년 후보들이 촬영하고 있었다. 보니까 느낌이 어떨던가?

처음 모델 일을 시작하던 무렵이 떠올랐다. 어린 나이가 부럽기도 하고... 하지만 내 나이가 싫다는 건 아니다. 그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도 여자는 역시 당신처럼 능동한 매력이 있어지지.

거짓말 마라. 남자들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꼭 어린 여자애를 좋아하더라고.(웃음) 나도 지지 않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경쟁심이 생겨서 말이다.

모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충고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충고해도 소용없다. 직접 몸으로 느껴야 깨닫는다. 확실한 두 가지는 '늘 겸손할 것', 그리고 '자기 관리에 충실할 것'.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당신 팬일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화보 콘셉트를 '양치기 소녀'로 하려 했다가 취소했다.

뭐야! 내가 뺑쟁이라고?(웃음) 억울하다(웃음). 사실 일부러 뉴오려고 한 것도 아니잖나. 당신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봐. 말릴 거잖아. 억울하다!

진정하자. 당신에게 한 가지 이를 게 있다. 당신을 취재한 모 스포츠 신문 인터뷰 중간에 '강예빈'이라고 쓰여 있다.

나도 봤대! 한창 재미있게 보다가 "강예빈이 여기 왜 나와?"라며 빈정 상했다.(웃음)

밸런타인데이가 다가오는데, 옛 남친에게 해준 밸런타인 선물 중 가장 특별한 선물은?

부끄럽지만, 어릴 땐 남친에게 내 얼굴을 쿠션과 블라인드에 신자수로 새겨준 적이 있다. 목도리를 선물한 적도 있고, 아오 이런 거 여기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 별짓 다 했구나' 하고 뭐라 하겠네(웃음) 그래도 직접 만들어 주는 게 좋잖아.

이번 밸런타인데이에는 특별한 계획 없나?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그전에 누군가를 만나면 뭔가 계획이 생기겠지. 항상 현재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잘해야 하는 것 같다. 그래야 헤어져도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남친이 생겨야 할 텐데.(웃음)

마지막으로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 던져주자.

항상 이 질문이 제일 어렵다. 2013년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예쁜 모습으로 다가갈 테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웃음) 일러뷰! 



“

늘 겸손하게 생활하고
자기 관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

속옷 하의 게스 언더웨어

Who's that Girl?



전신망사 보디슈트 모델 소창
속옷 하의 게스 언더웨어



이예빈

생일 4월 8일

키 167cm

몸무게 47kg

학력 중앙대학교 의류학 학사

취미

게임, 최근에 시작한 골프

주량

역대 최고 기록: 소주 5병

최근 평균 주량: 소주 2병

이상형

웃는 모습이 예쁘고 마르지

않은 남자

활동 지역

강서구(가주지)와 강남구

(직장) 일대



Party



the MAXIM : 2012.12.23 Party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갈수록 뜨거워지네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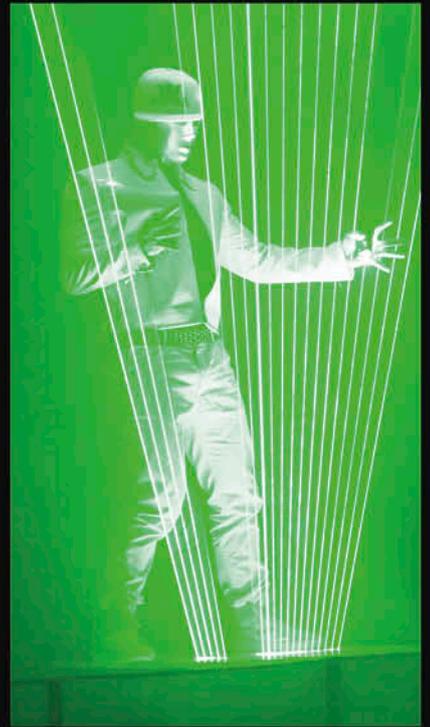
반얀트리 호텔, 대천 해수욕장, CLUB ELLUI (엘루이)에서 하얗게 불태운 지난해 여름 MAXIM PARTY. 다들 그때의 기억이 꽤나 강렬했는지 크리스마스를 맞아 MAXIM이 파티를 연다는 소식은 발 없는 말처럼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크리스마스이브 전날 MAXIM 파티를 여는 용단을 내리노니 너희는 가서 이 땅에 주지육림을 실현하리라."





대망의 크리스마스이브를 하루 앞둔 2012년 12월 23일, 우리는 이브 밤을
고요하고 거룩하게 지새울 솔로들을 위한 마지막 축제를 열었다. 장소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CLUB OCTAGON(옥타곤). 왜? 규모도 시설도
안주도 수질도 우주 최강인 요즘 가장 질나가는 클럽이니까. 옥타곤은
크리스마스 주간인 12월 20일부터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월)까지 5일
연속 파티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MAXIM PARTY가 있던 23일은 특히나
무슨 미인 대회라도 여나 샴을 만큼 아리따운 처자가 많았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을 기점으로 클럽비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우주를 찌를 듯한 기운의 수컷과 아찔한 옷차림의 미녀들로 클럽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갔다. 초대형 LED 전광판에서 펼쳐진 레이저쇼와 DJ 비제이(Beejay)와 마인드벤더(Mindbender)가 결성한 프로젝트 듀오를 비롯한 총 11명의 유명 DJ가 높아진 열기를 한껏 고조하는 데 일조했다. 게다가 MAXIM PARTY에서만 볼 수 있는 MISS MAXIM의 등장으로 클럽비들은 마치 시상식원이라도 온 듯한 표정을 지었다.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하더니 그야말로 명불허전 MAXIM PARTY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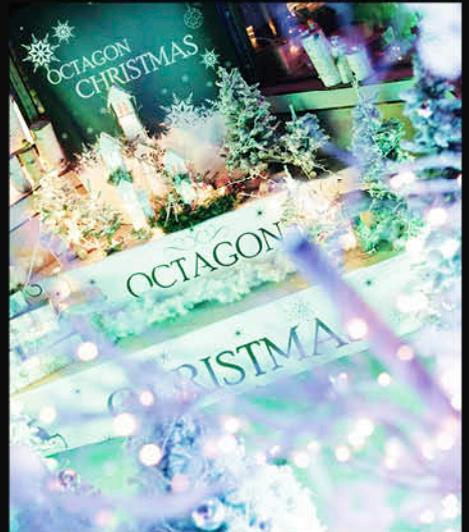


2011
MISS MAXIM TOP 3
김지예



2010
MISS MAXIM 우승자
최혜연





그게 다가 아니었다. 클럽 옥타곤의 럭셔리하고 감각적인 내부 디자인도 분위기를 무릉도원으로 만드는 데 한몫했다. 빈 공간을 모티브로 환기 시설, 소방 시설, 엘리베이터 등의 구조물을 그대로 노출한 공간에 수영장과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외국 클럽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얼마 전 상해에서 제일 핫하다는 클럽에 다녀왔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백만 배 더 좋았다고 하면 믿으려나? 그날 누군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클럽을 나서더라. "집지는 MAXIM, 클럽은 옥타곤." 🍷



Party



작업용 칵테일 5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눈에 들어온
괜찮은 바텐더 한 명. 클럽 무브를
취하게 만드는 바텐더 박기보
(33) 씨에게 물어봤다. "오빠, 여자
고시기 좋은 술이 뭐야?"

1위 스크루드라이버

일명 플레이보이, 레이디
킬러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작업에
적합하다. 무색 무미 무취 보드카에
오렌지 주스를 혼합했기 때문에
술맛과 술 냄새가 나지 않아 술을 잘
못 마시는 여자도, 도수가 높은 술을
싫어하는 여자도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칵테일. 그는 에디터에게 "도수가 높아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으니 애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스크루드라이버를
주문해 준다면 조심하라"는 충고도
덧붙였다. 근데 스크루 드라이버의
뜻을 해석해보니 '나사돌리개'... 뭔가
의미심장하다?

2위 테킬라선라이즈

강한 테킬라에 오렌지 주스를
첨가해 술이 약한 여자들이 좋아한다.
게다가 색감이 환상적으로 예뻐서
보기만 해도 옆에 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위기
잡기에 딱 좋은 칵테일.

3위 피치 크러시

복숭아 향이 나는,
새콤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지닌
칵테일. 도수가 강하지 않고 맛이
달달해 취하는지도 모르고 먹게 되니
대화를 하면서 마시기에 적합한
칵테일이다. 술이 술술넘어가네.

4위 섹스 온 더 비치

'해변의 정사'라는 아한 이름의
술. 야시한 칵테일 이름 탓에 주문할
때마다 조금 부끄럽지만 맛이 부드럽고
달아 에디터도 좋아하는 칵테일이다.
맛도 이름도 아름답구나.

5위 블랙 러시안

보드카에 커피 리큐어를 넣어
만든 칵테일로, 검정 빛깔이 신비롭고
멋있어 보여 블랙 러시안을 주문하는
남자는 웬지 있어 보인다. 양주의
알코올과 흑설탕이 오묘하게 조화한
맛이며 도수가 꽤 강해 그녀를 빨리
취하게 하고 싶을 때 마시면 좋다고.



Hot Spot #1. CLUB MOVE

당신이 퇴근하고 가야할 곳은 바로 여기.

핫 플레이스가 모여 있는 이태원에 클럽 하나가
오픈했다는 소식이 들었다. 이름은 CLUB MOVE.
20, 30대를 타깃으로 한 럭셔리 라운지 클럽이라고
했다. 눈이 어둡어독한 실내에 적응하니 곧 무너져내릴
것 같은 콘셉트의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의 은밀한 만남을 위한 지하 병커같은

느낌이었다. 분위기 괜찮은 바와 클럽이 즐비한
이태원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인테리어였다.
주변에 잘나간다는 회사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터라
퇴근하고 가볍게 술 한잔 하려는 오피스 워커가 많이
찾는다고. 커리어 우먼이 이상형인 당신이라면 이곳에서
술 한 병 기울이며 인연을 찾아보는 것도 꽤 괜찮을 듯.

클럽 내부
살살이
훑어보기



온라인 프리미엄 Subscription + Curation Store

NINETEEN+BOX
Pursue the pleasure

우리커플 or 나에게 필요했던 그것!
한달에 한번씩 받아보세요



**매월 26일,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이 도착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WWW.NINETEENBOX.COM

Valentine's Day Gift **in Bikini**

섹시한 기운을 온몸으로 뿜는
모델 **로지 로프**를 보고 있노라니 밸런타인데이엔
초콜릿 못 받아서 축쳐진 어깨에 호랑이 기운이 솟는다.
역시 가슴이 예뻐야 여자다.



oh,



Rosie!



“

난 요리를 아주 잘한다.
남자를 아주 쉽게 길들이는
좋은 방법이다.

”



몸매가 환상적이다. 봉춤으로 몸매 관리를 한다고 들었다.

보기보다 무척 힘든 운동이다.

정기적으로 수업을 들진 않지만 봉에 매달려 오르기, 거꾸로 매달리기 같은 기본 동작도 할 줄 안다! 그래도 피트니스센터나 수영장 가는 게 더 좋다. 운동은 바뀌면서 해야 한다! 새롭게 동기부여가 되고 흥미도 잃지 않는다. 운동이 지루해지면 봉춤 레슨을 받거나 하이킹을 한다. 최근엔 핫요가를 해 봤다. 확실히 몸이 전보다 유연해지고 더 잘 굽혀진다!

지금 당신 냉장고엔 뭐가 들어 있나?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일단 현재까진 착하게 관리 중이다. 정제당과 고탄수화물을 끊었고, 야채와 과일 그리고 엄청난 양의 닭고기를 먹고 있다. 유제품도 다 끊고 두유로 바꿨다. 냉장고에 다이어트 프로틴 바와 셰이크도 있다. 앞으로 촬영할 일이 많으니 더 관리해야지! 한국 독자 여러분이 좋아해주시면 이 다이어트가 참 보람찰 텐데!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나? 혹은 작고 매운 고추 좋아하나?

베트남 음식을 좋아한다. 산뜻하고 매콤한 맛이 좋다. 파파야 샐러드를 가장 좋아한다. 한국 음식은 LA 코리타타운에서 딱 한 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다!! 누가 나한테 한국 음식 좀 소개해주면 좋겠다. 금방 한국 음식 열성팬이 될 거다.

공공장소에서 섹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흥분되고 흥미로운 일이겠지. 물론 남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남들은 모르는 비밀스런 능력이 있다면?

음. 난 요리를 엄청 잘한다. 남자를 아주 쉽게 길들이는 좋은 방법이다.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

풍만한 내 엉덩이와 대조를 이루는 가는 허리! 내 몸매를 모래시계처럼 예쁘게 만들어준다. 이 엉덩이와 허리 비율만은 자신 있다. 또 다른 자랑거리는 엉덩이 아래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두 허벅지, 바로 그 두 녀석이 만드는 가랑이 모양이다. 여기에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리와 가슴 못지않게 남자를 미치게 만든다던데?

여자에게 반한 적은 없나?

아주 많다!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다. 그래서인지 난 여자친구가 더 많다. 하지만 다른 여자를 질투하는 여자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번에 마이클 베이의 새 영화에 출연한 클래식한 금발 미녀 샬럿 드 비어도 좋고, 섹시하고 아름다운 모델의 대명사인 엘르 리베라치는 내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인물이다. 완전무결한 그녀의 매력에 빠지면 답이 없다. 하지만 최고를 꼽자면 친구이자 모델인 웬디 피오르를 들겠다. 가슴이 J컵이대 몸매나 얼굴도 매력적이지만 성격은 더 좋다. 작년에 마이애미 해변에 함께 놀러 갔는데, 둘이 해변을 걸으니 모든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모든 '남자'의 뜨거운 시선은 그녀에게 꽂혔다. 그 정도대!

J컵 모델과 당신이 함께 비키니를 입고 해변을 걸었던 말인가? 와, 그거 나라에서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하, 물론 신나게 놀았지만 그렇게 막나가진 않았다.

들고 보니 여자 친구와의 해변 여행이라 함은 지금 싱글이란 애긴가?

누굴 안 사귀지 10개월째다. 요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다. 물론 위안이 되고 늘 따뜻하게 나를 안아줄 사람이 그리긴 하다. 좋은 타이밍에 좋은 곳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면 다시 연애에 불을 지필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나?

나만의 시간과 여유를 즐기는 걸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다면 신사답게 차려입고 매너 있게 행동하며 날 웃게 하면 된다.

모델 일을 하면서 남자 셀러브리티와 엮인 적은 없나?

런던에서 블랙 아이드 피스의 공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를 하던 애들 덩이 내 손을 잡고 무대로 이끌었다. 그러더니 월.아이.엠이 디제잉을 하다가 말고 들어서서 내게 삼페인을 주더라. 진짜 재밌었다! 이런 놀라운 일은 매일 벌어진다. 특히 유명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펜트하우스에서 애프터파티를 자주 즐기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말이다. 이런 게 모델 일의 백미지. 하하!

아침, 당신이 노팬티를 선호한다는 게 사실인가?

그걸 대체 어떻게 알았나? 듣기엔 아주 자극적이겠지만, 그냥 가끔은 노팬티가 편하다. 게다가 팬티 자극만큼 보기 싫은 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여자들은 예쁜 란제리에 환장하지 않나?

진짜 예쁜 속옷은 소중히 아껴놓았다. 난 입고 벗어야 할 때를 아는 여자니까. ☺





“

나는 노팬티 상태를
더 좋아한다.
물론 듣기엔 아주
자극적이겠지만,
그냥 가끔은
노팬티가 편해서
그렇다. 게다가 팬티
자국만큼 보기 싫은
것도 없으니까.

”

PHOTOGRAPH CARTER JUNG STYLING GARETOUCHING NOVELLA GENELZA HAIR&MAKEUP KRISTAL GARZA





Rosie Roff

생일: 7월 18일

태어난 곳: 영국 콘월

현재 거주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나쁜 습관: 오늘은 미친 듯이 구두를 쇼핑했다.

응원하는 팀: LA 레이커스

맘에 드는 작업 멘트: "오늘 밤 당신을 돌봐주겠어."

별명: 잉글리시 맥머핀

첫 직업: 열다섯 살 때 일주일 동안 서빙하다가 관두고 모델 일을 시작했다.





Best of Best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

특수부대란 이름 그대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직접 타격부터 대테러 작전, 심리전 등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빠른 훈련과 장비빨로 무장한 전사들이다. 우리가 흔히 TV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람보나 코만도 역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며, 최근의 FPS 게임이 모델로 삼고 있는 캐릭터 또한 세계의 유명 특수부대원이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의 특수부대 가운데 대표적인 일선 5부대를 선정해보았다.



No.5 악명 높은 특수부대, 알파 그룹(Alpha Group)

미션성공률 ★★★★★

노련함 ★★★★★

역사 ★★★★★

많은 임무는 끝까지 해낸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소속의 특수부대로, 러시아 최초의 대테러 부대다. 1874년 7월, 구 소련 KGB 의장인 유리 안드로포프의 지시로 창설한 이 부대는,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대통령 궁을 습격해 하피줄라 아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100여 명을 사살하면서 그 잔혹성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또 1985년 베이루트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이 구 소련 외교관을 납치하자, 급파된 이들이 이슬람 무장 세력의 가족들을 역으로 납치해 신체 일부를 질러 갈끔하게 배송한다. 결국 외교관들을 성공적으로 구출, 방법이 어찌되었던 특출한 미션 해법을 자랑함에는 이견이 없는 부대인 듯싶으나...



이 기사
내가 썼어!



김대영

군사 전문가,
10여 년간 국방 관련
연론계 종사,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 위원.



막강한 팀킬을 자랑하는 진짜 특수(?)부대

1995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현대전자 연수단 인질극 사태에 투입되어 성공적으로 인질을 구출할 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명성은 좋은 쪽으로 차츰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인질 구출 작전에서 일파 그룹은 불운하게도 인질을 구출하는 부대가 아닌, 인질을 학살하는 부대로 악명을 떨쳤다. 1995년 체첸 국경 부근에서 발생한 부드요노프스크 병원 인질 사건 당시, 이들은 투입된 팀 요원과 민간인 등 100여 명을 희생시켰고, 2002년 10월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사태 때는 수면 가스를 과다 사용해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는 동시에 128명의 인질을 질식사시켰다.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히든 카드라
얼굴도 히든입니다.



No. 4

프랑스의 히든 카드
지젠느(GIGN)

미션 성공률 ★★★★★

노련함 ★★★

역사 ★★★★★



단 한 번의 작전도 실패한 적 없는 최강의 소수 정예

지젠느는 프랑스 국방부 산하 헌병대의 최정예 특수부대다. 이들은 1974년 뮌헨 올림픽 선수촌 학살 사건이 일어난 후 은밀하게 창설되었다. 전체 대원 수에 대해 자세히 공개된 바는 없지만, 2000년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총 87명, 4개 팀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요 인물과 시설물에 대한 경호, 흉악범 호송 임무 등과 같은 경찰 업무도 수행한다. 부대 창설 이래 단 한 번도 작전에 실패한 적이 없는 이들은 지난 30년 동안 500여 차례의 작전을 수행하며 총

500여 명의 테러리스트를 무력화했고, 300여 명의 인질을 구출했다.

전설의 구출! 헐리우드 진출!

이들의 가장 대표적 인질 구출 작전은 1994년 12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공항에서 회교 원리주의 납치범에게 피랍된 에어프랑스 여객기를 구출한 사건이다. 당시 고작 5분 만에 전광석화 같은 기습 작전으로 여객기 내 납치범 4명을 사살, 승객 170명과 승무원을 무사히 구출했다. 이 사건은 2010년 프랑스에서 영화로 만들어졌고, <어썰트>라는 제목으로 2012년 국내 개봉했다.

Military

No.3 미 백악관의 벌종대 델타포스(Delta Force)

미션 성공률 ★★★★★

노련함 ★★★★★

역사 ★★★★★

미국 내 현존 최강의 네임드 특수부대

'특수부대의 나라' 미국은 그 명성에 걸맞게 육해공군에 다양한 특수부대를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최고를 꼽자면 역시 미 합동 특수전 사령부 소속의 델타포스와 데브그루일 것이다. 델타포스는 미 육군의 특수부대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임무만 수행한다. 1977년 그린베레 장교 출신 찰스 베크워드가 창설한 델타포스는 초기에는 영국군의 SAS를 모델로 삼고 있었다. 사실 정식 명칭은 '미 육군 제1 특전단 델타 분대(1st Special Forces Operational Detachment-Delta)로, 최근에는 미 육군 특수 분대(Army Compartmented Elements)로 부대 명칭을 변경했다. 이라나지러나 우리는 그냥 델타포스만 일지.

다 그렇게 아프면서 크는 거야

현재는 미 육군이 자랑하는 최정예 특수부대지만, 초기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이 알려졌다. 1980년에는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을 시도도 못한 채 희생자인 남기고 철수해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다. 또 영화 <블랙 호크 다운>으로 잘 알려진 '고딕 서펜트 작전'에서는 부대원 4명이 사망, 1명이 부상을 당한 채 민선창이가 되어 작전을 끝내야 했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의 두 아들 우다야와 쿠사이를 사살했고, 사담 후세인을 체포하기에 이른다. 마이 컷네!



No.2 빈 라덴을 사살한 특수부대 데브그루(DEVGRU)

미션 성공률 ★★★★★

노련함 ★★★★★

역사 ★★

아메리칸 히어로가 창설한 특수 부대

해상(Sea), 항공(Air), 육상(Land)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인 '네이비 실'은 1962년 1월 1일 케네디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창설한 미 해군 특수부대. 해군 소속이지만 우리나라의 해병대처럼 육해공 어디든 전투가 가능한 부대로, 그중에서도 최정예 부대가 바로 데브그루다. 데브그루는 20여 년간 네이비 실에 복무한 전설적 인물 '리처드 마친코'가 1980년 11월에 창설했다. 이들은 델타포스와 함께 미 합동 특수전 사령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작전만 수행하고 있다.

시작부터 최종 보스를 잡은 스타 부대

데브그루는 2011년 5월 2일 파키스탄에 은신해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면서, 일약 스타 특수부대로 떠올랐다. 또 2012년 1월 25일에는 소말리아에 피랍된 미국인과 덴마크인을 구출하는 데 성공한다. 당시 데브그루 요원들은 야간에 낙하산으로 유령처럼 침투해 인질을 확보, 헬기로 조용히 퇴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구 테러리스트 같으니, 최근 개봉한 영화 <제로 다크 서티>는 빈 라덴 사살 당시 데브그루 요원의 활약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스타크래프트의 '고스트'가 떠오르는 외모다.



외모만으로도 다른 부대 씬싸먹을 기세다.

반비지 샷영. 히히히.



플릭! 플릭!

아 우리가 무슨 소방관이야?

No.1 특수부대의 알파오메가라. 영국의 SAS(Special Air Service)

- 미션 성공률 ★★★★★
- 노련함 ★★★★★
- 역사 ★★★★★

말이 필요 없는 특수부대의 원조

SAS란 이름은 얼핏 보면 항공사를 떠올리게 하지만, 실은 '공수특전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7월, 데이비드 스틸링이 창설한 이 조직은 종전 후 잠시 부대가 해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동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1947년 1월 다시 창설되었고, 이후 현대적 의미의 특수부대 기틀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크게 공헌했다. 특히 대테러 부대에서는 원조 급이다. 1980년 런던 주재 이란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TV로 생중계됐으며, SAS는 10분 만에 인명 피해 없이 상황을 해결했다.

게임에서도 현실이 필요하듯 무시할 수 없는 장비빨 이들이 개발한 대테러 장비 중 하나는 바로 스티븐 그레네이드로 알려진 설파이드 수류탄이다. 1960년대에 개발한 이 수류탄은 바실상 무기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폭음과 빛을 이용해 적을 무력화하는 무기다. 이 무기는 1977년 10월에 발생한 루프트한자 항공기 납치 사건에서 독일의 대테러 부대 GSG9가 최초로 사용했다. 간접적으로나마 맛보고 싶다면 FPS 게임을 해보자. 팀원에게 사용한다면 줄기차게 욕이 쏟아질 거다. 또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이들이 사용한 MP5 기관단총과 검은색 대테러 복장은 지금도 대테러 부대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

가상의 특수부대들

죽는 걸 하도 봐서 그렇지 애네도 특수부대더라.



레인보우 식스(Rainbow Six)
in Tom Clancy's Rainbow Six
소셜가 톰 클랜시가 만들어낸 가상의 특수부대. 앞에서 언급한 SAS, GIGN, 델타포스 등 맹쟁한 특수부대원 중 정예 요원만으로 만든 국제 대테러 부대다. 이들의 존재는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되어, 작전을 끝낸 후에도 해당 국가의 경찰 특공대에 그 공을 돌려 존재를 은폐한다. 출제 말해 공이지, 이 새끼들 순 병서들이예요!

자다 일어났더니 누가 얼굴에...



클론 코만도(Clone Commando)
in STAR WARS
스타워즈 세계관에 등장하는 일반 복제 병사 클론 트루퍼와 달리, 이들은 클론임에도 각 개인의 개성이 인정되는 부대다. 이들을 제작한 장교는 "서로 개성을 지닌 것은 문제가 아닌 강한 집단을 만든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그들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래서 고작 한 지어리곤 갑옷에 개성 있게 딱찰한 것뿐인가.



고스트(Ghost) in STARCRRAFT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테란의 초능력자 특수부대. 태어날 때부터 초능력을 지닌 아이들을 골라 그 능력을 끌어올린 특수부대를 만든 것이 바로 고스트다. 설정상으로는 천하무적이지만 게임 속에서는 그냥 스몐 팩 맞은 마린에 처발린다. 약빨이 좋긴 좋은가봐.

MAXIM From Australia



Feeling Racy

호주에 큰 산불이 나고 폭염 때문에 난리라는 뉴스를 보고 호주 MAXIM 편집부의 인부를 물었다. "아웃백 친구들 욕보네. 괜찮은가?" 그들은 "아임 파인 땡큐"라는 말과 함께 8기동 엔진에 흥분한다는 섹시녀 화보를 선물로 보내왔다. 호주의 12월보다 더 뜨거운 **베키 램**의 매력 속으로 출발!



MAXIM From Australia

BECKY LAMB

생년월일 1988년 8월 13일
태어난 곳 호주 포트 스테판스
넬슨베이

어쩌다 8기통 슈퍼카에 환장하게 되었나?

2011시즌 V8 슈퍼카 챔피언십 경기에 초대되어 경기를 보고 난 후 슈퍼카에 푹 빠지게 됐다.

애인이 프로 드라이버인 파비안 콜타드라고 들었다. 남자친구가 레이싱하는 모습을 보면 겁이 나지 않나?

아니, 별로 걱정은 안 한다. 2010년 우리가 사귀기 전에 남친이 타고 있던 차가 여섯 바퀴를 구르는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상처 하나 없이 무사히 걸어 나왔다. 오히려 그가 선두에 서서 결승점을 앞두고 달릴 때가 더 긴장된다. 그가 치고 나가길 간절히 빌면서 손에 땀을 쥐게 된다.

당신도 스피드를 즐기는 편인가?

물론이지! 나도 꽤 스피드광이라고 할 수 있다. 남친이 엄청난 속도로 모는 차를 타고 같이 트랙을 몇 바퀴 돈 적도 있다!

처음 산 차는 무엇인가?

홀든 아스트라 2000년형이 내 첫 차다. 작고 검은 이 짐승에 '벤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25만 km를 달리고 고속도로 위에서 장렬히 사망했다.

차 뒷 유리창에 요란한 스티커도 붙이고?

그럴 리가! 스티커라니, 너무 유치한 짓이다!

도로에서 딱지 안 때는 당신만의 요령이 있다면? 당신 같은 미인에겐 특별한 비밀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딱 한 번 딱지를 댔다. 과속을 했거든.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도 명심해라. 과속과 노래 부르는 그다지 건전한 조합이 아니다. 하필이면 그때 날 단속한 경찰이 여자였다! 뭘 시도해볼 수도 없었다.

그때 부른 노래가 뭐가?

너무 창피해서 밝히지 않겠다.

여자들은 남자가 드리프트를 하면 반하나? 아니면

그것도 결국 잘생긴 드라이버야 가능한 일인가?

도로에서 무모하게 드리프트를 하려는 머저리들은 그다지 좋은 점수를 따지 못할 거다. 하지만 *켄 블록 같은 프로 드라이버라면 반하지 않을 수 없지!

* **켄 블록**: 극강의 드리프트 기술을 선보이는 스타 드라이버. 그의 환상적인 드리프트를 보고 비자를 흥건히 적시고 싶다면 p. 30 QR 코드를 스캔할 것.

운전은 잘하나?

물론!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슈퍼카 드라이버와

데이트한 여자라고 남친도 내 운전 실력을 인정했다.

프로 드라이버 남친과 레이스를 벌인 적은 없나?

놀이동산 미니카 경주를 재미로 종종 한다. 아... 언젠가 그를 이길 날이 오겠지. 콜타드는 내가 20kg 이나 가벼워서 지는 거라고 위로했지만, 어쨌거나 진 건 진거다. 아, 그에게 '하이퍼-스티물레이터'라는 괴이한 이름의 기구가 있다. 모니터를 보고 가상 경주를 하는 레이싱 카 시트 모양 기구인데, 그것도 진짜 못한다. <마리오 카트>는 얘기가 다르다! 바나나 껍질을 던지고 추월하는 쾌감은 끝내준다.

운전대를 잡으면 성격이 돌변하는 타입인가?

거짓말은 안 하겠다. 사실이다. 운전 못하는 사람, 주차 못하는 사람, 옆 차선에서 계속 걸리다가는 사람... 솔직히 정말 짜증난다. 길에서 뺑뺑질을 하거나 저주를 퍼붓지는 않는다. 난 교양인이니까.

자, 마지막 질문이다. 이번 화보에서처럼 일광욕을

원래 그렇게 유혹적인 자세로 하나, 아니면 그냥 카메라 앞이라 포즈를 취한 건가?

보통 땀 당연히 상-하의를 모두 갖추고 일광욕을 즐기지만 촬영할 때는, 그것도 2페이지 폴삭으로 나올 땀 이렇게 해줘야지, 안 그래? ☺

PHOTOGRAPH WAYNE DANIELS WORDS DANIEL STEINER HAIR&MAKEUP ALI PAVLINO VICH STYLING MANETER SWIMWEAR, VEVE SWIMWEAR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제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라!

간접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5.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전역 인증
게시판
가기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쏜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2명에게
멋진 헬다이버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3년 2월 20일까지)

전역자랑겔



이현진 평생 30%
 너희들의 가라전설
 내가 전역한 소감이
 어떠냐? 솔직히 나처럼
 군생활하고 싶어도 욕먹을까봐 못하지?
 하지만, 그거 나만 가능한거야. 너희 해도 들려.
 꼭 하고 싶으면 유주얼서스펙트급 연기를 너희
 들도 한번 시도해보렴. 꿈은 이루어진다. ^^



정연학 평생 30%
 못난이 후임님들, 올해도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언천에서 땀이 차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전역하면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MAXIM을 봐도 뭐라 할 사람이 없더라. 근데 녀들은
 언제 전역해서 배갈고 누워볼래?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공유자금 평생 멤버십!



민승기 평생 30%
 연보실 아이들아. 형이
 가지마자 올린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사회
 시계는 세고 있지도 않는데 시간이 흑 가더라고.
 연보실에는 MAXIM이 성경보다 더 값진 거
 아니까 과월호를 싸줄게. 연락해라



한상문 평생 30%
 미안하다 먼저 전역해서.
 너희들이 많이 보고 싶고
 그곳도 많이 그리울 거야
 ... 는 웨이크고 진짜 위병소 나가마자 낮았던 내
 목소리가 소프라노가 되더라고. 전역하니까 귀찮은 것
 들이 확 줄었어. 그래도 이런 귀찮은 것들 다 해주던
 너네가 없으니가 좀 허전하긴 하더라. 조금만 더 출다
 보면 금방 따뜻해지고 봄날이 올 거야 ^^ 올해 겨울
 은 엄청 춥다는데, 많이 추워야 집 따뜻한 걸 알지.
 그치? 나도 집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호중대 X땀이 치소 ^^



고진영 평생 30%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건
 뭐지? 했었는데, 시간 참 빠른 것
 같구나. 아직도 눈을 치우며 작게
 시행준비를 하고 흑한기를 대비하며 새해를 보내는
 너희를 바라보며, 형은 스타벅스에서 캐러멜 마끼아또를
 마시고 있으며, 크리스마스와 2년짜리 당직근무에 모두
 당첨된 조성준 상병에게 형은 클럽에서 응원하는 댄스를
 보내며, 원래 군대는 기고 살고 닦고 뛰는 게 제맛 아니겠니.
 이제 MAXIM 과월호를 보내니 사랑의 사료에서 격렬한 군
 번줄 탭댄스 소리가 울려 퍼질지 기대하마. 그럼 이만.



이호승 평생 30%
 잘 지내지 못하고 있
 겠지?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너희들
 은 X뻘치게 하늘에서 내린 하얀 똥을 치우고 있었
 지. 하필이면 60년 만에 내리는 폭설을 맞이할 줄
 이야. 지지리도 운 없는 놈들. 후방인데도 눈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녀들을 생각하니 절로 눈물
 이 앞을 가린다. ^^ 그래서 내가 넓은 아량으로
 MAXIM을 선사하고자 하니 따뜻한 마음으로 읽어
 주길 바란다. ㅋㅋ 사랑한다 후임님들아!!!!



임성수 평생 30%
 애들아, 형이다. ㅋㅋ
 밖은 정말 좋아. 무엇보다
 좋은 건 거기보다 따뜻
 하다는 거지. 진짜 뒤돌아보면 군생활 완전 빨리 갔다.
 백현 이색히 이병일 때가 얼마 전인 거 같은데, 니가
 상병 달고 내가 전역을 하더니, ㅋㅋ 새로 온 애들하고
 도 잘 지내고, 다른 애들 보니까 우리 근무하는 거
 정도면 할 만한 군 생활인 거 같더라! 힘내! MAXIM
 받으면 형 생각하면서 잘 봐라. 그럼 수고!



이대희 평생 30%
 와, 전역한 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구나.
 시간이 가는 듯하면
 서 잘 안가지? 올해 겨울은 많이 춥다는데, 눈도
 벌써 굉장하 많이 왔어. 눈 치우고 추위에 떠느라
 고생들이 많다. 2013년 새해가 밝아서, 올해 전역
 하는 애들은 많이 기뻐했을 것 같고, 내년 전역인
 후임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되다니 하는 마음에
 한숨 쉬고 있겠구나. 그래도 열심히 눈 치우면
 시간은 어느 순간 가있으니깐 너무 낙심하지말고
 현재에 충실하길 바란다^^
 그럼 모두 수고해. ㅋㅋㅋㅋ



정명우 평생 30%
 아가디라고가디리던
 전역이라니. 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너희
 들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그래도 군인일 거야.
 국방부 시계는 존나게 안 가. 하지만 나도 640일
 이라는 시간을 버텨 전역했다. 참고 또 참아라.
 MAXIM을 보면서, 마지막 날까지 화이팅~!



이재운 평생 30%
 자랑스런 창 끝
 포병부대 애들아,
 내가 좀 많이 부
 족했던 선임이지만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은 너희를 위해서 MAXIM 과월호를
 보내줄게. 추운데 고생이 많아. 너희 덕분에
 에 우리가 편히 산다 지부심을 가지고!
 너희는 낮과 삼 하나로 방화지대 만든다고
 산 하나를 민동산으로 만든 강한
 전사들이야 힘내라! 파이팅!



우은석 평생 30%
 안녕 119중대 아이들아.
 형이 벌써 전역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구나.
 군 생활 중에도 정기구독해서 매달 MAXIM을 보여
 줬는데 한 권 가지고 20명이 넘게 돌려 보려니 좀 백
 썼지? 전역하기 전에 과월호 주기로 약속한 거 이렇
 게나마 보낸다. 그럼 남은 군생활도 몸조심하고 광화
 문 지나가다 119중대 깃발 보이면 찾아갈게!



장진욱 평생 30%
 사랑하는 동생들아,
 MAXIM 많기로는
 어느 생활반에도 안
 질 것 같긴 한데, 너네가 하도 새벽에 안 자고
 MAXIM 보는 바람에 손상이 많이 됐으니까 새로
 보내는 과월호 보고 새벽에는 깨끗한 MAXIM되라.
 그리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흑시나
 하는 걱정은 팬티 안에 넣어 두고 ㅋㅋㅋ 이 추운
 겨울에 여친 없다고 쓸쓸해 하지말고 MAXIM
 보고 힘내라!!!

위 12명을 비롯하여 총 90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장구독 평생 30% V.P.P가 되었다!

MAXIM BUYER'S EDGE



지친 두피와 모발을 케어하는 듀크레이(Ducray) 두피 샴푸
건조한 날씨 탓에 두피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면 두피 샴푸를 사용하자. 프랑스 약국 화장품 듀크레이(Ducray)에서 출시한 아나파즈 샴푸 앵 크림은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해주고 두피 마사지까지 해결할 수 있는 샴푸다. 또 비타민 B5, B6, B8을 함유해 두피에 영양 공급은 물론 머리 끝부터 힘 있는 모발로 가꿔준다. 더 이상 소중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보고 있지만 말자. 올 겨울 아나파즈 샴푸 앵 크림 두피 샴푸가 당신의 두피와 모발 건강을 책임질 것이다.
25,000원, 듀크레이(www.ducray.co.kr)

프리미엄 어쿠스틱 기타 A 시리즈로 편하게 연주하자

야마하뮤직코리아에서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디자인으로 아마추어에서 전문 기타리스트까지 손쉽게 연주할 수 있는 프리미엄 어쿠스틱 기타 A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번 시리즈는 슬리드 목재 사용 방식에 따라 총 8종으로 만날 수 있다. 고가 제품에서 볼 수 있었던 사양들을 채택한 A 시리즈는 기타 현의 높이도 낮춰 초보 연주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 입문용부터 전문용까지 다양하니 입맛에 맞게 골라보자.
야마하뮤직코리아(02-3467-3300, kr.yamaha.com)



그녀와의 로맨틱한 밤을 꿈꾼다면? 펜타즈와 함께!

광진구에 위치한 더 클래식 500 호텔 펜타즈의 스위트 룸에서 최고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패키지는 한강 및 일감호의 전망이 좋은 방으로 엄선한 것이 특징. 또 1박 이용권과 라구뜨 조식 2인 이용권,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피트니스 시설 이용권과 천연 암반수 성분이 함유된 사우나 이용권으로 구성된다. 사용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밸런타인데이를 맞아해 그녀와 로맨틱한 밤을 보내고자 한다면 조기 예약은 필수!
272,000원(윈터패키지), 펜타즈(02-2218-5777)



뽀얀 피부가 갖고 싶다면? 엠도씨 이펙트 화이트닝 젤 하나면 변신!
송중기가 대세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바로 하얗고 뽀얀 피부가 그 답! 당신도 엠도씨 나이트 이펙트 화이트닝 젤을 바르면 다음 날 아침에 뽀얗게 변한 피부를 느껴볼 수 있다. 이 제품은 피부 진정 및 보습 효과가 뛰어난 알로에 베라 성분이 92%나 함유되어 수분과 영양을 동시에 공급해주기도 하는 독특한 미백크림이다. 벌써부터 소비자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어 더 궁금해지는 제품. 이제 엠도씨 이펙트 화이트닝 젤 하나면 당신도 송중기처럼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눈, 코, 입만 빼고)
23,000원, 엠도씨(www.mdockorea.com)



술로와 커플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품, 나인틴박스 론칭!
성인용품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젊은 감성들이 들끓고 있다. 새로운 성인 전용 프리미엄 온라인 쇼핑을 나인틴박스가 드디어 오픈했다. 프리미엄 어덜트 토이와 콘돔 제품 등은 술로 남녀를 위한 필수품으로, 선물하기 좋은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과 청결제 제품 등은 커플 남녀를 위해 추천할 만하다. 특히 정기구독 개념을 도입해 한 번의 신청만으로 매달 지정 날짜에 제품의 세تنا 성인 용품을 받을 수 있게 해 고객을 편의성을 높였다. 상상 이상의 제품들과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 사이트 접속 라잇 나무!
나인틴박스(1670-8897, www.nineteenbox.com)



Kiss on his cheek

라네즈옴므 액티브 워터 크림 밸런타인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라네즈옴므에서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kiss on his cheek'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리미티드 에디션 수분크림을 출시했다. 청량한 블루 컬러 제품 케이스에
 붉은 키스마크로 형상화한 패키지가 인상적이다. 라네즈옴므 액티브 워터
 크림은 아모레퍼시픽 최초의 남성용 수분 크림으로 라네즈옴므만의 특허
 성분인 액티브 워터를 사용, 피부 위에서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해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2월 한 달만 한정적으로
 선보인다. 여자친구가 있다면 밸런타인데이 되기 전 여자친구에게 살~짝
 귀뺨해주기~

35,000원, 라네즈옴므(080-023-5454)



초호화 대전 확정! UFC 156 <페더급 세계 챔피언전>

격투팬들의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UFC 156'이 2월 3일
 열린다. 특히 페더급은 현 챔피언인 조제 알도 선수와 체급을 내린 후 첫
 경기로 타이틀에 도전하는 프랭키 애드가 선수가 맞붙게 되었다. 이 경기의
 승자가 추후 코리안 쉐비 정찬성과 맞붙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차기
 헤비급 타이틀 도전자로 예상되는 알리스타 오브레임 선수가 안토니오 실바
 선수와 14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다. 2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 30
 분에 액션 전문 채널 수퍼액션 생중계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본방을 사수
 하라!

수퍼액션(080-080-0780)



2월에도 군인혜택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2월에 안경 벗은 훈남은 초콜릿보다 달콤하다!

2월 한달 동안 서울밝은안과에서 군장병과 예비역들을 위한 시력 교정술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다. 본 이벤트는 군장병과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수술 비용을 할인
 해준다. 원데이 라식은 검사부터 수술까지 진행하는데 하루 만나시면 충분해서 휴가가
 짧은 군인이나 직장인에게 인기가 좋다. 수술 후 회복이 빠른 것도 장점. 이번 휴가엔
 MAXIM 에디터가 추천하는 원데이 라식을 통해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훈남이 되자!
 서울밝은안과(1566-0838, www.yourlasik.co.kr)

사랑 가득한 밸런타인데이, 립톤의 밀크티 제안

너나 할 것 없이 초콜릿을 한 손에 들고 있는 커플들 사이에 꺼서 특별할 것 없는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집에서 손수 준비한 티타임을 즐기며 연인이나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일사한
 달콤함에 감칠맛이 도는 립톤 솔리드
 아쌘 블랙티에 우유를 넣어 만든
 밀크티와 간단한 디저트만 준비한다면
 로맨틱하고 오붓한 하루를 완성할 수
 있다. 립톤 솔리드 아쌘 블랙티의 감칠
 수 없는 강렬하고 풍부한 맛과 향이
 연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것이다.
 6,500원(20개입),
 립톤(www.lipton.co.kr)



뷰티살롱 에이바이볼 디퓨저 출시

에이바이볼(A by BOM)에서 핸드메이드
 디퓨저 방향제를 출시한다. 디퓨저는
 원액이 우드 스틱을 타고 올라가 공기
 중에 분산되는 방식의 방향제. 뷰티살롱
 에이바이볼 디퓨저는 싱그러운 풀 향기의
 가드니아와 풍성한 꽃향을 지닌 엘렌시아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됐다. 식물성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강에 무리가
 없으며 100% 깨끗한 수제 공정을 거쳐
 제작돼 안심하고 향을 즐길 수 있다.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 또는 사무실에
 두면 디퓨저가 그대에게 싱그러움을
 선사할 것이다.

에이바이볼(02-516-8765)



2013 MISS MAXIM CONTEST

세계적인 남성 잡지 MAXIM에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아라!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MAXIM 스타프들과 함께 하는
멋진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될 기회!

2013 총 상금 600만 원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상금 10만 원)

온라인 예선 통과 시,
MAXIM 월간 매거진 화보 촬영

8강 진출 시, MAXIM 특별판 매거진
표지 모델 발탁

우승 시, 2014년 MAXIM 월간 매거진
표지 모델로 선정 (1~12월호 중 하나)

2012 MISS MAXIM 우승자 단영

참가 신청

MAXIM 홈페이지에서 **미스 맥심 참가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매력을 잘 표현한 사진 10장 이상을 업로드 한 뒤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씁니다.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

콘테스트 진행

2013 MISS MAXIM 콘테스트 온라인 예선에서는 본인이 올린 사진이 공개되며, 다른 참가자와 1대1 인기투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2주 간의 대결에서 더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참가자가 예선을 통과합니다. 온라인 예선을 통과하면? 승리하는 즉시 상금이 지급되며, **이달의 MISS MAXIM**

으로 선정되어 화보 촬영에 들어갑니다. 해당 화보는 다음 달 MAXIM 매거진에 실리게 됩니다. 이후 MISS MAXIM 콘테스트 16강전에 진출하여 우승을 위한 토너먼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16강부터는 상금액도 더욱 높아지니 숨은 매력녀들의 뜨거운 참가 신청 바랍니다!

문의

e-mail: missmaxim@maximkorea.net
tel. 02-323-1182
www.maximkorea.net



Unpicked

이 사진이 이상하다!

쓰고 싶은데 왜 쓸 수가 없니!



Miss MAXIM 정예진

못 쓴 이유: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아닌데 쓸데없이 생동감 넘쳐서, 그것도 모자라 예쁜 발로 더 예쁜 얼굴을 가리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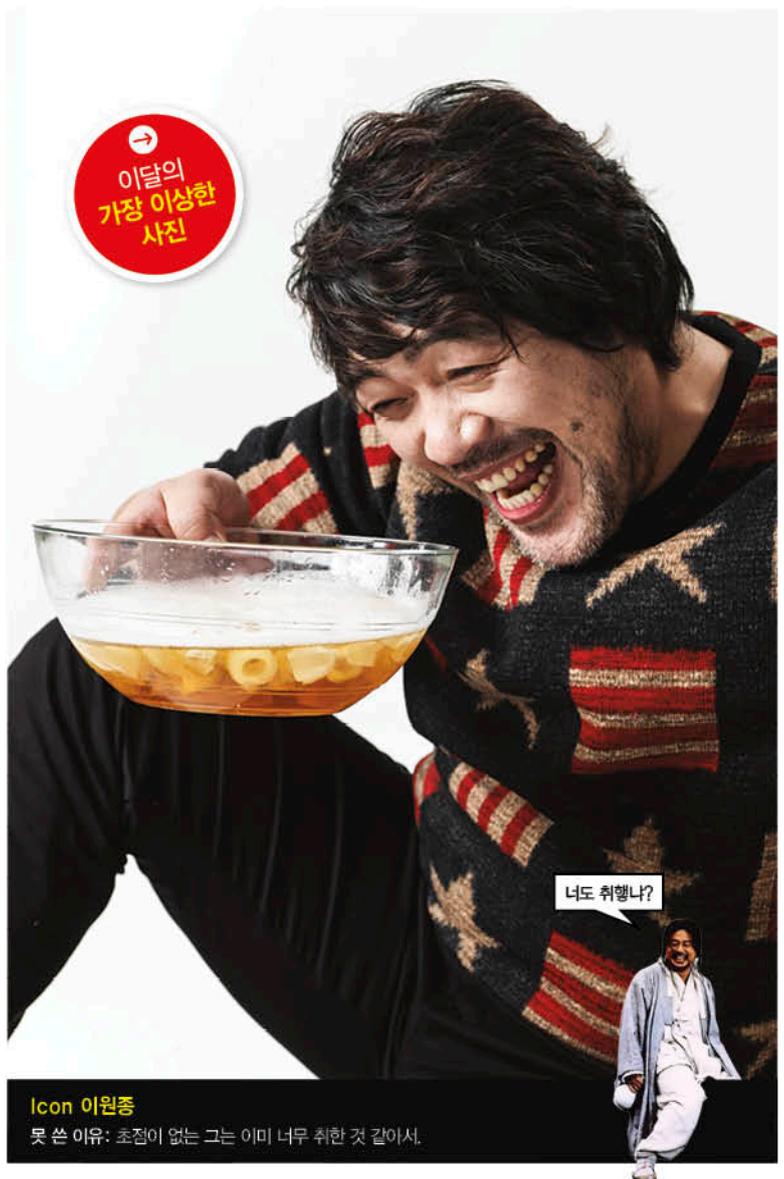
Music 쿠마파크

못 쓴 이유: 이영환 에디터의 등이 꿈추처럼 너무 애처롭게 휘어서.



곽현화 Cover 화보

못 쓴 이유: 바지가 너무 크다 못해 로봇 다리에 탄 것 같아서.



Icon 이원종

못 쓴 이유: 초절이 없는 그는 이미 너무 취한 것 같아서.

Unpicked

이 사진이 아깝다!

땅에 떨어뜨린 닭꼬치 한 입보다 아까운 사진들



Who's that girl? 이예빈

못 쓴 이유: 지세 좋고 각도 좋고 조명도 좋았으나 타이밍 좋게 등장한 최동희 인턴 에디터의 앙증맞은 뺨방.



여신 발굴 프로젝트 오가은

못 쓴 이유: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아서, 표정과 복장의 싱크로율까지 이렇게나 완벽하디네!



급시니스트 카툰

못 쓴 이유: MAXIM이 십자군 전쟁에 휘말릴 게 두려워서.



Miss MAXIM 박선희

못 쓴 이유: 뒤통가 아까워 죽겠지만, 얼굴이 안 나와서. 에디터 갠스 폴더로 이동했으니 아쉽진 않아.

페더급 세계 챔피언전

UFC 156

역사상 최대의 빅매치!

조제 알도
Jose Aldo

프랭키 에드가
Frank Edgar

알리스타 오브레임
Alistair Overeem

안토니오 실바
Antonio Silva

안토니오 호제리오 노게이라
Antonio Rogerio Nogueira

라샤드 에반스
Rashad Evans



수퍼액션
공식블로그



2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SUPER ACTION

MAXIM

KOREA

FIGHT

CAIN VELASQUEZ

13개월의 절치부심과 복수, UFC 헤비급 왕좌 재탈환
MMA 챔피언이 된 외팔이 파이터 닉 뉴웰
택견 실전에서 써먹기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1위부터 5위까지

HOWTO

빼빼로데이/로즈데이/블랙데이/구구데이 등등
별의별 잡 DAY들을 모조리 섹스로 연결시키는 법
곤란한 직장 상사 길들이는 법

CLUB

잠입! 소문의 이태원 라운지 CLUB MOVE

MAXIM PARTY
@CLUB OCTAGON

ICON

酒黨 이원종

소문난 주당 배우 이원종의 생애 첫 화보 촬영
시작만 기억 나고, 끝은 기억 안 나는
MAXIM과의 음주 인터뷰. 잘 들어가신 거죠?

FEBRUARY 2013



2:1 OR 1:2
WHAT'S HER DESIRE?

COME BACK!
2013 MISS MAXIM CONTEST
HOT NEWFACE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